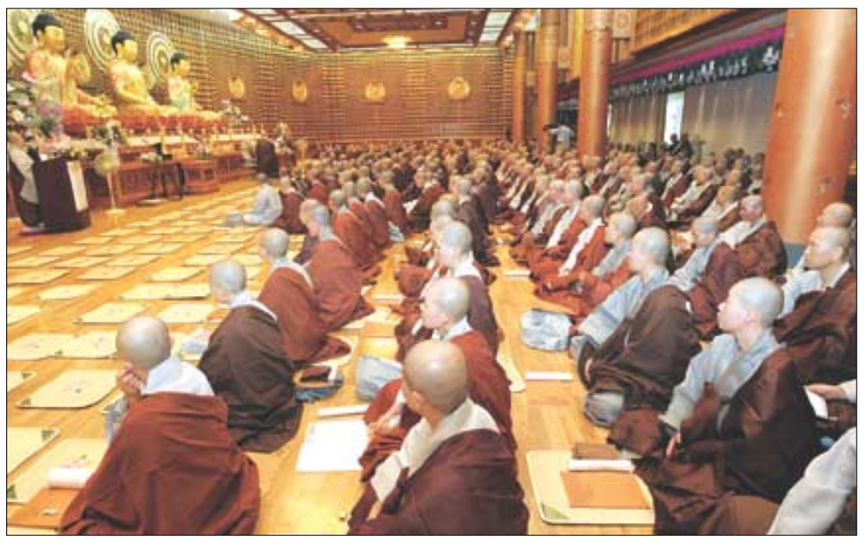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8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 434 호

만다라 문화원
진품 만다라 천견 · 감상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02)3673-3881



◇7일 선문회가 개최한 '선수행 특강'에는 6백여 비구니스님들이 운집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비구니 수행 · 전법 'UP!'

19일 회관 개관… 비구니 '총본산'으로
선문회 7일 특강 개최, 6백여 수좌 운집

이 시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찾기 위해 조계종의 비구니 수좌 6백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수행, 교육, 포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이를 뒷받침할 전국비구니회관도 19일 개관한다. 바야흐로 '비구니 스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국비구니선원 수좌들의 모임인 선문회(회장 영운)는 개관을 앞둔 비구니회관에서 7일 선 수행 특강을 열었다. 특강요약 6면

비구니회관 개관을 축하하고 올바른 수행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진관스님,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명성스님 등 비구니계 원로스님과 비구니 수좌 6백여명이 참석해 수행과 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참가대중은 또 전국비구니회와 선문회 등 비구니 조직 활성화와 비구니회관을 '비구니 총본산'으로 육성하자고 결의했다.

전국비구니회 광우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증대하는 시발점"이라며 "전국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강조했다.

선문회 회장 영운스님도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수행을 중심으로 교육과 포교를 아울러 시대변화를 선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범(중앙승가대 총장) · 혜국(남국선원장) · 명성(운문사 승가대학장) · 해주(동대 교수) 스님의 '선수행'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박봉영 · 여수령 기자

"종무실 오히려 확대해야"

법장 스님, 이장관에 폐지 반대 밝혀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문화정책국과 통합돼 문화정책실로 개편된다.

문화관광부 이창동 장관은 6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하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한 데 이어, 문광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조직개편안은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의 골자는 현행 2실6국 체제를 유지하되, 종무실을 문화정책국과 합쳐 문화정책실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화정책실장이 문화, 예술 업무 외에 종무업무까지 함께 맡게 된다.

그러나 조계종은 종무실 폐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이창동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종교인구가 3천5백만을 넘어선 지금 종무실은 오히려 역할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법장)도 8일 종무실의 종교청 확대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광주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9월 1일부터 인터넷 · 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3차 교육이 전주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일정: 2003년 9월 1일부터 8주간(매주 월~금 오전 10~12시)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교육장소: 광주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62-231-8062)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광주지사
지사장 주용직 062-375-9986
▦모집 인원: 5명

불교정보화협의회 · 현대불교신문사

"스님들 87.8%가 노후대책 원해 종단주도 연금보험 상품 개발을"

보각 스님 박사학위 논문서

스님들의 87.8%가 노후에 개인적인 생활비 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단이 주체가 돼 승려들에게 맞는 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스님은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불교조계종 승려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각 사찰별 분담금에서 소속 승려수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갹출하는 방식으로 승려노후복지사업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4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앙승가대 동화사 파계사 해인사 운문사 범어사 법주사 송광사 승려 316부, 일반인 141부등 총 45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한 보각스님은 "노후문제를 걱정하는 스님이 69.4%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후를 걱정하는 일반인이 45%인데 비해 30%나 높은 수치다.

스님은 "스님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경제문제(40.4%)가 가장 높았고, 의료(30.5%) 주거문제(25.8%) 순 이었다"며 "88.5%는 노후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스님들은 이상적인 주거시설의 형태로 본사급 요양시설(69.3%), 사설사암 요양시설(19.9%) 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각 2.6%)순으로 선호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기행 코스
상록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5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아산 인취사
백련 보급의 원조인 인취사 연 밭과 주지 혜민 스님의 '연꽃 법문'

김제 청운사
연 밭 6천 여 평을 가득 채운 백련 감상 및 연꽃 차 시음 및 구매

기행 일시 및 인원
8월 16일, 23일
오전 7시~오후 8시. 선착순 200명

참가비
4만 5천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 · 여행자 보험금 포함)
※10명이상 단체참가시 10% 할인

참가 방법
전화신청 (732-1520)→참가비 입금(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립니다)-좌석배정- 당일 오전 6시25분까지 조계사 앞 집결

91개 선원서 2,159명 용맹정진 하안거 12일 해제

계미년 하안거 해제법회가 12일 해인총림 해인사를비롯해 조계총림 송광사, 영축총림 통도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등 전국 91개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각 총림 방장 법어 3면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은 11일 발표한 해제법어에서 "공부인에게 해제와 결제가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이며, 큰방에 앉아있는 것과 산천을 다니는 것에 무슨 차별이 있겠느냐"고 법문했다.

이번 하안거에서는 57곳의 비구선원과 34곳의 비구니선원에서 모두 2,159명이 용맹정진 해왔으며, 올해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지정된 화계사 국제선원, 논산 무상사,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에서도 60여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안거에 참여했다.

한명우 기자

하계휴가 관계로
금주 24면 발행합니다

정주 합동법률사무소
개업 인사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박 영 만
(법명 : 일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5 오성빌딩 501호
TEL 02)3476-5704
FAX 02)3476-5710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컴퓨터 배우는 노스님

현대는 정보화시대다. 정보에 뒤떨어진 사람은 생존할 수 없으며, 컴퓨터 활용이 이를 좌우한다.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 전자계산원에서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조계종 제6회 승려 전산교육'이 시행됐다.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모두 68명이 참가했다. 이들 참가자 가운데 반수 이상이 40대 중반 이상의 스님들이었고, 이중에는 84세나 된 스님도 있었다.

40대 중반 이후는 사실상 컴퓨터와는 거리가 먼 세대다. 자판조차 모르는 참가자도 반수 이상이었다. 게다가 스님이라는 신분까지 감안하면 컴퓨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승려 전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컴퓨터 학습이 '생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사찰이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 시대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사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컴퓨터를 모르고는 불가능하다.

이번 전산교육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스님들은 "이런 교육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전산화 교육은 1년에 한 번 뿐이다.

정보는 곧 '힘'이다.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차제에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 기회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지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다.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모 · 유주 · 무주 고혼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께서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향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 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재'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하신바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두번째 49재 안내

제 1재	8월 10일	제 2재	8월 17일	제 3재	8월 24일
제 4재	9월 1일	제 5재	9월 8일	제 6재	9월 15일

첫 번째 49재 – 8월 10일 용주사 주지 정락큰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 (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앞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30분 조계사앞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 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 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운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

사 설

대불련 총동문회의 대동결사

대학교 재학 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 사람들이 졸업 이후에도 신행활동과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만든 모임이 대불련 총동문회이다. 이들의 한마음 만들기 전진대회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있었다. 대학생 불교학생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동문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한편 대학생불교운동을 시작하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불교 중흥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자는 결의를 다지고자 했던 것이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시간의 길이만큼 10만여명의 동문들이 경향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 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불교와 인류의 보편윤리"란 심포지움, 동문과 가족 그리고 재학생들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산사음악회, 지구별 동문들의 참여화합전진대회, 직능별 동문회 창립 등의 행사를 거행했다. 화합과 발전, 참여와 신행의 일상화가 참석자들의 가슴에 새로운 화두로 각인되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밝은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해방과 산업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불교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정보화 사회의 현장을 누비고 있는 회원들의 활동이 확대 내지 건실해질수록 한국불교의 내일이 밝아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비구니 '총본산' 에 거는 기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교화 활동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생겼다. 서울 강남 수서동에 지어진 전국비구니회관이 19일 정식으로 개관하는 것이 결정적 계기다. 전국비구니회는 세계최초로 지어진 비구니회관이 전국 7천여 비구니 스님과 2천여 비구니 사찰의 '총본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했으며 여기에는 끊임없는 수행정진의 열의를 진작 시켜갈 각종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7일 전국 600여 비구니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선 수행특강' 을 열어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일념을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가 기존의 '선문회' 를 재정비해 수행가풍을 알차게 가꿔나가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불자들의 기대가 크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이 일궈가는 수행전통과 문화는 한국불교의 독특한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비구니회관의 개관과 각종 수행교화 프로그램 운영, 선문회의 의욕적인 활동 다짐 등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비구니 스님들이 내적으로 수행에 매진하면서 밖으로는 전법교화에도 뛰어들어 '상구보리 하화중생' 의 원력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은 박수 받을 만한 일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 종교는 다양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비구니 회관이 수행과 전법교화, 각종 연구와 교육, 시민들이 편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비구니 스님들의 '부드러운' 원력이 세상을 한층 더 밝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사찰기탁문화재 모두 722점

중앙박물관 99점 · 지방에 623점 보관

황소장 "소유주 분명하면 돌려줘야"

중앙 및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사찰 기탁(寄託) 문화재는 모두 722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탁문화재는 일반인(개인이나 단체)이 보관을 의뢰한 경우로, 소유주가 원하면 언제든 가져갈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요구한 자료에서 드러난 것이다.

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찰기탁문화재는 2003년 7월 현재 중앙박물관에 99점, 소속 지방박물관에 623점이 보관중이다. 중앙박물관의 경우 조계종이 자체 파악한 74점보다 25점이나 더 많은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다. 영주 부석사 동불상 1점은 조계종 자체 현황에 빠져 있고 불국사도 조계종이 파악한 게 30여 점인데 비해 중앙박물관은 71점이라고 밝혀 두 배 넘는 차이가 난다.

지방 국립박물관을 보면, 기림사 건칠보살좌상 등 273점(경주박물관)과 금산사 혜덕왕사비이수파편 1점(전주박물관), 법주사 괘불탱(보물 1259호, 청주박물관) 등이 조계종 자체 집계에 빠져 있는 문화재들이다. 조계종은 지방 국립박물관에 706점이 기탁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 측은 그러나 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가 기탁 사찰별 문화재 점수만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 세부 목록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감 자료조사를 돕고 있는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소유주가 분명한 것은 빨리 돌려주되 사립박물관 육성 차원에서 그 동안의 보존방법, 해당 문화재와 관련된 연구성과, 전시기법 등을 함께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생명평화 지리산기도 실상사서 900일 행사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 지리산 1000일기도 900일 행사가 3~4일 남원 실상사와 노고단 일대에서 열렸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4개 종교인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행사 첫째날은 신학자 현경이 표현하는 '모성, 지리산, 그리고 평화' 강연, 문화마당, 등불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도법스님, 김영호 교수(경북대), 현경 교수(유니온신학대)의 평화좌담회, 지리산평화결사 추진위원회 발족식, 노고단 생명평화 기도, 체험마당 등으로 꾸며졌다. (관련기사6면)

남동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은 6일 아산병원을 찾아 고 정몽헌 회장을 조문했다.

"불교협력등 남북교류 지속돼야"

법장총무원장, 정몽헌회장 빈소 조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고 정몽헌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하고 불교를 포함한 남북교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6일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 뒤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자신이 직접 쓴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이라는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을 빈소 영단에 올렸다. 이 구절은 '모든 법은 꿈같고 허깨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아서, 마땅히 이렇게 볼지니라' 라는 뜻이다.

법장스님은 "금강경 마지막 구절은 모두에게 기쁨과 자유를 얻는 해탈문이며, 평안히 해탈과 자유를 얻으라는 뜻에서 글을 올렸다"며 "정몽헌 회장은 선친(정주영)과 더불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튼 분이고, 이 분들의 뜻이 남북 평화정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민(해인사) 종상(불국사) 법타(은해사) 스님 등 조계종 20여 교구본사주지들도 4일과 7일 정 회장의 빈소를 방문, 고인의 넋을 기리고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했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도 4일 정 회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발표하고 "남북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온 국민이 뜻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몽헌 회장의 죽음이 신계사 복원을 비롯한 불교계 남북교류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불교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총무원 관계자는 "신계사 복원이나 단청불사 등 남북불교교류사업은 남측의 조계종과 현대아산, 아태위원회 북측의 조불련과 문화보존지도국 등 종교단체 및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미 사업이 궤도에 올라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범종단 불교환경단체 추진

수경스님, 연구소설립 대안 적극 모색

범종단 환경단체가 설립될 전망이다.

수경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 주도하는 범종단 환경단체 설립은 조계종을 비롯, 태고종, 천태종, 관음종 등 주요종단 대표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도 이사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수경스님은 "범종단적인 환경단체를 설립해 현안문제뿐 아니라 불교환경연구소 등을 설립해 대안마련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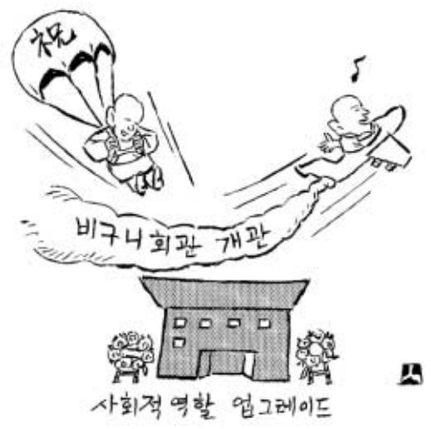
남동우 기자

북한 신계사 복원불사등 정주영일가 불교와 인연

고 정주영 명예회장을 비롯한 정씨 일가는 많은 불사에 동참하며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왔다. 고 정몽헌 회장은 선친(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뜻을 받들어 신계사 복원사업 추진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도선사에서 49재를 지내고 위패를 모셨으며 정몽준 의원은 올해 해인사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전통한정식 복 천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주차장완비)
5호선 둥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합장 배례

'현대' 만평 심 민 섭



제 8회 선우논강 안내

선우논강은 부처님 유언에 따라 법을 토론하고 탁마하는 공부모임입니다.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불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국불교의 수행,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의 마당입니다. 선우논강은 1년에 2차례 해제 후에 열리게 됩니다.

제8회 선우논강의 주제는 "왜 간화선인가"입니다.

지난 제7회 선우논강("간화선과 위파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에서는 현 조계종단의 수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간화선 수행 풍토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8회 논강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간화선 수행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수행풍토를 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보려고 합니다. 제방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8월 22일(금) 저녁 6시 ~ 10시 (접수는 4시부터 받습니다)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주 제** : "왜 간화선인가"

● **기조강연** : 철오스님(사천 구룡사,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
● **발 제 자** : 원경스님 (송광사 강원 학감)
● **논 평 자** : 도법스님(실상사) 월암스님(경주 남산 칠불암)
● **대 상** : 조계종 비구, 비구니
● **참 가 비** : 2만원
● **준 비 물** : 대가사
● **문 의** : 선우논강 사무실 (02-3676-4060), 실상사 (063-636-3031)

■ **선우논강 후원계좌 : 우체국 704296-02-018502 (예금주 장영기)**

※ 제8회 논강 발제문 및 토론문은 인터넷 http://cafe.daum.net/nonkang 자료실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내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우논강 대중일동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 표 철 오



하안거 해제법어

해제철도 결제삼아 더욱 정진하라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고인들은 움직일 때나 머무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마디 했다 하면 곧바로 귀결처를 알아차린 일화가 많습니다. 이런 공부인에게 해제와 결제가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이며, 큰방에 앉아있는 것과 산천을 다니는 것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공부처요, 보이는 경계마다 거량처인 것입니다.

한 철 제대로 정진을 했다면 가는 산천마다 선지식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한 두 마디 아는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치 못한 사람은 눈 밝은 사람을 눈 앞에서 바로 만나더라도 거량은 고사하고 그 선지식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성한 나무와 마른나무를 보고서 '어떤 것이 옳으냐' 고 물으니 한 납자는 '무성해야 한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古人)은 '속이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무성한 나무와 마른나무를 보고서 '어떤 것이 옳으냐' 고 물으니 한 납자는 '말라야 한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은 '속마음을 아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부처요 보이는 경계가 거량처

'마른 것은 제대로 마르게 두고 무성한 것은 제대로 무성하게 두어야 한다' 고 한 사미가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은 '아이를 예뻐하다가 추해지는 줄 모르는 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모두가 틀렸다'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승이 해제대중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고인의 답변에 과연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고인의 답변에 과연 얻고 잃는 것이 있습니까?

한 철 동안 정진하여 안목을 갖춘 납자가 있다면 한번 제대로 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만약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해제철도 결제삼아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낙상황엽작금전(落霜黃葉作金錢)
치해아제견희환(癡駭兒啼見喜歡)
착득헌양구도호(捉得獻孃俱道好)
부지수시신방관(不知誰是誰傍觀)
서리맞은 단풍잎을 돈이라 하니
어린아기 울음 그치고 기뻐하였네.
가져다가 엄마에게 보이니 모두가 좋다고 말하나
곁의 사람 비웃음 받을 이는 누구이던가?

월하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천진자성(天眞自性)은 본래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으며, 온 시방의 허공계가 바로 나의 한마음의 본체니라. 허공이란 본래부터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번뇌라 할 것도 인위적인 작위도 없으며,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다. 한줄기 맑은 흐름이 자성의 태어남이 없는 진리이니 어찌 머뭇거려 헤아리고 따질 수 있겠는가. 참 부처는 입이 없어 설법할 줄 모르고 참 들음은 귀가 없으니 뉘라서 들을 수 있겠느냐. 수고하였다. 편히들 쉬라.

오늘 계미년 하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여 시회대중에게 고한다.

남전화상에게 어느 날 한 중이 묻기를 "사람에게 설하지 못

도처에 산해진미가 가득

하는 법이 있습니까?"하니 남전화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중이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사람에게 설하지 못하는 법입니까?"하였다. 그러자 남전화상이 대답하기를 "심(心)도 아니고 불(佛)도 아니고 물(物)도 아니다."고 하였다.

우리 선가에서는 마음이 곧 불이라고 내세우는데 왜 마음도 아니고 불도 아니며 덧붙여 물도 아니라고 하였는가?

이에 대해 훗날 무문스님이 평하기를 '낭당불소(朗當不小)' 라 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남발했다' 고 지적하였으나 이 또한 잘못됐다.

그릇됨을 일격에 바로 본 이는 부디 마음도 놓아버리고 불도 놓아버리며 물도 놓아버린 채 오늘 해제일을 맞아 비로소 진중하라. 도처에 산해진미가 가득하구나.

돌(乭)!

원담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줄 알면 곧 여래를 보리라"하셨고, 법안 스님은 "만일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줄 보면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하였는데, 이에 대해 옛 스님이 말하기를 "형상이 형상 아닌 줄 안다면 안목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에는 두개의 합정이 있으니 누군가 찾아내면 그는 법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을 가졌다 하리라" 하시고 "앞 쪽은 천 길의 묵은 개울이요 뒷 쪽은 만 길의 높은 산"이라 했는데 대중들은 알겠는가!

모른다면 일러주리라.

눈이 온 뒤에 소나무의 절개를 알 수 있고, 새가 허공을 날으나 그 흔적이 없다 하리라.

그러나 상이 있고 또한 구함이 있겠는가?

백옥에 티가 없거늘 문체를 새기려다 본 바탕을 다치게 하

마음 여여하면 경계도 여여

지 말라!

유(有)에 집착하고 무(無)에 집착하는 것은 모두 삿된 견해이니 유와 무에 집착하지 않아야 일미가 항상 나타나니라.

육조 스님은 "모든 상이 허망한 것이니, 만일 일체 모든 상이 허망해서 실(實)이 아님을 깨달으면 곧 여래의 무상한 그 진리를 본다"하셨는데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도 여여하다.

그러나 이 여여를 여여라 하면 여여가 아니라 벌써 변해 버린 말이니 이 여여는 곧 우주의 근본이며 일체만물이 이 여여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니라.

야부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겠는가!"하였는데

일러보라! 대중들은 무어라 입을 열겠는가!

방하착(放下着)하라, 방하착하라.

지허 스님(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엊그제 결제일에 모여 생사도 묻지 않고 전후좌우도 묻지 않고 오로지 조사관(祖師關)만을 꿰뚫어야겠다 했더니 어느새 해제날이 되었습니다.

이 때 무심코 하늘을 보니 가없는 허공에 둥근 달이 홀로 떠서 지긋이 웃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달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도반이오 나의 스승이니 반갑기 그지없기에 한없는 도정(道情)을 보냅니다. 이 때에 하염없는 달을 보고 한 곡조 읊는다면 이가 바로 철우(鐵牛)의 만고운곡(萬古韻曲)이요, 언전소식(言詮消息)입니다.

어떤 중이 조주(趙州) 선사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선사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중이 다시 묻기를

빈산에 둥근달만 외로이…

"있다면 어째서 가죽 포대 속에 들어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하기를 "그가 알면서 짐짓 범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다시 또 다른 중이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하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중이 다시 묻기를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이 있다 했거늘 개는 어째서 없다 하십니까?" 하니, 선사가 말하되 "그에게 업식(業識)이 있기 때문이니라" 하였습니다.

납자들이여! 이 병납(病衲)이 조주 스님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해도 맞지 아니하고 개에게 불성이 없다 해도 맞지 아니하며 혹 있다거나 혹 없다고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한 마디 이르십시오.

조계종 통합신도회 10월 발족

통추위, 22일 최종 의견 수렴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이르면 오는 10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

양 신도회 임원 4인씩 총 8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백창기 선진규)는 통합신도회의 명칭과 시기, 조직 등 별다른 이견 없이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양 신도회의 통합은 종헌종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9월로 예정된 조계종 정기중앙종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합추진위의 합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종회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추진위는 지난 5월 구성된 이후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 신도회의 방향과 절차, 조직 통폐합 등을 논의해 왔으며, 현재까지 통합추진위는 명칭과 시기, 조직 통폐합 절차, 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낸 상태다.

명칭은 지난 3월 합의한 대로 '전국신도회' 를 그대로 사용하되, 중앙종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앙신도회' 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직 통폐합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양 신도회의 지역조직 현황 파악을 거쳐 통폐합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22일 '통합신도회의 조직체계 및 발전 전망' 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신도회의 회장을 누가 맡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신도회는 선진규 전국신도회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백창기 중앙신도회 회장을 통합신도회 회장으로 추대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전국신도회는 양 신도회 회장을 공동회장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전국신도회의 법인 승계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다. '법인을 승계할 경우 통합을 승인할 수 없다' 는 중앙종회 의원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신도회는 "'전국신도회의 역사' 를 '중앙신도회의 조직과 사업' 을 통해 구현하는 조직통합으로부터 명실상부하게 자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한국불교 신도회의 구심체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힌 통합선언문과 '하나의 신도회' 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최연 통합추진위원(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양 신도회가 10월 통합대의원총회를 통해 완전통합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로 원칙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및 시식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백중천도시식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백중기도 및 회향안내
우리절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불교의 천도명절인 우란분절 백중기도기간을 맞아 불자님들의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위하여 칠칠재를 봉행하며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 회향법회가 봉행됩니다.

제 2차 천삼십일기도 회향
지난 2000년 11월 5일부터 시작한 제2차 천삼십일기도가 오는 8월31일 오전10시 조계총림 송광사 율원장이며 부산의 두송종합사회복지관과 두송자활후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계신 부산 관음사 주지 지현대화상을 모시고 마침내 회향을 맞게 됩니다. 보다 아름다운 회향이 되도록 불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전국청년회 배구대회 개최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10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상월원각 대조사기배 전국청년회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일주문



제25기 행자교육원 개원

무비 조계종 교육원장은 14일부터 9월 5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제25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한다.



지역포교를 위한 강연회

지성 대구 동화사 주지는 22일 오후 7시 대구불교방송 7층에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 초청, 지역포교를 위한 강연회를 연다.



중국 보타산 성지순례

원혜 서울 강남 봉은사 주지는 18~22일 6일간 중국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소흥, 영파 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어린이 여름생태불교학교

수경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9~10일 이틀간 여주 신륵사에서 '2003년도 어린이 여름생태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영축산 찬가' 범패 공연

인묵 불교어산작법학교장은 15일 오후 9시 서울 하늘극장에서 '영축산 찬가' 범패공연을 갖는다. (02)2274-3507



불교의식집 '일원곡' 발간

동봉 우리절 주지는 최근 불교 발원문과 작법, 의식집을 모은 <일원곡(一圓曲)>을 법공양판으로 발간, 무료로 배포중이다. (02)763-4674



15~17일 디지털 하계캠프

정은 청주 디지털 청소년 상담실장은 15~17일 사흘간 청주 삼탄에서 제6회 디지털 하계 캠프를 개최한다.



'2003 다도지도자 하계연수회'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8~9일 이틀간 순천 송광사에서 '2003년 다도지도자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전효중 고문 1급으로 승진

전효중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 고문은 1일자로 생활경제국장 2급에서 1급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성지순례 · 산상법회 봉행

오길수 광주불교산악회장은 10일 경남 거제도 노자산 관음도량 혜양사로 성지순례 및 산상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민 자존심 찾는 계기됐으면"

'삼국유사' 영인본 발간한 상인 스님



"일연성사께서 <삼국유사>를 이곳 인각사에서 저술하셨지만, 인각사에 단 1권도 보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 초 국보 306호로 지정된 <삼국유사>가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스님(사진)에 의해 영인본으로 출간, 5일 '일연성사 열반 제714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하는 자리에서 일연성사 영정에 봉정됐다.

상인스님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서이자 문학서인 삼국유사 국보지정을 기념해 일연스님의 기일을 맞아 삼국유사 정덕본을 발간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삼국유사 역사기념관이 건립되면 영인본을 역사전시관으로 이운해 영구히 소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정된 삼국유사는 450여 쪽 2권으로 조선 초기와 중종 때의 판본을 바탕으로 모두 100질이 제작되었으며, 일부는 사찰에서 보관하고 나머지는 조계종 총무원, 청와대, 문화관광부 등에 기증될 예정이다.

스님은 또 "영인본 발간을 통해 삼국유사의 활발한 연구와 함께 삼국유사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저변이 확대돼 한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상인스님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를 봉행하고, 일연성사 국사전 건립, 일연성사 현창사업 진행 등의 공로가 인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표창을 받았다.

대구= 박원구 기자

삼국유사 역사기념관에 영구 보관

증심사 주지 일철 스님 입적, 8일 영결식

'무등산 풍경소리'로 환경운동에 새지평



광주 증심사 주지 일철(一徹)스님이 6일 오후 3시30분경 입적했다. 세수 48세, 법랍 28년.

1957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일철스님은 75년 송광사에서 현 방장 보성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송광사 도서관장, 강원 학감, 샌프란시스코 타사하라선원, 삼보사 금강선원 등을 거쳐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문화부장, 불교신문 주간을 역임했으며, 이후에도 환경부 종교단체 환경정책실천협의회 위원, 총무원 기획실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2002년 광주 증심사 주지로 부임해 환경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 매달 음력 보름날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를 개최, 새로운 환경운동의 지평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광주 · 전남 지역의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생명나눔운동본부 광주지역 본부장,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등의 활동으로 지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한편 영결식은 8일 오전 10시 증심사에서 대흥사 조실 천운스님,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광주사암연합회장 현지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어 송광사 다비장으로 법구를 이운, 엄수됐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도/와/주/세/요

수술 급한데 돈없이 발 '동동'

아내도 허리수술 … 생활 '막막'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앓고 있는 40대 불자 가장이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투병 중인 임순복(46 · 사진)씨는 다행히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으면 완쾌가 가능하지만, 3천만 원의 수술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올 2월 진단을 받은 임 씨는 그간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어 난데다가 최근 아내 김외자(45) 씨까지 허리수술을 받다보니, 생활 자제가 막막하다.

도움주실 분은 농협 계좌번호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면 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여름 시니어 아카데미' 개최



서울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욱)은 7월 28일부터 1일까지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어르신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3 여름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에서 정성욱 관장은 "가족간의 대화와 젊은 세대의 문화공유를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의탁 아동 · 청소년 학습지도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은 지난 7월부터 매주 수요일 지역 무의탁(조손세대) 아동 및 청소년 5가정을 대상으로 대학생 방문 학습지도를 벌이고 있다. 학습지도는 대학생 봉사자들이 무의탁 가정 안에서 성장하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 중부서 불교회, 정기법회



서울 중부경찰서 불교회는 지난 7월 29일 경찰서 6층 법당에서 회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승실장 충정사 주지 도윤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이날 법회에서 도윤 스님은 "이곳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평온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법문했다.

대전 중부서 불교회, 경승실 개원



대전 중부경찰서 불교회(회장 박종국)는 7월 27일 경승실 개원 및 석가모니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경승단 충남 지단장 장곡, 대전사암연합회 헌강, 경승실장 운봉 스님, 이종기 경찰서장, 유해동 충남청 불교회장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우, 비장애우 통합캠프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은 7월 31일부터 1일까지 장애우와 비장애우를 위한 통합캠프를 실시했다. 정신지체아동 프로그램인 꿈자람교실 참여아동 9명과 중학생, 고등학생 비장애우 23명이 함께 한 야외캠프는 풍선아트 배우기, 미니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3 학년도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 목	요 일	개 설 경 전	교 수	비 고 (개 설 과 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경전)	법화경(2)	박 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 · 팔리원전)	숫타니파타 2	전재성	숫타니파타, 아함경, 팔천송반야경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2시	능엄경 보경소(3)	송찬우	능엄경(1)(2)(3) (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4시	근본불교 (수행론 구차제정)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 금강경, 법화경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3년 8월 1일~ 2003년 9월 6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2003년 9월 8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3년 9월 4일(목) 오후 4시 ● 능엄경학과 : 2003년 9월 9일(화)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직장인을 위한 동산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8월
◆ 불교학과 : 200명(정규,주간,통신반)

● 불교학과 정규반 (토요일 오후 7시) : 강의
통신반
주간반 (목요일 오후 2시) : 강의

● 불교한문학과(정규반, 통신반) : 9월 4일(목) 오후 7시
● 불교미술학과(정규반) : 9월 3일(수) 오후 2시
● 사불수행학과(기본반) : 9월 16일(화) 오전10시
● 바라반학과(정규반) : 9월 5일(금) 오후 3시
● 팔리어학과(정규반) : 9월 5일(금) 오후 7시
● 다도학과(정규반) : 9월 9일(화) 오후 2시
● 우라춤학과(정규반) : 9월 3일(수) 오후 4시

본 대학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2003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양성도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백일, 돌,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장례의식(1) · · · · 일반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장례의식(2) · · · · 임종, 매장, 화장의식
◇ 송주 · · · · · · 장엄염불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의한 천도의식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1년) ● 연구반 30명(1년) ● 야간반 30명(1년)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3년 9월 6일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1:00 ~ 3:00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야간반)

※ 연구반은 정규 이수자에 한함

3. 개강일시 2003년 9월 6일(토) 오후 1시 (정규반)
3일(수) 오후 7시 (야간반)

4. 입 학 금 일십만원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6.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의식 교육도량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정토회는 12일부터 11월20일까지 세계어린이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마산지역 정토행자가 창원 용지공원에서 모금하고 있다.

필리핀·독일 법당 개원 국제포교 힘찬 시동

정토회

질병·기아고통 세계어린이돕기 거리모금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들 평화토론회 개최

정토회(대표 유수)가 필리핀과 독일에 법당을 개원하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국제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정토회는 필리핀 마닐라시에 지하1층 지상2층(건평 80여평) 규모로 필리핀 법당을 마련, 17일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매주 1회 필리핀 현지 불자 사택에서 법회를 진행해 온 정토회는 법당 개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호 및 포교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정안숙 정토회 해외사업부장은 "전체 인구의 92%가 가톨릭인 필리핀에서는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들도 불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며 "법당 개원으로 필리핀 불자들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정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베를린 정토법당(건평 40여평)도 오는 9월 28일 개원한다.

정토회 산하 한국JTS(이사장 법륜)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캠페인 및 거리모금을 전개한다.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북한, 인도,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100일 릴레이 캠페인 거리모금은 △부산:12~25일(14일간) △마산:26~9월 15일(21일간) △울산:9월 16일~9월 20일(5일간) △광주:9월 21일~9월 25일(5일간) △대구:9월 26일~10월 16일(21일간) △대전:10월 17일~10월 21일(5일간) △제천:10월 22일~10월 25일(4일간) △청주:10월 26일~10월 30일(5일간) △서울:10월 31일~11월 20일(21일간) 순으로 진행된다. 목표 금액은 1천만원.

한편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지난해 평화와 국제이해부문 수상자 법륜스님은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을 주제로 강연한다.

남동우 · 오유진 기자

스리랑카 수재민돕기 2억 모금

1차 마감…이달말 현지방문 전달



조계종이 주관하고 현대불교 등 교계 언론사 후원으로 7월 한달여 동안 펼쳐온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캠페인이 2억1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한 가운데 1차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불국사(주지 종상 · 사진)가 9천여만원을 쾌척했으며 쌍계사, 한마음선원 등의 사찰들이 동참했다. 스님과 불자들도 개인적으로 성금을 보내왔다.

조계종은 일부 교구본사가 성금을 보내올 예정이라고 밝히고, 성금모금이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말경 스리랑카를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한국종교공동체연합 15일 발족

법회봉행 평화결사대 발대식등 행사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인들이 종교의 벽을 넘어 대화를 통해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임이 결성된다.

15일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에서 열리는 한국종교공동체연합 출범식은 월주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 강원룡 목사(평화포럼 대표), 서영훈 총재(한국적십자사)의 축사에 이어 선언문 낭독, 평화결사대 서명 및 발대식, 평화의 비둘기 및 평화의 연 날리기 등으로 이뤄진다.

14~16일까지 남원 실상사에서 열리는 출범식에 앞서 14일에는 '아름다운 만남, 연대하는 종교'를 주제로 최일도 목사(다일공동체) 사회, 도법 스님 발제,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 · 유수 스님(정토회 대표) 논찬 등 첫 번째 강연회가 열린다.

15일에는 원경선 원장(풀무원공동체)과 함께하는 '평화의 세상' 꿈나누기, 박노해 시인(나눔문화)과 함께하는 '평온한 저녁 꿈나누기' 등으로 두 번째 강연회가 열린다. 세 번째 강연회는 같은 날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주제로 유수 스님 사회, 김진홍 목사 발제, 도법 스님 · 오수영 신부 · 최일도 목사 논찬 등으로 진행된다.

수련회에서는 특히 다일공동체가 주관하는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실상사에서 주관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 퀘이커공동체의 '생명살림을 위한 명상수련', 평화의 마을이 주관하는 '공동체 연대를 위한 기도' 등 종교별 기도회가 눈에 띈다.

남동우 기자

초산유원지·삼남골프장 건설 등 영축산 수행환경파괴 단호대처

조계종 환경특위등 20여단체 성명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자연환경과 수행환경 보호에 적극 나섰다.

영축총림 통도사 환경위원회(위원장 초우)는 5일 양산시청 앞에서 영축산 환경수호 대법회를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환경위원회 위원장 초우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집행위원장 산옹스님을 비롯 1천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영축산 파괴 및 수행환경 파괴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진행됐다.

초우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통도사 모든 대중은 최근 통도사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산유원지 개발, 삼남골프장 건설,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 등이 백지화 될 때까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환경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부산청년불자산악회 등 20 여 단체가 참여한 환경성명서를 통해 "양산시가 추진중인 29만평 초산유원지 위락시설 조성과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계획은 천년고찰이며 삼보사찰의 으뜸인 불지종찰 통도사 입구를 파헤쳐 자연 · 수행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 범불교도와 연대하여 계획사업의 백지화와 원상복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양산=천미희 기자

평화와 나눔의 한마당

광복절을 맞아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평화와 나눔의 한마당'이 15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돌아가신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소리판으로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함께하는 행사'에서 2003년 미스코리아 들의 장기자랑, 할머니 노래자랑과 외국인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동혁 기자



◇강화 전등사의 1920년대 모습.

'북한산도로 공론조사' 거부

조계종 공대위 "총리실서 결론 내야"

청와대가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불교계에서 수용불가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실무회의를 열고 노선재검토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관통노선을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또 현재까지 북한산 문제를 담당해 온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 · 조계종 총무원장)는 이사회에서 조계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범종단적인 참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100여년전 本寺모습 보세요"

10일부터 '조선사찰 31본산' 사진전

100여 년 전 본사(本寺)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강화 전등사(주지 계성)는 10일부터 '조선사찰 31본산' 사진 기획전을 시작했다. '31본산(本山)'이란 일본 총독부가 조선불교계를 통치하기 위해 1911년 사찰령을 공포하면서 실시한 제도로 지금의 '본사'와 비슷한 개념.

대조루 앞 야외 갤러리에서 상설 전시될 사진전에는 문화재전문 사진가 최응백(40)씨가 1년여 동안 작업한 31개 본산의 1920년대 원경 사진 31점이 출품됐다. 전등사 원경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리원판(원판 필름 앞뒤로 유리를 붙인 것)이고 나머지 30개 사찰은 각종 문헌이나 자료에서 1920년 사진을 찾아 실제 사진처럼 다시 작업한 것들이다. 지금은 직접 가 보기 힘든 안변 석왕사, 영변 보현사 등 북녘 사찰과 전란으로 원형을 상실한 고성 유점사, 전주의 위봉사 등 당시 본산들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권형진 기자

종립학교 교직원 수련회

사경·염주만들기등 행사

불교교육연합회(회장 홍기삼)는 7월 30일~8월 2일까지 3박 4일간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제38차 전국 불교종립학교 교직원 수련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불교종립학교 교사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입재식을 시작으로 조석 예불, 사경, 염주만들기, 불교사상 특강, 공립사 및 법주사 참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를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것. 의상조사의 화엄일승법계도를 1행 3배(1즐 7자를 쓰고 절 3번하기) 하며 직접 쓴 사경과 향나무로 직접 108 염주를 만들어 108배를 하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동국대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불교교육연합회 수석 부회장)의 불교사상 특강과 명성여고 박명순 교장(불교교육연합회 감사)의 '종립학교 건학 이념과 불자교사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 전국교법사단 김형중 단장(명성여고 교법사)의 '서산대사의 사상'을 주제로 한 특강도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청담중학교 정경호 선생님이 포교원장상을, 명성여고 양경숙 선생님이 불교교육연합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두식 기자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승려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통신80명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 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효장 사법대학 입학 및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8월 26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 본교 교학과 : TEL 02)511-2026~7 FAX 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삼 화 불 교 대**

남경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한의과대학)

2003년 본과생(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의과대학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사 범 대	3학년 편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 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중국 중의사 시험 2002년부터 개방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8월 26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 :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만해마을 준공·심포지엄 등 행사 다채

제5회 만해축전

김대중 前대통령 등 4명 만해대상 수상
문학·서예 전시 불교주제 학술대회 개최

만해 스님이 26세에 출가한 도량인 설악산 백담사. 이곳에서 8~10일까지 열린 '제5회 만해축전'은 올해 2천여평의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만해마을'에서 성황리에 회향됐다.

이번 행사는 8일 고은 · 김남조 · 신경림 · 황동규 · 이근배 · 정현종 등 원로 · 중진 문학가들을 비롯해 5백여 시인이 함께한 '시인학교 입교식'으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고은 만해축전 대회장은 "만해 스님이 남긴 문학과 종교, 민족정신의 존엄성은 국내외 여러지역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뿌리내릴 만큼 확고해 졌다"며 "그의 간절한 시혼과 치열했던 민족정신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느껴보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9일 열렸던 '만해마을 준공식'과 '제 7회 만해대상 시상식'이었다. 만해마을의 공식 개관을 알리는 준공식에는 조동룡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녹원 직지사 회주 스님, 이수성 前 국무총리 등의 축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법어가 있었다.


◇8일 개원한 만해마을 내의 만해사 서원보전에서 불상 점안식이 봉행됐다. 사진= 박재완 기자

이어 열린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만해대상은 김대중 前 대통령(평화부문),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학술부문), 소설가 조정래씨(문학부문), 이애주 서울대 교수(예술부문)가 각각 받았다.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문학 · 학술 · 서예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는데 이중 만해와 불교를 주제로 한 3개의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백담사=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만해의 정치 · 사회사상 〈심포지엄 I〉

△한용운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윤세원 인천전문대 교수)= 만해 스님의 핵심가치인 자유는 원천적으로 불교적 가치이고, 이 종교적 가치가 정치적 가치로 외연이 확장되는 논리구조의 버팀목은 바로 깨달음과 무아라는 연기론적 인간관이었다. 이런 논리구조는 다양한 그의 활동영역과 모든 실천운동을 통합해 주고 내적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는 축이었고, 그의 철저한 자주정신의 탯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진화론과 만해의 사회사상(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조선불교유신론>의 분석을 통해 사회진화론과 만해의 사회사상이 어떻게 연관돼 있는 지를 요약해 보았다. 첫째, 만해는 사회진화론을 민족독립과 불교개혁이라는 실천적 목적에서 수용했다. 둘째, 만해의 불교개혁활동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조선불교유신론>은 크게 두 가지 한계, 즉 불교사상과 사회진화론 사이의 사상적 모순 및 사회진화론적 불교유신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만해 한용운의 불교적 '노마돌로지'에 나타난 근대성과 탈근대성(장시기 동국대 교수)= '노마돌로지(nomadology)'는 '어디로 가든지 당신 마음대로' 즉 걸림없는 것을 뜻한다. 만해의 삶은 끊임없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과정 속에 있었다. 이런 만해의 삶과 문학, 불교사상을 우리의 삶과 지식의 인식론적 체계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전지구적인 탈근대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생태주의가 들뢰즈의 노마돌로지를 그들의 이론과 실천에 끌어들이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구적 근대로부터 벗어나 전 지구적 탈근대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민족정신에 대하여(전보삼 신구대 교수)= 만해의 민족주의 사상의 본질적인 기본 원리는 불교적 인식체계인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에서 출발해 자유를 인간본질의 기본적인 요소로 파악했으며, 인간은 또한 기본적으로 평등한 존재란 불교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동시대의 자강파 지식인들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심포지엄 II '조선불교유신론'의 21세기적 의미

△'조선불교유신론' 집필의 배경과 개혁방향(정광호 인하대 명예교수)= 땅에 떨어진 조선 말기불교의 위상과 인권을 회복시키고자 쓴 글이 바로 <유신론>이다. 내용은 왕생극락을 목표로 하는 가짜 염불을 시정할 것, 불교의 침체성을 포교의 부재에서 찾을 것, 미신적 요소가 많은 탱화를 일체 없앨것, 승려의 생활을 신도의 보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립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총 17장으로 구성돼 있다.

△'조선불교유신론'의 소회(塑繪) 폐지론과 선종의 정체성(서재영 동국대 강사)= 선종의 입장에서 볼때 수많은 소상을 모셔놓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을 불법의 대의로 생각하는 것은 왜곡된 불교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해는 소회를 폐지하는 대신 선(禪)의 사상적 내용을 회복해 선종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불교유신론'과 현대 한국불교(김광식 부천대 교수)= <유신론>이 현대 한국불교에게 주는 의미를 정리해봤다. 첫째, <유신론>에서 비판받았던 당시 불교 현실을 수용하기 이전에 그 당시 불교사를 복원,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유신론>의 정신은 재평가 돼야하며 현대 한국불교를 <유신론>과 같은 잣대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2, 제3의 <유신론>이 집필, 간행돼야 한다.

△근대계몽철학과 '조선불교유신론'(허도학 경남신문 논설위원)= 만해는 사회진화론을 중심으로 자유 · 진리 · 진취 · 파괴 등의 정신을 갖는 근대계몽철학의 제요소를 받아들여 불교유신론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며 동시에 전통적 호국불교사상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불교유신론'에서 근대적 세계관 읽기(이도흠 한양대 교수)= 만해는 중도(中道)의 사유를 하면서도 이분법적 사유를 하고, 승려로서 진여(眞如)의 불가사의함을 인정하면서도 진리의 확정성을 옹호하였으며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하나임을 알면서도 인간 중심의 사유를 전개한다.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 '禪수행' 특강

7일 전국비구니연합회관서 열린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주최 '선 수행 특강'에서는 비구니 선수행의 좌표를 가늠하기 위한 한국선의 역사와 더불어 조계종의 역사적 정통성이 강조됐다.

19일 전국비구니회관 개관 기념으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해제철임에도 불구하고 5000여 비구니 스님을 비롯해 6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만불전을 가득 채웠다.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회장 영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선방 비구니 수좌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예는 없었을 것"며 "이번 선 특강을 계기로 해제철에는 큰스님들의 사자후를 듣는 법회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한국禪 역사·조계종 정통성 조명



■ 구산선문과 조계종풍- 종범스님(중앙승가대학 총장)

조계종풍은 신라하대에 달마 선지(禪旨)를 수용하면서 형성됐다. 당나라에서 달마선을 체득하고 돌아온 신라고승들이 신라 말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선문을 개창했다. 이때의 선문을 구산선문이라한다. 구산선문의 개산조 중 제일먼저 당나라에 가 선법을 전수하고 귀국한 분은 도의 선사다. 도의선사 이후 많은 개산조들이 신라 화엄종풍의 기반 위에 선법을 선양해 신라 선찰의 사격은 화엄종의 그것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혜거국사, 대감국사, 보각국존 등의 비문에 남긴 기록들은 구산선문이 조계종으로 성립했음을 보여준다. 또 무염선사의 법어, 고려 말의 고승비문 등에 '조계종'이 명시돼 있어 조계 종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간화선이 불교에 끼친 영향- 혜국스님(제주도 남국선원 선원장)

여러 종단, 수행법이 공존하는 가운데 간화선은 한국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간화선에서 화두는 있는 그대로의 참 나를 보라는 참구(參究)이다. 참 나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보기가 아니라 '들어보다', '냄새 맡아 보다'라는 우리말처럼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다.

화두는 말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자체도 아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참선수행에는 3가지 마음준비인 대신심(大信心), 대의심(大疑心), 대분심(大憤心)을 강조해 왔다.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각자 화두를 놓아서는 안 되며, 한 생각 변하는 것으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선교 쌍수의 필요성- 명성스님(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선(禪)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며 마음은 선의 본질이다. 언어문자로 표현된 것이 교(敎)이고 언어문자 속에 있는 묘지(妙旨)는 곧 선이다. 그 묘지만 꿰뚫어 얻으면 어느 것이 선 아닌 것이 없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근본이념인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을 고루 닦는데 수행의 요점이 있다. 마음이 만유의 근본이므로 선이 불교의 근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묘한 소리를 지닌 종이라고 할지라도 울리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비구니들이 이 종을 울리기 위한 방망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처님 경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참선하는 수행풍토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



■ 한국 선의 역사- 해주스님(동국대학교 교수)

처음으로 신라에 선법을 전한 이들이 법랑스님과 신행스님이라면 최초로 남종선(조사선)을 전한 선사는 도의스님이다. 마조도일스님의 제자 서당지장스님으로부터 심인을 얻은 신라 말 도의스님은 가지산문을 형성한다. 이후 고려 초까지 구산선문이 개창됐고, 이는 고려 중 · 후기에 조계종으로도 불리고 있다. 고려중기의 보조지눌스님은 사굴산파로서 간화선을 도입하여 간화경절문을 시설하고 선교를 회통시켰다. 지눌을 이은 진각혜심은 간화선을 크게 진작시켰으며 비구니 선사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선교도총섭'이 된 휴정스님이 선의 입장에서 교를 회통했으며, 휴정스님과 그의 문하이기도 했던 부휴스님의 문파가 크게 번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리= 한상희 기자

문의 및 접수 www.bodh.net 055)331-6118 / 011)9557-8730 근본불교 Saṅgha 근본불교학교

제15기 부처님 정통 수행법 위빳싸나(참선) 이론과 실습 수강생 모집

행복은 좋은 느낌입니다.

행복은 좋은 느낌입니다. 행복한 느낌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상태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맑고 건강한 마음은 보다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해 줍니다. 피곤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오염된 마음을 맑고 아름답게 정화하며 지친 마음에 휴식을 취하며 지나온 삶의 흔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부처님 정통 수행법인 위빳싸나 또는 참선이라고 알려진 불교수행을 통하여 마음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인식대상에 구속되는 것만큼 만족지수는 낮아지고 고통은 증가합니다. 인식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만족지수는 높아지고 행복지수는 늘어납니다. 부처님은 자유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수행을 통하여 지나온 삶의 흔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한국불교 근본불교학교가 희망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 닦는 수행입니다. 마음 닦는 수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먼저 수행한 후 교학을 익히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이래 대승불교 · 선불교에까지 계승된 부처님 교육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승불교 · 선불교의 정통 계승자라는 한국불교가 선교학 · 후수행이라는 부파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먼저 깨침의 씨앗을 심고 난 뒤에 거름을 주고 김을 매는 것이 순서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김을 매고 밭을 가꾸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소승 · 대승 · 밀교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초월하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정통 수행법에 기초해서 실천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근본불교학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창의력이 나오고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효성이 나옵니다. 근본불교학교에서는 부처님이 계발한 수행의 이론과기법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수행자들이 당신을 부처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근본불교학교는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의 희망입니다.

사이버 수행교실 개설

근본불교학교는 사이버 수행교실을 개설합니다. 부처님 정통 수행법인 위빳싸나 · 참선을 배우고 싶지만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부처님 정통 수행법을 배우고, 수행을 점검받고, 궁금한 것은 물어가며, 자기 자신을 부처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강의내용, 지도법사, 교재 등 모든 내용은 15기 근본불교학교 수행교실과 동일합니다.

◆기 간 : 8월 31일 ~ 12월 7일(주 1회 40분 이론수업 80분 실습 및 지도)
◆입 학 식 : 8월 31일 오전 11시 다보선원 보리수 아래
◆대 상 : 부처님 정통 수행법인 위빳싸나 · 참선을 배우고 싶은 사람
불교를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
◆내 용 : 부처님 정통 수행법인 위빳싸나 · 참선의 이론과 실습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구조와 철학적 관점 / 인도불교사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本願) / 교재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습

장소 및 시간

장 소	요일 및 시간
서울 지혜선원 (교대역 5번출구)	월요일(오후반) 2시 ~ 4시 월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화요일(오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화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대구 지혜선원 (봉덕동)	목요일(오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목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부산 다보선원 (신어산)	금요일(오전반) 10시 30분 ~ 12시 30분 금요일(저녁반) 7시 30분 ~ 9시 30분 토요일(오후반) 4시 ~ 6시
사이버 지혜선원 (인터넷)	월요일, 금요일 수행이론과 실습 수요일 부처님의 철학적 관점

부처님 최초의 말씀

부처님은 깨달은 직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



모든 불교 경전의 원형
12연기로부터 시작해서 중도 4성제 8정도 3법인 5온 차제설법 불최상설법 선법문 등 모든 불교 개념과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룬 후 오도송을 하고 녹야원으로 가서 최초의 수행지도와 안거 그리고 전법선언과 수계법 등 불교 교단이 형성되는 중요한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된 모든 불교 경전의 원형인 초전법륜경.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이 한권의 경전에 모두 담아 놓고 이후 45년 동안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했다. 따라서 이 한권의 경전만 읽어도 팔만대장경에 등장하는 모든 경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경전이 모든 경전의 원형이기 때문이다.

이 경전은 부처님의 언어로 쓰인 빠-리 대장경 율장 첫 장 첫째 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붇ㄷ하빠-라(本願) 스님이 빠-리어를 한문 개념을 살려서 한글로 번역했다.

불교 수행의 이론과 실제

2000년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한국 스님에 의해서 쓰인 부처님 정통 수행법(위빳싸나 · 참선)의 이론과 실습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빳싸나와 참선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하나이다. 다른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다. 부처님도 위빳싸나 수행을 했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었고, 달마 혜능 마조 임제 보조 지공 나옹 무학 등 역대 조사스님들이 모두 부처님 정통 수행법을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단지 그 표현이 인도말로 위빠사나라 했고 중국말로 참선이라 했으며 했고 대혜는 화두선 또는 간화선이라고 이름붙였을 뿐이다.

이 한권의 책이며 좌선 행선 생활선 노동선하는 기본자세에서부터 수행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 수행의 시작에서 부처를 이룰 때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쓰여져 있어 수행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부처님으로부터 축적되고 수행자를 통해서 전해진 부처님 정통 수행법의 노하우들이 붇ㄷ하빠-라(本願)스님에 의해서 자세하게 쓰여졌다.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
제22차 1600년대회 현장



◇'한국불교의 희망, 우리가 키웁니다!' 지난 7월31일 춘천 강원대에서 열린 '대불련 1600년 대회'에서 대학생 불자들이 환하게 웃고있다.

입재식 2시간 전. 기다란 현수막이 춘천시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에 내걸렸다. 대형 플랭카드 '대불련 I♡U'도 중앙도서관 계단에 나붙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종찬)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한 '제22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 제주도는 기본, 중국 유학생에서 재미교포까지 대불련 18개 지부 200 여명이 이곳으로 날아들었다. 고민의 흔적도 역력했다. 인권 • 생명 • 대화 • 관용 • 나눔 등 이 시대 청년 불자의 화두들을 모든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녹였다. 대회 주제는 '대학생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 평화로운 세상.' 대회 준비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청년 불자들이 행복 • 평화 • 자비의 씨앗을 심기위해 이 같은 주제를 선정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1일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새벽예불을 올리고 있는 법우들.

I 대불련 ♡ U

왜 평화 · 행복인가
"우리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일까요? 대학생으로, 청년 불자로, 그 외의 일상적인 모습들 속에서…."

7월 31일 입재식. 대불련 박종찬(96학번 · 원광대 · 전기전자학과) 회장은 이 말부터 던졌다. 그리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불자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세상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프로그램들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별 토론 시간이 강화되고, 티베트 초펠 스님의 '일상에서의 수행'에 대한 특강, <야생초 편지>의 저자 황대권 씨와 대화 등 '특별한 만남'도 준비됐다. 또 '숲 해설가와 함께 떠나는 생태기행'은 인류최대의 화두가 된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1일 조별 분임 토론 시간.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평화와 행복의 정체,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주제는 다소 무거웠지만, 표정에는 진지함과 발랄함이 묻어났다.

"마음이 먼저 평화스러워야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교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유할 때, 비로소 평화와 행복의 꽃이 피워지지 않을까요?" <이화여대 이보라미(02학번 · 국문과)>

"그럼 평화와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스스로 책을 보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혼자의 선택에서도 찾고 느낄 수 있다고 봐요." <광주대 국성민(02학번 · 문헌정보학과)>

"글쎄?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다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큰 의미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이 아닐까요?" <울산대 류강희(96학번 · 생물학과)>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모였잖아요? 진정한 우리들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몸과 마음으로 부딪쳐보자고요." <'황금빛' 조원 다함께>

협동만으로 풀 수 있는 놀이
한반도 퍼즐 그림 맞추기 게임, 추억의 명랑운동회, 생태기행. 모든 프로그램들은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했다. 기존의 사고 틀을 깨야하는 것은 물론, 자기를 버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됐다.

1일 진행된 '꼬인 손 풀기 게임' 법우들의 지혜가 모아졌다. 이치를 알면 간단히 풀릴 문제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이다. 하지만 한 법우가 한 손을 치켜 올려 물코를 트자, 단번에 꼬인 손들이 풀려진다. 줄줄이 개선문을 통과하듯 손들이 풀리면서 금세 200여명이 커다란 원을 만들어낸다. 모두들 신기한 듯 환호성을 질러댄다.

다음은 조별 꼬리잡기 게임. 꽁무니에 달리 풍선이 터질라 안간힘을 쓴다. 잽싼 1조는 벌써 2조의 풍선을 터트리고 여유만만. 하지만 7 · 8조는 경합이다. 앞 법우와 간격도 좁히고, 여 법우들을 중간 줄로 옮겨놓는다. 다시 붙었다. 맨 끝 법우가 원심력에 이내 나가떨어져 땅바닥을 뒹군다. 넘어진 법우들에게 손도 내밀고 서로 먼지도 털어준다. 넘어지고 뒹굴지만, 웃음꽃이 피어난다. 법우애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평화와 행복은 어느새 법우애로 스며들었다.

전남대 김소련(03학번 · 사회학과) 법우는 "부대끼며 법우들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공통된 불교적 관심을 가진 법우들이 하나로 뭉치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는 모습에 청년 불자로서 자부심을 느꼈어요"라고 말하며 즐거워했다.

한국불교의 '희망' 우리가 키웁니다.
"대불련?"

"정토!"

법우들은 이렇게 묻고 대답했다. 대불련 서울지부장 강지혜(02학번 · 성신여대 · 경영학과) 법우는 대불련 삼대강령을 설명하며, 법우들은 '진리의 벗, 얼, 빛'이라고 말했다. 법우는 불타의 혜명을 이어나가는 진리의 여래이자, 불국토를 일구는 청년 붓다라는 것. 다부짐에서 청년 불자의 힘이 느껴진다.

"모인 법우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들은 한국불교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똘똘 뭉친 청년 불자들입니다. 그런 법우들이 다 모였으니, 우리는 여기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키웁니다."

한림대 김태연(02학번 · 중국학과) 법우도 "항상 말들 속에 휩싸여 자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말 속에서 흘려보내면서 '무거운 수행'만으로 불교를 고집했었죠. 조금은 쉽고, 가볍게 불교를 알게 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대불련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평화자비보살단'을 결성해 경기도 일대로 도보 답사를 떠난다. 이 기간 동안 임진각에서 탈북자와의 만남도 갖고, 8.15 축전도 참가한다. 몸으로 느끼면서 불교의 평화, 행복의 메시지를 찾아가 알리기 위해서다.

한국불교의 희망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는 법우들. 분명 이들에게서 한국불교의 희망이 있었다.

글=김철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대불련 40년 역사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지난 1963년 강남 봉은사에서 서울지역 17개 불교학생회와 불교연구회들이 주축이 되어 불교개혁, 불교자주화에 이념을 두고, 삼대강령을 모토로 창립됐다. 현재는 전국 170여개의 대학 불교학생회가 모여 23개의 지부를 형성, 1만여명의 불자대학생 전국연합단체로 성장했다.

대불련은 특히 청년불교 운동에 동력을 제공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기존 불교신행회에서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불련은 그간 1972년 제1차 화랑대회를 모태로, 1982년부터 한국불교 1600년 대회를 경주 동국대, 남산, 충남 혜전대, 수덕사, 전남 해남 미황사, 대흥사 등에서 열었다. 또 최근에는 본부 조직을 포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교팀(www.ikbuf.org)'을 새롭게 꾸려 인터넷 불교 동아리를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02)732-0239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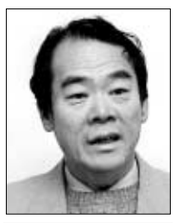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목어

병든 사회, 병든 개인



이 근 후
열린마음의원 원장

최근 한 조간신문의 사회면을 펼쳤더니 모두 9꼭지 가운데 4건이 실직이나 빚 아니면 실업과 관계있는 기사다. 실직충격 20대 자살, 트럭구입 빚 시달린 화물연대조합원 자살, 일가족 4명 채무비관 목숨 끊어….

원인을 따지면 모두 경제적인 이유들이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의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해치는 강도 등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과 강도, 살인 등의 소식이 들리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불교식대로 말하면 그것도 모두 우리들이 저질러둔 업보일진대 누구를 원망하랴.

하지만 이를 대하거나 다루는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 여론을 대표하는 신문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자살하는 개인의 문제, 강도짓 하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여 마무리 지으려는 속성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 자살은 분명히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 적응이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업보가 쌓인 내용을 보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책임감 없는 행동이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심할지 모르지만 사회구성원이란 점에서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제 명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오죽하면 죽음을 선택했으랴 하고 연민만 가지지 말고,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사회가 그로 하여금 죽음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요인에 대해서도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건강한 사회는 병든 개인조차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건강한 소수의 개인만으로 병든 사회를 고쳐나가기는 어렵다.

한국존슨, 사찰에 모기차단제 무료 제공

한국존슨은 전국 산사에 모기 차단제 '오프'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4일 홈페이지(www.koreajohnson.co.kr)를 통해 밝혔다. 한국존슨은 불가에서 살생을 금한다는 점에 착안, 죽이지 않고 모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한다. 15일까지 사찰 이름과 주소, 연락처, 산사에서 겪은 모기와의 경험담 등을 적어 이메일(euna@medicompr.co.kr)로 보내면 된다. 080)022-2701

장군죽비

서방의 '미륵' 라엘?

지난해 말 세계 최초의 복제 아기 탄생 논란을 몰고 왔던 인간복제 전문회사 '클로나이드'의 설립자인 라엘(56)이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하려다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부돼 돌아갔다. 인간복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입국이 거부된 라엘은 이번 내한 강연회에서 자신이 불교에서 예고된 서방의 '미륵'임을 선포할 예정이었다고.



불자 세상보기

김상득
전북대 윤리학 교수

동거, 함정 가득한 행복

새로운 문화 코드로 '고양이족'이 등장하였다. MBC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의 위력이다. 결혼이란 제도의 울타리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지붕 밑에 동거하는 남녀가 바로 고양이족이다. 사실 결혼이란 모험이다. 20~30년 간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남녀가 오직 '사랑'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혼율의 증가가 이를 잘 말해준다.

북유럽에서는 동거가 결혼만큼이나 흔할 정도로, 서구에서 동거란 새로운 형태의 대안 가족이다. '옥탑방 고양이'의 두 주인공 경민과 정은은 그냥 눈이 맞아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뒤 동거에 들어간다. 카메라폰 광고가 생각난다. "일단 찍고 본다. 사랑은 그 다음이다." 오늘날 동거는 카메라폰 사랑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일단 동거하고 본다. 결혼은 그 다음이다." '사랑→육체'의 공식은 이제 더 이상 동거 젊은이에게 고리타분하다. '육체→사랑'의 수순이 이들에게 정석이다. 사랑과 결혼의 정석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왜 청춘남녀들은 '고양이'를 키우고자 하는가? 이유 없는 반항인가? 그냥 또 하나의 사대주의로 유행에 불과한가? 결혼만큼 한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결혼은 불확실한 미래요, 쉽게 번복할 수 없는 사회 족쇄이다. 그래서 결혼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자 갖가지 묘안이 개발되었다. 그 중 하나가 궁합이다. 그러나 궁합은 궁합일 따름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애를 해도 도무지 사람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연애를 통한 사랑 고백, 그것 믿다가 큰 코 다친 남녀가 한 둘이 아니다. 그래서 팔자소관을 탓하면서 수많은 부부들이 '평생 원수'로 삶을 마감하곤 했다.

운명의 노예가 아닌 운명의 주인이고자 하는 현대인은 팔자를 걷어치우고 이혼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혼 역시 그 희생이 너무 크다. 청춘을 되돌릴 수도 없고,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역시 만만찮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싱글족으로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독신은 너무 외롭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결혼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답이 다름 아닌 동거가 아닌가? 사주팔자에 따른 미신적 궁합이나 관념적 사랑을 통한 정신적 궁합, 그 어느 것 하나 결혼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지 못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직접 경험밖에 없다. 동거는 바로 경험적 사랑을 통한 육체적 궁합의 추구이다. 이는 단순한 과학의 논리이다. '관찰과 실험'을 직접 해보고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실험'으로 돌은 쿨 하게 헤어지면 그만이다.

과연 동거란 결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행복을 보장해 줄까? 답은 '아니오'이다. 최근 영국 사회조사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동거 커플은 생활 형편과 정서가 불안정하여 바람도 더 피운다고 한다. 아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동거 커플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혼 부모의 아이들보다 공부도 못하고 비행에 빠질 가능성도 더 높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 동거 열 커플 중 여섯 쌍이 결혼하지만, 이 중 35%가 10년 안에 헤어지고 있다.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육체적 궁합 역시 미래를 보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혼 생활에는 법칙이 없다. 법칙이 없기 때문에 예측은 아예 불가능하다. 열길 물 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궁합, 연애, 동거. 그 어느 것도 결혼의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결혼은 다만 두 남녀가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살아있는 생명체일 따름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평화 좌담회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 지리산 1000일기도 900일 행사가 3~4일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와 노고단 일대에서 열렸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4개 종교인과 지역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의 둘째 날에는 진월스님(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의 사회로 도법스님과 김영호 교수(경북대), 현경 교수(미국 유니온신학대)가 평화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좌담회에서 오고간 내용을 정리했다. 〈정리=남동우 기자〉



◇4일 남원 실상사에서 진월스님의 사회로 도법스님과 김영호, 현경 교수가 평화를 주제로 좌담하고 있다.

다름을 인정하려는 마음 필요

▧도법스님(남원 실상사 주지)

추상 아닌 진리위한 삶 절실

지금까지 모성성이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세계석학들도 정치인들도 다 해온 이야기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 과연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가. 모성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가. 불교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돈이나 권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개인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다. 우리는 큰 것이 좋다, 작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이 것 또한 추상적인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불교가 진리다'고 하는 것도 추상적으로 다뤄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실지견이다. 이것에 근거해서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려는 노력을 한다. 부처님의 연기론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중심이 아니다. 세상은 이것이 중심이다, 이것이 근본이다,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 문제만 보더라도 언어는 모든 것을 고정시키거나 분리시킨다. 말로 개념화시키면 그것은 반드시 고정화된다. 진리는 보편성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진리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다.

▧김영호 교수(경북대)

서로 조화이룬 세계화 중요

헌팅턴은 21세기가 문명충돌의 시대라고 말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문명, 그리고 성장가능성에 대해 많은 벽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지방분권을 모색하고 탈중앙선언을 하는 대안들을 주목하고 있다. 지리산에서 모색하고 실천하고 있는 대안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산의 대안은 억지로 끌고 가는 대안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또한 지리산의 자연도 중요하지만 시장도 중요하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나는 큰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다. 자발적 청빈 안에는 근대를 이루지 못한 약점이 있다. 물론 나도 세계화가 미국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 시장이 문제가 되면 시장에 비시장적인 요인을 도입하는 것이 중용이다. 일본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일본밖에 모른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일본밖에 모르는 사람은 일본도 모른다고 답을 했다. 차이가 나는 것,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 다른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공해가 나쁘니까 공업화하지 말고 경제발전하지 말자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

▧현경 교수(미국 유니온신학대)

갈등넘어 상생과 소통으로 가야

지금 시대는 문명간의 대화,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갈라져 있었던 많은 집단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문명 충돌을 문명 대화로 바꾸는 것, 갈등을 넘어서 나아가 상생과 소통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최근 지구화의 특징은 독점적인 자본주의가 추상적인 금력 · 권력으로 지배하는 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큰 신은 돈이다. 그 신을 예배하는 것이 시장이다. 그 시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IMF나 WORLD BANK, GATT다. 이제 그것이 미국중심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부시와 주변에 있는 무기와 오일상, 몇몇 사람들의 집단이기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문명적 대안은 무엇일까. 여성적인 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그 여성성은 생물학적인 여성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용하려는 마음, 다름은 인정하려는 마음, 그것을 여성이란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무조건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중심의 지구화가 꿈꾸는 경제 정치 양태로 가면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땅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장경제는 지구를 죽일 수밖에 없다.

2003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 · 의식 · 범음(범패)를 계승 · 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3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 · 범패 · 요잡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 불자님 · 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점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구과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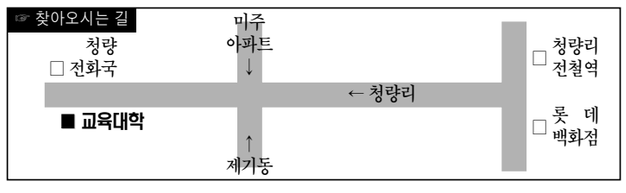
4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3年 7月 21日 ~ 8月 19日**
▶ **개 강 : 2003年 8月 20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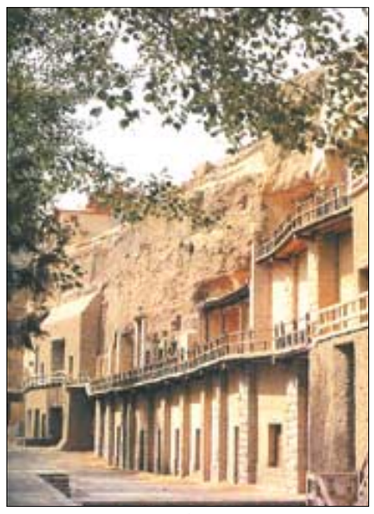


6 원서 교부 및 접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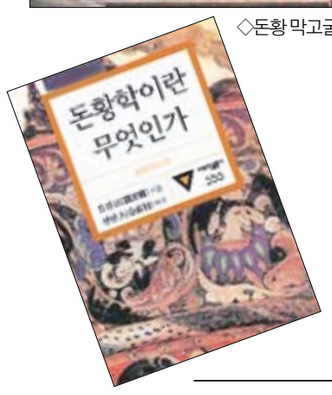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불교문화 寶庫 돈황 학문적 의미 탐색



◇돈황 막고굴 전경.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리우진 바오 지음 / 전인초 옮김

아카넷 / 3만원

"돈황은 중국에 있으나, 돈황학은 다른 나라에 있다." 1900년 중국 간쑤성(甘肅省) 서부 돈황(敦煌) 명사산(鳴沙山) 기슭을 파고 조성된 총길이 1.6km에 달하는 크고 작은 600여 개 불교석굴 중 제17호굴이 발견됐다. 장경동(藏經洞), 즉, '경전을 소장한 굴'이라는 명칭이 시사하듯 이곳에서는 약 5만권에 달하는 각종 경전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는 돈황석굴 수난사의 시작이었다.

실크로드~현대 시대별 유적 · 유물 중심 개괄
막고굴의 현란한 벽화 · 조각 · 불화의 정수 소개

1906년 5월 헝가리 태생 영국고고학자인 마크 스타인(1862~1943)이 경전 상당수를 실어가고 이듬해에는 프랑스 학자 폴 펠리오(1878~1945)가 다른 경전을 가져갔다. 펠리오가 가져간 문서 중에는 신라의 혜초(慧超, 704-787)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도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돈황석굴 주요 유물은 서구 유럽과 일본 등지로 반출되고 말았다.

연세대 중문학과 전인초 교수가 옮긴 <돈황학이란 무엇인가>(아카넷)는 외세의 침략에 돈황유물 대부분을 외국에 내줘야만 했던 중국 중화주의 정신의 뒤늦은 분발이 빚어낸 돈황학 개론서다.

저자인 중국 난징사범대학 리우진바오(劉進寶) 교수는 이 책에서 돈황학을 이렇게 정의한다. "돈황학이란 돈황유서, 돈황석굴예술, 돈황학 이론이 위주가 되고 돈황 역사지리까지 연구대상으로 삼는 한 부류의 학문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 저자는 철저히 중국사적인 관점에서 한(漢)나라가 이곳에 진출해 개척하기 시작한 이래 실크로드 중계 무역지로서의 번영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돈황의 역사를 시대별, 유적 · 유물 중심으로 개괄한다. 특히 돈황을 무대로 명멸한 다민족의 역사를 주로 막고굴(莫高窟)이라 일컫는 불교석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막고굴의 예술작품은 아름답고 현란한 벽화, 1천여개에 이르는 조각, 아름다운 옥으로 장식한 눈부신 도안, 불화, 자수 등 하나같이 중국 고대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막고굴을 중심으로 서천불동과 안서(安西)의 유림굴 등을 포괄하는 돈황석굴예술은 중국회화사, 미술사, 조각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나아가 실크로드 문화사와 불교문화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잠들기 전 5분 · 잠깬후 5분 활용



'행복을 부르는 법칙'

이구상 지음

한겨레신문사 / 9천원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창조자임을 믿을 필요가 없음을 안다. 나는 사랑 그 자체이며 행복의 근원이다."

10 여년에 걸쳐 의식개발 프로그램인 아봐타(산스크리트로 '깨달은 자'라는 뜻) 프로그램의 전문 안내자로 활동한 저자 이구상씨(사진)가 쓴 <행복을 부르는 법칙>(한겨레신문사) 가운데 '참나는 사랑임을 알기' 편에 나오는 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지을 행복의 보고(寶庫)가 우리의 의식 속에 있음을 깨닫고, 손수 설계도를 그리고 집을 지어 거기에 안주할 수 있게 해 주는 실천적 방법과 기술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행복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지어가고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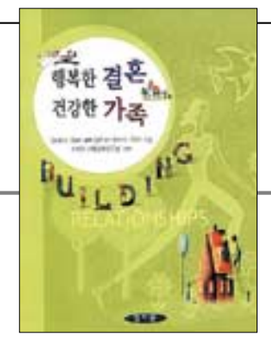
저자는 물질의 가장 최소 알갱이와 파동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양자물리학을 들어 "순수의식이 에너지인 얼(영혼)과 마음을 낳고, 물질인 몸을 낳는다"는 원리를 설명한다. 또 영화 <매트릭스>처럼 현실은 마음이 빚은 '창조 세계'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원치 않은 현실이 펼쳐지곤 하는 것일까. "온갖 잡생각과 부정적인 씨앗이 무의식 중에 뿌려져 부정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문에 저자는 "생각을 멈추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살필 수 있는 순수의식의 상태에서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아봐타'의 행복 짓는 38가지 연습

국내 아봐타 5천여 명의 10분의 1인 500여 명을 직접 지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잠들기 전 5분, 깨어나서 5분의 노력만으로도 행복을 부를 수 있는 38편의 연습을 제시하고 있다.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라. '나는 내 삶의 창조자다'라고 속삭여 보라. 이제 내가 바라고 갖고 싶은 것을 떠올려 보라. 지금 여기 그것이 창조되었음에 감사하라."

김재경 기자

전문가 서평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데이빗 H. 올슨 외 저 / 21세기 가족문화연 편역

양서원 / 1만2천원

"왜 이혼 늘어날까?"에 해답 제시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오래도록 고민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라는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혼인할 즈음에는 사랑에 빠져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랑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둘이 함께 하는 것'을 커다란 행복으로 느끼고, 매일 만나면서도 저녁에 헤어지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계속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게 되고 급기야 혼인을 결정하는 순간, 두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행복한 내일이 존재하리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혼인한 지 몇 년이 채 못 되어 이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은 하지 않았더라도 불만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한다. 왜, 기대한 것만큼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양서원)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30분도 안되어 끝나고 마는 혼례 준비에만 열중하여 몇 십 년을 함께 할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는 너무 소홀히 지나쳐 버린 것을 깨닫게 된다. 조금 더 일찍 이 책을 만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다.

혼례만 열중, 미래 가정생활 준비 소홀 지적

처음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접할 때는 어딘가 모르게 다소 뻔한(?) 교훈들로 가득하거나 고리타분한 윗 세대의 경험론, 아니면 대다수 번역서가 갖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겉도는 내용일 가능성을 점쳤었다. 그러나 직접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이내 사라지고 무리없이 공감하며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은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데이비드 올손(David Olson) 교수가 그의 동료인 존 디프레인(John Defrain), 그리고 그의 딸인 애미 올손(Amy Olson)과 함께 집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더욱 신뢰를 굳힐 수 있었다. 보통 가족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부모, 자녀간 세대차이로, 또는 높은 기대감 때문에 상호 갈등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올손 교수의 지명도와 그의 활동을 별도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저자들은 세대를 넘어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족이라는 단위조직과 그 안의 관계를 아버지와 딸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집필되었을 것이라는 점, 다른 한편으로 가족이라는 특성(아버지와 딸)에서 오는 주관적 견해는 동료인 드프레인 교수에 의해 여과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이 책의 구성은 제1장인 '현대의 결혼과 가족'에서 제13장 '자신의 가족 이해하기'에 이르기까지 각 장마다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 하에 8개의 명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진위를 살핀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것, 또는 당연히 그렇다고 믿어 온 신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들 명제 각각에 대한 진위를 설득력있게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명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취업준비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우리사회에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미있게 새겨 볼 만하다. 또한 "성공적인 결혼의 중요한 지표는 두 사람의 나이이다"라는 명제에서도 한국의 혼인문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 명제를 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최근에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는 현실로 인해 의문이 생길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안정적이 되며, 결혼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므로, 성공적인 결혼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했을 경우 결혼을 연기하는 편이 낫다"라고 단언한다.

이 책은 결혼준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커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강점은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건강한 가족생활에 의해 건전한 공동체 사회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느끼게 해 준다. 부부간 갈등에 대한 "한 편이 지면, 양쪽 모두 지는 것이다" 라는 명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이 어떤 것인가를 가족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물론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춘남녀들에게 결혼전 필독서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영호 / 성균관대 생활과학부 겸임교수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은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데이비드 올손 교수가 그의 동료인 존 디프레인, 그리고 그의 딸인 애미 올손과 함께 집필한 정곡을 찌르는 결혼 안내서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2003 학년도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3기생을 모집함

불교학과	근본불교 · 대승불교 · 화엄사상 · 인도불교 · 중국불교 · 한국불교 · 불교개론 · 불교미술 · 선종사상 · 밀교 · 포교방법론 등 18과목
한문학과	한문법(1) · 한문법(2) · 장자 · 주역 · 논어 · 금강경 · 법화경 · 화엄경 · 선가귀감
불교미술학과	① 불화1(단청), ② 선화(달마도) ③ 불화 2, ④ 불화 3(이론과 실기)
팔리어학과	① 팔리어문법 ② 팔리어 강독
사불수행학과	불, 보살 상호를 관법에 의해 사불하는 수행과정
바라학과	① 천수바라, 나비춤등
다도학과	① 한국다도, 중국다도, 헌다례(1), 헌다례(2)등
우리춤학과	① 우리춤기본, 승무기본, 작법, 북, 장단

다도학과 (9월 9일 오후 2시 개강)

교과목	· 한국차문화사(중국, 일본, 유럽) · 제다학(1), (2), (3) · 다구학 · 차와선 · 차도문헌 · 차식물학 · 차성분학
지도교수	이귀례 교장선생님 / 선혜스님 등

바라학과 (9월 5일 오후 3시 개강)

교과목	① 천수바라 ② 나비춤등 전통바라
지도교수	지도스님

부설 팔리어 강좌 (9월 5일 오후 7시 개강)

교과목	팔리어 문법, 팔리어 강독
지도교수	최종남 교수(승가대)

사불수행학과 (9월 16일 오전 10시30분)

불교의 여러수행법(염불, 간경, 참선, 참회기도)중 사불수행을 선택하여 불교전통수행법을 다시 살리고자 강좌를 개설합니다. 많은 불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교과목	관법의 자세, 보살초, 신중초, 영산회상도, 사경, 변상도
기간	· 기본 : 4개월(16회) · 연구과정 : 기본과정이수
지도교수	법인스님(사불수행 지도법사)

불교한문학과 (9월 4일 오후 7시)

교과목	· 한문법(1), 한문법(2) · 신심명, 장자, 주역, 천자문 · 선가귀감,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교수진	김형중교법사, 심재동교수(동국대), 한정섭법사

불교미술학과 (9월 3일 오후 2시)

교과목	초잡기, 배접, 전통색조, 불화초, 보살초, 신중초 단청기본, 단청응용 등
지도교수	김익홍교수(전 동국대)

우리춤학과 (9월 3일 오후 4시)

지도교수	이애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교과목	① 우리춤 기본 ② 승무 기본 ③ 작법 기본 ④ 북과 장단기본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金烏불상 "천년의 풍경"



기존풍경에서는 소리가 맑고 깨끗하지 못하며
내구성이 각 연결고리가 취약하여 수명이 짧고
일반주물에서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오불상은!!

금오 불상 풍경의 특징

자체 합금하여 재질의 순도가 높아 소리가 맑고 맥놀이까지 가능합니다.

각 연결부위를 스텐 및 특수주물로 제작하여 물고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어 반 영구적 입니다.

용조각의 최고 권위자가 조각하여 섬세하고 기품있는 외형은 풍경중에 백미이며 금오불상에서만 유일하게 제작합니다.

판매금액은 百萬원이나 기존 풍경 반납시 1set에 800,000원에 판매합니다.
(반납된 풍경은 군법당 및 소규모 사찰에 무료 시주됩니다.)

풍경제원
▶ 높이 : 22cm (용두 4cm)
▶ 넓이 : 14.7cm
▶ 무게 : 2.6kg
▶ 재질 : 동 98%, 실리콘 1.8%, 기타 0.2%

전화번호 032)672-3136, 011-412-3136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701-01-187922 예금주 이성건

▧ 차 고전 강독, 다도강좌 현장

다도삼매, 더위도 못 말려



◇ '종강일' 이 없는 차 고전강좌 수강생들이 유건집씨의 <대관다론> 강의를 듣고있다.

'피서(避暑)'. 더위를 이기는 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움의 열기로 더위마저 잊고 사는 차인(茶人)들이 있다. 차 예절과 다도의 정신을 알고 차를 마실 때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차 고전 강좌가 열리는 서울 법연사와 다도예절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부천 석왕사 현장을 각각 찾아가봤다.

■ 부천 석왕사 다도예절 강좌

초심자들의 茶道 입문기

"차는 색과 향과 맛을 느끼며 세 번에 나누어 마십니다."

7일 오전 10시, 다도예절강좌가 열리고 있는 부천 석왕사 전통찻집 다인. 습도가 높아 땀이 저절로 흐르는 바깥과는 달리 찻집 안은 서늘한 기운마저 감돈다. 다구를 앞에 놓고 나란히 앉은 5명의 수강생들은 다도 사범 오숙 씨의 설명에 따라 차를 따르고 조용히 차를 음미한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의 수강생은 모두 8명. 주부들인 탓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차를 제대로 배워보자' 는 마음으로 함께 수강신청을 했다. 덕분에 요즘 수강생들은 '다도삼매경' 에 빠져 있는 중이다.

"차를 마신지는 10년 정도 됐지만 정식으로 다도를 배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김한순 씨는 "스님이나 도반들이 차를 권할 때 어떻게 마셔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강의를 듣고 차 마시는 법을 배운 것은 물론 차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수강생 박경애 씨는 "차를 마실 때는 한 순간 한 순간 집중해야 하므로 번뇌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며 직접 낸 차를 한 잔 권한다. 석왕사에서 처음으로 다도강좌를 연 사범 오숙 씨는 "여름에는 덥고 목마르다고 빙과류나 탄산음료 등 찬 음식에 손이 가기 쉬운데, 뜨거운 차를 마심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고 식중독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도를 배워서 좋은 점' 을 묻는 질문에 수강생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다구를 꺼내 차를 우리고, 가족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는 점을 든다. 그만큼 차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지런히 놓여진 다구 위에 다포를 덮고 자리를 정리하는 수강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차 마시는 과정이 수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간다' 는 이들의 말에서 차인의 여유가 느껴진다.

■ 서울 법연사 차 고전강좌

茶書 읽고 차인 '품격' 갖추기

"차를 심어서 생산하는 땅은 반드시 햇볕이 드는 언덕이어야 하며, 차밭은 반드시 그늘져야 한다. 대개 돌의 성질이 차가워 그 이파리가 억눌려 메마르기 때문에 맛이 거칠고 얕게 된다."(<대관다론> '지산' 중)

중국 북송의 휘종 황제가 쓴 <대관다론(大觀茶論)>을 읽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려퍼지는 곳은 서울 법연사 2층 서울불교전문강당. 3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를 맡은 수필가이자 차고전연구가인 유건집 씨를 따라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읽으며 뜻을 새기고 있다.

서울 종로구 화동의 전통찻집 다담선을 운영하는 김미려 씨(한국차인연합회 다예랑 지회장)의 제의로 시작된 이 강좌는 처음 10여 명의 지인들로 시작해 지금은 30여 명으로 수강생이 늘었다. 수강생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강좌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강의를 듣는 이들 대부분이 다른 단체나 문화센터, 사찰 등에서 다도 강좌를 하고 있는 사범이거나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에서 다도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다. 때문에 강좌는 단순한 '주입식' 이 아니라 개방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곤 한다.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은 '개강일' 은 있지만 '종강일' 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다부> 강독에 이어 지금의 <대관다론>, 이후 <동다송>과 <다신전>, <다경> 등 현존하는 다서들을 3개월씩 강독하는 일정이 이어진다. '체력이 다할 때까지 강좌를 열겠다' 는 것이 강의를 하는 이나 듣는 이 공통의 서원이기 때문이다.

경희대 대학원에서 생활예절다도를 전공하고 있는 장정화 씨는 "대학원에서도 차 고전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곳에서 한자는 물론 차에 관련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매주 수요일 남양주 수종사에서 다도를 가르치고 있는 윤부용 씨는 "단순히 원전 강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고전들을 함께 찾아 읽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며 "오는 9월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에서 열리는 <다부> 강좌에는 차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다구를 다루는 법부터 차를 마시는 자세까지 세심하게 배우고 있는 부천 석왕사 다도예절강좌 수강생들.

사진=고영배 기자

우리차



보성녹차

보성제다가 선보이는 '보성녹차' 는 이른 봄 따스한 햇빛을 머금고 자라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 맛이 달고 부드럽다. 또 손으로 비비고 덖는 과정을 거쳐 증제차의 산뜻한 맛과 덖음차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룬다. 100g, 4만원.

(061)853-4116

녹차, 카드뮴 성분 골대사 장애에 효과

대구 가톨릭대 이순재 교수팀 논문 발표

최근 녹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의 한 대학에서 녹차의 유효한 성분이 카드뮴 중독에 의한 골(骨)대사 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증명했다.

대구 가톨릭대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이순재 교수팀은 최근 발간된 과학잡지 <라이프 사이언스> 8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Catechin) 성분이 카드뮴 축적으로 인한 골대사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순재 교수팀은 인위적으로 사육한 '카드뮴 중독 쥐' 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카테킨을 넣지 않은 사료와, 0.25%와 0.5%의 카테킨(질량 기준)을 섞은 먹이를 주면서 20주 동안 '정상그룹' 과 비교 관찰했다. 그 결과 카테킨을 0.25%, 0.5% 투여한 그룹의 골밀도가 각각 132%, 133% 올라가 정상그룹(133%)과 거의 같았으며 골무기질 함량도 5.4배와 5.5배로 증가해 카드뮴으로 인한 장애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뮴 중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녹차 100g당 10~15g이 들어 있다.

이순재 교수는 "카드뮴은 흡연이나 오염된 대기, 식품 등을 통해 체내에 축적돼 칼슘의 체내흡수를 막아 골무기질의 손실 등을 가져와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실험을 통해 카테킨 성분이 이 같은 골대사 장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녹차 성분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녹차음료 등 가공식품들도 잇달아 개발되고 있다.

대구=박원구기자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1997년 흥채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 동방 · 바지 : 220,000 /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론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 동방 · 바지 : 180,000 /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푸사 특 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 동방 · 바지 : 160,000 /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 썸머쿨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망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하철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불교인을 위한 기독교 바로알기』
회암편저
초판 1쇄 완전 매진
이제껏 이렇듯 통렬하게 기독교의 오류를 지적한 책은 없었다.
이 책은 무조건적인 신앙의 소망과 지혜로운 이성의 경계를 밝혀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끼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무익한 투쟁이 그치고 원한이 해소되며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 서문 중에서-
기독교의 독선적 교리가 인류에게 끼친 해악과 그 결과에 대해 가장 솔직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책.
기독교의 신 여호와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당신들이 신의 말씀이라고 거룩하게 여기는 성경을 보라! 그 속에 가득한 인간에 대한 잔인함과 불신, 논리의 모순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끝없는 죄악의 반복일 뿐이다!
본서는 가까운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시거나 전화와 우편주문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가 12,000원
◆ 전화 및 우편주문시 3권 이상을 구입하시는 경우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 불사용 및 단체 구입시 구입권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격을 할인해 드립니다.
◆ 구입문의 : 도서출판 부루나 (032) 577-5123
◆ 담 당 자 : 018-311-9497
◆ 입금계좌 : 조흥은행 968-01-009521 김석남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춘추복

●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동방,바지 ₩160,000

● 두루막 ₩140,000

● ₩60,000
조끼 몸배
◆ 모직(올 50%) ◆ 광목 ◆ 순면(무늬있는 먹물)
하복
적삼 · 조끼 · 바지

● 구김이 없고 세탁이 용이한 재질 A. ₩130,000 B. ₩160,000

● 마 ₩160,000

● 모직 ₩160,000
셔츠

라운드형 / 차이나형 / 칠부
● ₩20,000 ~ 35,000원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32>

구족 우바이의 법문

보살의 업 닦아 위덕, 광명 갖춰
중생의 바램 응해 이타행 실현

자재주 동자로부터 남쪽의 해주(海住)라고 하는 큰 성(城)에 있는 구족(具足) 우바이를 찾아가서 보살도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선재 동자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집에 들어가 보니 그 우바이가 보배자리에 앉아 있는데, 젊은 나이에 살결이 아름답고 단정하였다. 소복단장에 머리카락이 길게 드리웠고, 몸에는 보배 영락과 같은 장신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 몸의 색깔과 모습에는 위덕과 광명이 있어서 불보살을 제외하고는 미칠 이가 없었다. 집안에는 보살의 업으로써 이루어진 훌륭한 자리(座)가 깔려져 있었는데 의복이나 음식이나 살림살이 도구는 없고, 앞에는 조그만 그릇 하나만 놓여 있었다.

또 일만이나 되는 동녀가 주위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이 참으로 빼어났다. 그 동녀들의 몸에서는 묘한 향기가 나서 모든 곳에 풍기니 중생들이 이 향기를 맡기만 하면 물러가지 아니하여 성내는 마음도 없고 원수가 맺히지도 않으며, 간탐하는 마음 · 아첨하는 마음 · 구부러진 마음 ·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 성내는 마음 · 못난이 마음 · 교만한 마음이 없고, 평등한 마음을 내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 이익되게 하는 마음을 내며, 계율을 지니는 마음에 머물러 탐하는 마음이 없으매, 그 소리를 들은 이는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는 이는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때 선재동자는 구족 우바이에게 예배드리고 나서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었다. 이에 구족 우바이가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다하지 않는 복덕장(福德藏) 해탈문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작은 그릇에서도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에 따라서 갖가지 맛좋은 음식을 내어 모두 배부르게 하나니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라도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모두 배부르게 하여도 그 음식은 끝나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느니라. 음식이 그러한 것처럼 갖가지 생활용품도 또한 그러하다.

선남자여, 시방세계의 모든 성문과 연각이 나의 음식을 먹으면 모두 성문이나 벽지불과를 얻으며, 일생보처(一生補處) 보살이 먹게 되면 모두 마군을 항복받고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선남자여, 나의 일만이나 되는 동녀를 비롯한 백만 아승지 권속들이 모두 나와 더불어 갖가지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의 작용이 같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의 대중이 모인 도량에 나아감이 같고,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함이 같고, 모든 법문을 나타내어 보임이 같고, 보살의 청정한 행에 머무름이 같다.

선남자여, 이 일만 동녀들은 이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 가지고 한 찰나 동안에 시방에 두루 가서 모든 보살 성문 독각들에게 공양하며 내지 여러 아귀들까지 배를 채우게 한다. 이 일만 동녀들은 나의 이 그릇을 가지고 천상에 가면 하늘들을 만족하게 먹이고, 인간에 가면 사람들을 만족하게 먹인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다하지 않는 복덕장 해탈문만을 알 뿐이다."

이와 같은 구족 우바이의 법문은 광대무변한 보살의 이타행에 대해 설한 것이다. 우선 그녀가 머무르고 있는 성의 명칭이 해주(海住)인 것은 온갖 덕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마치 바다와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명칭이 구족(具足)인 것도 십(十) 바라밀과 사섭법과 사무량심을 구족하여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소 아무런 장신구도 하지 않은 채 소복단장을 하고 있다. 집안에는 의복이나 음식 가재도구도 없고, 다만 조그마한 그릇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생활 모습에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세우려 하지 않는 그녀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녀는 보살의 업을 닦아서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에 위덕(威德)과 광명을 갖추고 있다. 그녀의 훌륭한 덕은 거느리고 있는 동녀들에까지 영향을 끼쳐 그들의 몸에서 묘한 향기까지 나도록 하고 있다.

조그만 그릇 하나에서 시방세계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낼 수가 있고, 그와 같이 갖가지 생활용품도 낼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진여(眞如) 본각(本覺)의 마음에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구하는 일체의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낼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다. 보살은 중생들의 바람과 구함에 응해서, 이들을 위한 광대한 원(願)을 일으켜 십바라밀 · 사섭법 · 사무량심 등과 같은 대승의 보살행을 무량하게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보살행은 반드시 구족 우바이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한 찰나 동안에 시방세계에 두루 가서 보살 · 성문 · 독각들에게 공양하며, 내지 여러 아귀들까지 배를 채우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⑤



직지인심-4

경전 공부를 하면 깨달아 성불하는 데 방해가 된다? 경전이라는 것이, 곧이곧대로 믿자면, 부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인데 부처님이 중생에게 일러준 말씀이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될 것이다. 나 자신과 세상의 진상을 깨달아 해탈하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그토록 입 아프게 간절한 말씀을 많이 하신 취지겠지, 설마 해탈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한 것이겠느냐는 말이다.

선종에서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고 외치면서 경전 공부는 곧바로 질러들어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하는 짓이라고 비판했을 때에도, 경전 공부 그 자체가 반드시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고 단언하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선사들이 경전 그 자체, 또는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를 문제삼았을 리는 없다. 경전에 대한 태도, 경전 공부를 하는 태도에 시비를 걸었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태도를 문제삼는 것일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전 공부가 불교 신행의 모두라고, 또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 자기에게 재미있는 일, 자기가 잘 하는 일, 자기의 전문분야에 매달리다 보면, 그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생기게 마련인 것이 사람의 속성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갖가지 전공분야가 있고 그에 종사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대개는 각자 자기 학과, 나아가 자기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학문의 총화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말로야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하다고 점잖게 인정하지만, 적어도 내심으로는,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태도에 젖게 된다.

경전 풀이 전문가들에게도 그런 증상이 흔히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불교 신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깨달아 성불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젖혀두고 경전 풀이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비판하였다. 경전 풀이 전문가들이라고 깨달아 성불하는 일이 불교의 요체임을 부인할 리 없겠고, 이를 위한 수행은 쓸모 없다고 주장할 리 없다. 그러나 선사들이 보기에 그들은 본말을 전도하여 말(末)에 집착하고 본(本)을 잊은 듯했다. 뿌리를 찾으려면 곧장 뿌리를 캐낼 일이지, 뿌리를 찾는다면서 이파리와 가지만 더듬고 있음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다.

교학보다 스스로 마음 깨치는 일이 중요

그리고 선사들이 보기에 불교 신행의 뿌리란 바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깨치는 일이 중요하지, 까마득한 옛날에 입적하시어 지금은 세상에 없는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옛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철저히 다 공부하고 나서 마음 깨치는 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셈이어서 엉뚱한 곳에 도달한다고 질책한다. 선사들이 흔히 쓴 표현을 빌리자면, "동쪽으로 간다면서 서쪽으로 가는 셈"이다.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느냐, 돌아가더라도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선사들은 이에 대해 더욱 강한 어조로 오금을 박았다. 처음에는 털끝만큼의 차이라도 나중에는 아예 하늘과 땅 사이만큼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호리유차 천지현격(毫釐有差 天地懸隔)이라는 승찬(僧璨)스님의 신심명(信心銘)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1도의 각도는 원점에 가까운 지점에서는 그야말로 털끝이 들어갈까 말까하지만, 수십 킬로미터까지 뻗어 가면 양변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경전 공부에 매달리는 것이 그토록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다음 회 글에서 풀이해보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8>

생명의 여백(餘白) 논리

생물은 감각기관을 지니고 대상을 인식하여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 자신이 인식하여 파악하지 않은 상황이나 상대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 보호를 위해 두려움을 지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조심한다. 호랑이도 처음 보는 작은 동물에 대해서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장면을 TV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생명체의 이러한 인식과정은 사물을 원인과 결과로서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을 완성함으로서 그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여 편안함을 얻게 된다. 이러한 하나의 관점을 그 시대의 패러다임(paradigm)이라 부른다.

지금의 현대 사회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소위 합리적 이성(理性)이라는 것을 큰 틀(paradigm)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인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에게 이 세상은 명쾌하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사 쓰여진 성경이나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부처님의 말은 결코 논리적이지 않다. 경전에 얼마나 많은 비논리적인 역설(逆說)의 말씀이나 표현이 있는가. 성경에도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화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말도 있고 불경에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다'는 등, 일반적인 논리로 보았을 때 말도 안되는 황당한 소리를 알쏭달쏭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은 갈팡질팡한 소리나 하는 미치광이인가? 그것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사실 · 언어의 논리가 아닌 진리의 논리(이면 · 여백의 논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엄밀하게 말해서 경전의 이야기는 전혀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논리체계가 다른 것이다.

알고 보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 매우 모순 되는 경전의 여러 표현과 모든 이야기는 놀랍게도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이면(裏面)의 논리를 알아차릴 때 길고 긴 팔만사천 법문과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역설과 모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정밀하게 단 한 가지만을 가리키기 위해 그토록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떨어지는 햇살을 잡아라!)

경전, 언어 아닌 진리 표현의 논리
존재의 참모습 지혜로만 구분 가능

그렇기에 옛 선사는 '모르고 말하면 옳은 것도 그릇된 것이요, 알고 말하면 그릇된 것도 옳은 것이다'라고 짤막하고도 간결하게 말씀하셨다.

생물의 감각기관을 통해 바라보는 사물은 지식(知識)으로 알게 되지만, 육근(六根)에 머무르지 않는 존재의 참 모습은 여백(餘白)을 아는 지혜(智慧)로만 알 수 있다. 지식은 전해 줄 수 있지만 지혜는 전해 줄 수도 없다. 스스로 얻으려 하지 않고는 부처도 어찌 해 줄 수 없고 예수도 오직 문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니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다 같이 육근을 지닌 생물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받아 길들여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어찌 한 시각이라도 방일할 수 있으랴. 다만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여백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안보이게 되기에.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화제의 신간 周 易 의 神 秘
육효학 핵심비결
송월스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전국 서점 판매중!
神과 靈이 통하는 학문. 육효학을 알면 운명이 바뀐다

송월 스님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동양철학은 동방문화의 기틀이요, 사회선도의 지표이다.
육효학은 음과 양 二元의 원리 즉 주역을 본바탕으로 사상팔괘,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를 응용하여 우리생활에 직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육효학이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점서(占書)로써는 가장 적중률이 높은 학문이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이는 물론이요,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이는 보배 중 보배가 될 것이며 허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15,000원(大)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 / 양장본 김용식 저 / 정가 30,000원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氣力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云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흉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점생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백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왕,전호일 공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송월스님 지음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 / 양장본 / 申坪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哲學博士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哲學博士 /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이상욱 지음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 / 양장본 진상백 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윤중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김성진 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 정현우저 / 정가 17,000원
17. 명가풍가의 가상학 비결
신국판 / 김용식 저 / 정가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장본 / 문길여 著 / 정가 25,000원
19.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 / 양장본 / 박봉주 著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靈,體) 영,체 이탈법 스님이직접특별지도

영, 체이탈이란?
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잠재능력을 자극하여 발달된 능력으로 영과체를 분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영적인 문제와 운명적인 것을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나, 영, 과체가 분리되면 유체든 무체든 볼 수 도 있고 들을 수 도 있다.
(전생, 현생, 미래도 볼 수 가있다.)
다, 전혀 무관한, 타인을 통하여 자신이나, 또다른 타인의 몸에 빙의된 영가와 선망조상영가를 볼 수도 있으며 영가와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영가를 다스릴 수 있다.
라, 스님들께서는 영가천도 및 구병시식 등 산소, 집터 및 기타 운명에 관한 어떤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 참가조건 : 출가스님만 가능함.(최고의 포교법)
바, 수업기간 : 단기간 집중반 복식교육으로 단기일내 신령한 영체이탈법 전문가로 변신 가능함.
● 일반인도 문의가능함.
● 수고비는 직접 면담으로 결정함.
● 스님직통 016-806-6378 / 연 락 처 02-2637-6636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 1동 597-77(지방분도가능함)
觀 法 寺
韓國靈, 體移脫佛敎儀式硏究院
住持, 院長 道 先 合掌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드



재가계와 출가계

우리들이 신행하고 있는 불교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불교 역사만큼이나 장구한 세월동안 시공을 달리하며 발전해 온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대소승 경전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모든 불교신도들이 불교학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구한 세월에 걸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성립된 대소승의 경전을 하나의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종파 나름대로 교판론의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각 종파 나름의 주의와 주장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상적인 발전으로 볼 수 있지만, 각 종파에 맞는 신앙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순서 없이 뒤섞여 들어온 대소승 경전을 일관되게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웠으며, 그런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교판론인 것이다.

계율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재가자들은 모두 3귀계와 5계를 수지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사불교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의 불교신도는 될 수 없다. 출가자 역시 4바라이법을 중심으로 250계가 시설되어 있다. 4바라이법은 간음, 살생, 도둑질, 거짓말의 네 가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율장에 의하면 4바라이법을 어긴 승려는 교단에서 추방된다. 그들이 다시 교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다. 이것은 4바라이법이 얼마나 중시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불교에서 교단 추방 보다 무거운 벌은 없기 때문이다. 4바라이법 이외의 사항은 대중 앞에서 참회하는 것으로 용서가 되었다. 만일 어느 승려가 대중들에게 참회했음에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4바라이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출가자는 여하튼 음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과거 부처님 당시에 결혼한 뒤 출가한 사문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이전의 아내와 동침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부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행해선 안 된다고 설파한다. 또 어떤 출가자는 원숭이와 성교를 한다. 그는 사람과 음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율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함변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수간도 음행으로 간주한다.

재가자들이 지키는 5계와 출가자들이 지켜야 하는 4바라이법은 형태상 동일하다. 5계 중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만 4바라이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재가자는 세속 생활을 하므로 부부간의 음행은 허용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부 이외의 음행을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삿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 것이다. 그렇지만 출가자는 어떠한 상황이나 이유로도 음행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재가자와 출가자의 차이인 것이다. 또한 거짓말을 해선 안 되는 조항도 출가자와 재가자의 차이가 없다. 다만 깨닫지 않았으면서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에 속하는데 재가자보다는 주로 출가자에 해당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전에 의하면 출가자들이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과장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 허풍치는 것은 거짓말에 속하지 않는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한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별은 성교의 유무와 깨달음에 대한 거짓말에 달려 있다. 특히 성행위 문제로 아무리 학식이 높고, 인품이 고매해도 결혼한 사람은 결코 출가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한국불교 현실에서 수많은 재가교단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만일 그들이 출가자로서의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계율에 대한 문제부터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은 포교사, 전법사란 칭호는 어울릴지 몰라도 승려란 호칭은 맞지 않는다. 불교운동가로서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일이다. 폄하될 일은 더욱 아니다. 그렇지만 계율의 문제가 등장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이념에 따르면 출가와 재가를 구별하는 것이 하나의 집착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런 외형상의 문제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궁행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보살이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승려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 대승불교의 이념에선 출 · 재가를 하나의 사회적 역할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치의 우열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대승불교란 새로운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5계와 4바리이법 계율에 일부차이
'대승' 선 출·재가 구별을 집착 간주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참고 살아가야 하는 사바세계에서 혜초스님은 늘 환한 미소로 신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다.

"함께 잘 살려는 노력 올바른 신행의 자세"



지상 백고좌

혜 초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불법은 법 중에 가장 위대해서(摩訶大法王)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無短亦無長)
본래 근본은 희지도 검지도 않으나(本來非皂白)
곳에 따라 푸르고 누른 빛을 나타낸다.(隨處現靑黃)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근본문제 앞에서 고뇌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신음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인가 지표를 잡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연하게 바깥 세계에만 한눈을 팔다보니 불안과 괴로움이 따르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에서 바람주머니를 잃어버리면 표류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낯선 길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에 홀린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지금 뭅질이라는 귀신, 나만이 잘났다면서도 곧잘 '네가 최고다'는 등의 마귀에 홀려 있는 형국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내 것, 네 것이라는 분별은 잘하면서 진작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이나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도리어 거추장스럽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다 같은 한 세계에 살면서 공업(共業)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중생이 각기 다른 세계에 산다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망은 금물입니다.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값진 시간을 살 수도 있으며 전혀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실상이 있으면 그 이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명실상부할 때라야 그 실체는 아름답게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불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불교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마음을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싯다르타 태자가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고 깨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된 것이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도불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전해진 가르침은 많은 법문, 많은 경전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하나를 전한 것입니다. 중국 선불교의 초조로 불리는 달마대사는 제2조 혜가 스님에게 불법의 진수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출가이후 60여년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 예불과 독경, 참선을 거르지 않은 혜초스님은 '수행이 생활화 돼야한다'고 말한다.

마음을 알면 불교 다 아는것

마음 밖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요(心外無佛)
부처 밖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佛外無心)
마음이 즉 부처고(心卽是佛)
부처가 곧 마음이다.(佛卽是心)

또한 조사어록에 이런 계송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전하신 조사의 뜻은 너무도 당당해서(西來祖意最當當)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맑히면 뜻을 알 수 있다.(自淨其心性本行)
부처는 너무도 고요하여 머무는 바가 없으며(妙體湛然無處所)
산하대지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山下大地現眞光)

불교, 한방, 심리학 및 대체의학
전수자 모집

현재 불교 포교사 활동 중인 분이나 스님 또는 앞으로 포교사 활동 예정인 중생구재의 대원력을 세울분들에 한함!

수행과제
1. 경락학, 기치료 원리 및 실기, 심리학, 대체의학
   불가의 비전술 오행환술 신체교정운동법 목 허리 디스크 관절염 심경질환 중풍 예방법 전수
   각종 난치 질환 신병 귀신병(빙의)
2. 오행기전검법
   (상대의 목소리만으로도 현재 아픈 곳 진단가능)
   원거리氣방사법(멀리있는 상대에게 기운 운공가능법)

수행과정
천기운행법으로 상대를 정확히 알수있는 지상 최고의 육통법(숙명통) 일반역학과는 차원이 완전히 틀림
▶과 정 : 3개월 (1개월 속성코스도 있음)
▶강의료 : 3개월 300만원

절에서 일하실 20세 ~ 25세 女구함 (0명)
보수 : 월 60 ~ 80만원 사이
▶자 격 : 신심이 돈독한 불교신자에 한하고, 기수련자는 특히 환영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암
창원포교당 향 선 사 지도법사스님 도 안
TEL : 055)276-9855 / 직통 : 016-726-0830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초여름의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1) 등록하시고 아직 성혼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상담을 통한 서류비 정도의 재등록으로 다시 성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요즈음 어려운 경제관계로 다소 도움이 되시고자 5월초부터~8월말까지 10만원 정도의 비용만 받고 회원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소사역 하차
(북부 3번출구 150m지점)
전화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기문 둔갑 강의 안내
(사주, 작명, 택일, 풍수)

-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문의 : 02-961-0870 ~ 2)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문의 : 031-201-3377)
- 개강일시 : 2003년 9월첫주부터
  매주 수요일(서울) : 기초반(오후 7시 - 9시까지) - 원리론
  매주 목요일(서울) : 고급반(오후 7시 - 9시까지) - 해단및작명
  매주 화요일(수원) : 기초반(오전 10시 - 12시까지) - 원리론
- 수 강 료 : 학기당 16만원(15주)
  ※ 60세이상 50%할인혜택으로 8만원(서울)
- 원서접수 : 2003년 8월 1 일부터 - 8월 30일까지 선착순마감
- 접수방법 : ★ 직접방문접수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부(서울)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부(수원)
  ★ 인터넷접수 - 서울 http://cce.khu.ac.kr
  수원 http://ww1.khu.ac.kr/~ice
- 제출 서류 :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 수강과목 : 기문역학(서울) .생활명리학(수원)



- 담당 교수 : 손 혜림(민강 기문역학원장
  02-3476-3433, 3430 www.gimun.net)

※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개인상담원 창업시 관리 지원

기문둔갑이란?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둔갑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본 강의는 단군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통의 특수비법을 현재의 전맥자 이론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 드립니다. 카운셀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사업운영이나 명리상담원을 하는 분들,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니신 분들께는 참으로 필요한 학문입니다.

원장 특별개인지도 60회 완성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엄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엄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기자가 본 혜초 스님

노구 아랑곳 않고 스승 덕암스님 6년째 수발

생활속 불법 실천해야 참불자

믿음·이해없는 사회엔 혼란만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쌓으라는 말은 세상을 참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꾹 참고 사세요."

혜초 큰스님은 스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같은 법담을 들려준다. 일흔 살이 넘도록 6년째 자리에 누워 있는 스승 덕암 스님을 모시고 있는 스님의 인고(忍苦)도 한 몫 했을 법한 표현이다. 그러면서도 "말제자로서의 도리를 할 뿐 한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고 말한다.

덕암 스님의 수행가풍을 이은 혜초 스님은 수행자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잠자는 시간도 하루 4시간을 넘기지 않아 스님의 방은 새벽 2시 불이 켜진다. <석문의범>에 있는 행수해와 사성례로 불보살에게 올리는 새벽의례에 이어 금강경, 원각경 보안장, 법화경 약찬게, 화엄경 약찬게를 차례로 독송한 후에야 아침예불이 시작된다. 이어 아미타경 독송과 참선 수행으로 아침을 맞는 스님은 매번 발우공양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불이성(不二城) 법륜사 주지로 있으면서도 직접 돈을 만지지 않는다. 다른 사찰에서 법문을 하고 난 후에도 거마비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부처님 제자가 법을 전하는데 웬 거마비냐"고 질타한다. 물질을 가까이 하면 나태함이 찾아든다는 것이다.

1932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난 스님은 14세 되던 45년 진양 청곡사에서 김양택(金良澤)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53년 해인사에서 인곡(仁谷)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불교전문강원과 해인대학(현 경남대) 종교학과, 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60년 현 태고종 종정인 덕암 스님을 법사로 건당, 양주 흥국사, 서울 약수암, 서울 영평사에서 정진해 왔다. 태고종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등을 거쳐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72세의 세수에도 동자같은 미소를 간직한 혜초 스님.

(人生好似採花蜂)
아침저녁으로 동서로 날아다니며 바쁘게 살면서(朝暮東西也太忽)
백가지 꽃을 따다가 꿀을 만들어 놓지만(採得百花成蜜後)
결국에는 고생한 한 마당이 모두 허사로다.(到頭辛苦一場空)

이 게송을 잘 새겨 보세요. 요즘 우리 불자들은 근기가 아주 얕습니다. 신심이 돈독해야 하는데, 바쁘다면서 겉으로 형식적인 불교를 행하고 있을 뿐이지요.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바른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제 할 일 다하고 할 일 없을 때 절에 나가는 것은 올바른 신행이 아닙니다. 꿀을 만드는 것은 벌인데 나중에 꿀을 따가는 주체는 따로 있거든요. 사람의 인생살이가 그래요. 절에 자주 나오지 못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해야 불자라 할 수 있지요. 바른 실천을 할 때 비로소 믿음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이해가 결여되었을 때 그 사회는 혼란하게 되고, 사람들은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윤택하지 않은 땅에서 만물의 생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서로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메마른 땅에서는 평화의 꽃이 피지 않으며, 성장이라는 것도 실은 모래위의 누각일 따름입니다.

불법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하나를 청정히 할 때 길이 열립니다. 지금 세상이 불안하죠? 이럴 때는 참고 사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궁색하고 아쉬운 것이 많아도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이후에는 좋은 때가 옵니다. 설사 좋은 때가 오지 않더라도 이것이 중생의 희망이지요. 세상은 참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하고, 사바세계는 감인(堪忍)세계라 합니다. 혼자 잘 살자고 불교를 한다는 것은 바른 신행이 아니지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서로 잘 사는 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 세상에 나고 죽는 것이 인간사만의 일은 아니지요. 세상 만물이 모두 오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하늘에 오르니 그것을 낮이라 하고 바다로 침잠할 때를 두고 밤이라 할 뿐, 그 태양의 오고감을 두고 시작과 끝이라고 일컫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눈을 떠 밝음을 알고 눈을 감아 어둠을 알지만, 밝음과 어둠의 존재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고 감으로 시작과 끝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곧 여래(如來)의 오고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여서 모든 선법을 자라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믿음의 공덕을 자라게 하고 믿음은 반드시 여래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깨치는 것은 오직 당사자의 한 생각, 분명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이 뜻을 잘 헤아려 용맹 정진하길 바랍니다.

글=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이를 알면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체계가 아닙니다. 신앙할 만한 이유가 있어 믿는 세계거든요. 발심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전혀 다른 나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르게 믿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것에 의지해서 실천하면 마침내 얻고자 하는 보다 나은 삶, 보다 인간다운 삶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지극한 신심과 바른 이해(信解)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미리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설계 자체를 의심해서는 훌륭한 집은 고사하고 공사 자체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정행(正行) 입니다.

삶이란 흡사하게도 꽃 따러 다니는 벌과 같아서

진실하게 살려면 인욕하는 수 밖에…

현원스님의
스님이야기
해산스님



표충사(表忠寺), 출가본사이다 보니 많은 애정과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처음으로 '중노릇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없이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신 해산(海山)스님이 계셨던 곳. 1976년 사미계를 받고 산중의 어른이신 스님께 출가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문안인사 드리러 매일 내원암으로 올라가곤 했다. 열 세살 어린 나이에 눈을 맞으며 올라다니던 그 길은 왜 그리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던지….

그렇게 봄이 지나고 그해 여름, 어린 사미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있었다. 그땐 요즘처럼 연수원이다, 콘도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라 방학을 맞이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사찰로 수련대회를 참 많이들 왔다. 큰 가람이다 보니 많은 인원을 수용할수 있는 표충사는 수련대회에 좋은 장소여서 학생들은 쌀 몇 되를 들고 와서는 절에서 머무는 비용을 대신하곤 했다. 또 몇몇 단체들은 해산스님이 계신 내원암에서 수련대회를 열곤 했다. 매미 울음소리로 귀가 멍멍할 정도로 무더운 여름날, 청년들은 법당에서 참선을 하였고 해산스님께선 밀짚모자 눌러 쓰고 평상시대로 호미 하나 들고 도량안 화단의 풀을 맸다. 시원한 그늘이 그리워지는 오후였는데 세수 80이 가까운 노스님이 직접 풀을 매는 모습을 보자 학생들과 청년들은 법당에 계속 앉아 있기가 미안해서인지 하나 둘씩 일어나 울력에 동참하였다.



그림 · 문병성

노스님께선, 청년들이 며칠 절에 머무는 수련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불교를 잘 아는 것 같은 아상을 가질까 경계하셨는지 같이 풀을 매는 동안 시골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옛날 얘기 해주듯 편안하게 법문을 해주셨다. 노동의 소중함을 책을 통해서만 알았던 젊은이들은, 큰 스님이 법상(法床)에서만 법문하시는 줄 알았다가 몸으로 땀 흘리는 것도 수행의 한 부분임을 직접 일깨워 준 노스님의 법문과 소탈한 모습에 감복한 나머지 수련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새벽과 저녁엔 열심히 정진하고 오전과 오후는 열심히 땀흘리는 울력을 했다. 스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신심있는 신도의 시주는 뜨거운 쇳물을 마시는 듯 해야 하며 이렇게 땀으로 소화시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먹는 밥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여주는 것이니 피눈물로 알아 게으르지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어린 나이에 무조건 우러러 보기만 하고 막연한 두려움만 있었던 나에게 스님의 자비로운 모습은 큰 충격이었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는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

만가지 말보다 직접 체험해서 몸으로 감동한 이들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실한 불자들로 남아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법상에서 주장자 대신 능동(能動)으로 많은 이들을 부처님의 품안으로 이끌었던 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살았던 인연에 지금도 표충사를 떠올릴 때마다 감동하면서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젊은 시절 해산스님은, 당시 전국 선원에서 열 손가락안에 들 정도로 그 정진력을 인정받은 수행자였다. 연로해서도 뼈와 가죽만 남아있을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지만 수좌들에게는 등골에 식은 땀이 나도록 힘차게 경책하셨다. 그럼에도

'중노릇 이렇게 하라' 솔선수범
'一日不作 一日不食' 에 철저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제방 선원에서 운수 납자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먹지 않는다'는 법문이 말로만 하는 공염불이 아니라 그 연세에도 해야만 하는 수행자의 하루 일과임을 항상 실천으로 보여주신 스님은 모든 수행자의 귀감이 되셨던 것이다.

해산스님께선 79년 열반에 드셨다. 먼 발치에서 입적하셨단 소식을 접하고는 마치 부모님을 잃은듯 목이 메여 왔으나 스님께서 말학(末學)후배에게 남기신 호미정진의 정신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다.

도시 포교당에서 포교를 정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가끔 피곤하고 힘들때 노구를 이끄시고 호미를 놓지 않으셨던 스님을 떠올린다. 그러면 마음 저 밑에서부터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힘이 난다. 젊었을 때 열심히 정진해야 나이들어서도 허리가 곧아서 그 정진력으로 좌탈입망 할수 있고, 수좌는 좌복위에서 목숨을 마쳐야 한다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현원(玄元)스님은 부산 生으로 표충사에서 득도했다. 통도사 강원을 수료했으며 1987년까지 13안거를 성만했다. 87년부터 95년까지 8년간 토굴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분당 연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부처님 등불" 수공예 양초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색 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옥색 외 다수
※ 원하시는 모양과 규격에 맞추어 하실경우 별도 비용 추가 됩니다.



"부처님 등불"은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등(초)로써 표현한 상징물입니다.
늘 합장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들어 주십시오.
탑쌓는 정성으로 기원 드립니다.

법당 및 가정에 백일기도
일일기도 1인 인등으로 최고
전기료 저렴 한달기준 500원

● 물에 뜨는 아로마 향기 양초 - 향기로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장미, 종이배, 카라 등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및 취급점 상담 가나공예양초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81-119번지
사무실 02)996-8830 / 공장 02)997-2801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가능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저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우리는 영양밸런스를 조장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경희대 자신의학원 자연식 통무원 원장
저술학사(한약사) 박종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깨끗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뇌졸중,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남이면 남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엣된 여승을 바랑을 짊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 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곧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반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OO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 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보현스님 합장

실크로드 챌린지 참가 안내

실크로드.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은
구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1,300여년 전 당나라 현장법사와 신라 혜초스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 내차로 직접 도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불교유적과 고도 3천 - 5천m를 넘나드는 고원지대에 펼쳐지는 대자연의 파노라마, 타클라마칸 사막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는 실크로드 1만 2,000km 대장정, 일반인 최초의 실크로드 탐사에 스님, 불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동참하셔서 1,300여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당시 구법승들의 실체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한중자동차문화교류협회
● 행사 기간 : 2003년 10월 7일 - 27일(21일간)
● 접수 마감 : 2003년 8월 25일
● 참가 자격 : 4륜구동(4×4)차량 소유자, 차량이 없는 사람은 다른 차에 동승하는 형식으로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 의 : 실크로드 챌린지 사무국
02)535-7973~4
인터넷 주소 www.silkroad4x4.or.kr 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3화 다섯명의 고행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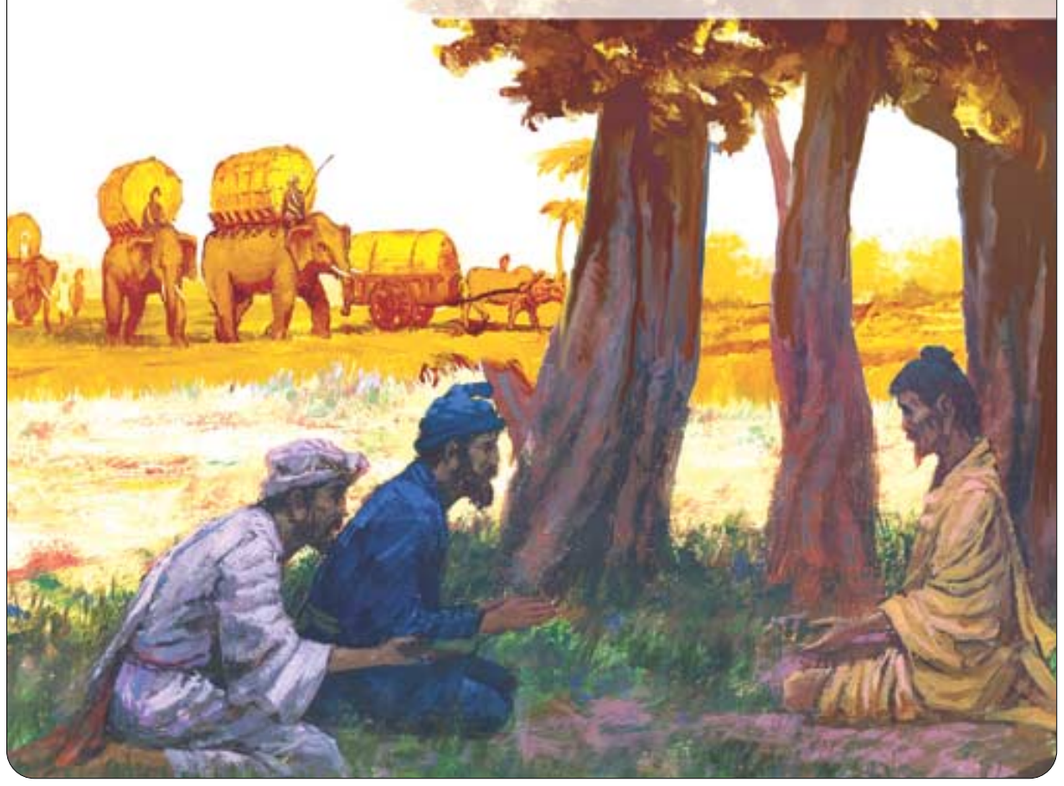
그들은 트라푸샤(Trapusa)와 발리카(Bhalika)형제였다. 오랜 여행에 목이 마른 코끼리들을 위하여 물을 찾아 왔다가 붓다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저기 저 목욕을 마친 사문을 보라. 우리가 장사차 천하를 돌아본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저처럼 깨끗한 성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가 서둘러 저 사문께 공양하고 그의 축복을 받는 것이 좋겠다."

"저희 형제의 정성이 담긴 꿀에 볶은 밀을 공양(供養)으로 올리니 큰 사문께서는 부디 받아주옵소서."

이 분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느 사문(沙門, Sramana)과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두 상인 형제는 붓다의 법에 귀의(歸依)하겠다고 간청하여 최초의 우파사카(Upasaka, 在家信徒)가 되었다.

"너희 형제가 진정코 불법에 귀의한다면 다음 십계(十戒)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첫째,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세째, 음행을 하지 말라. 네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째, 몸에 향을 바르지 말라. 일곱째, 풍류에 물들지 말라. 여덟째, 높고 큰 의자에 앉지 말라. 아홉째, 간식을 하지 말라. 열번째, 금은보화를 탐내지 말라."

상인이었던 트라푸샤(Trapusha), 발리카(Bhallika)형제는 불교에 귀의한 첫번째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기들 생업을 버리지 않고 불교에 귀의한 남자 신도들로서 우파사카라 하는데 한문으로는 우바새(優婆塞)라고 한다. 우파사카는 남신도(男信徒)를 가리키고 여자 신도는 우바이(Uasika)라 부른다. 이들은 모두 집에서 생활 하면서 불교에 귀의하고 출가수행자들을 공양하는 신도들이라는 말이다. 불교는 이들의 뒷받침으로 인하여 후일에 크게 교단을 만들어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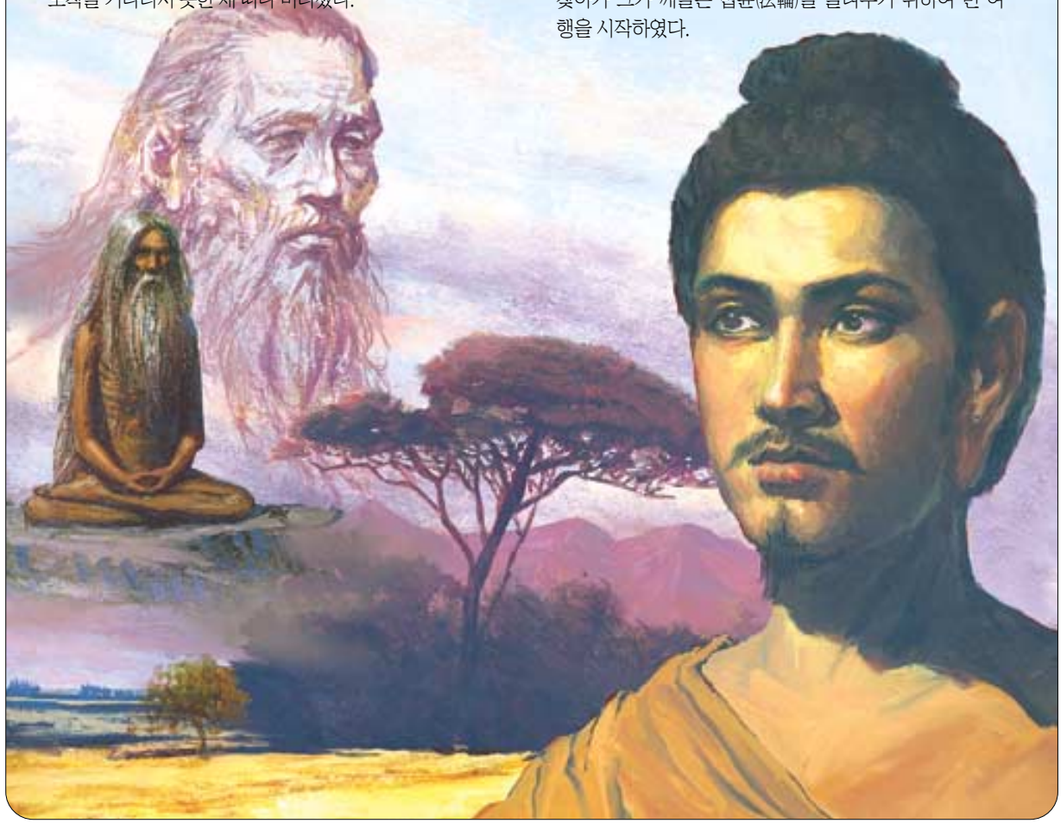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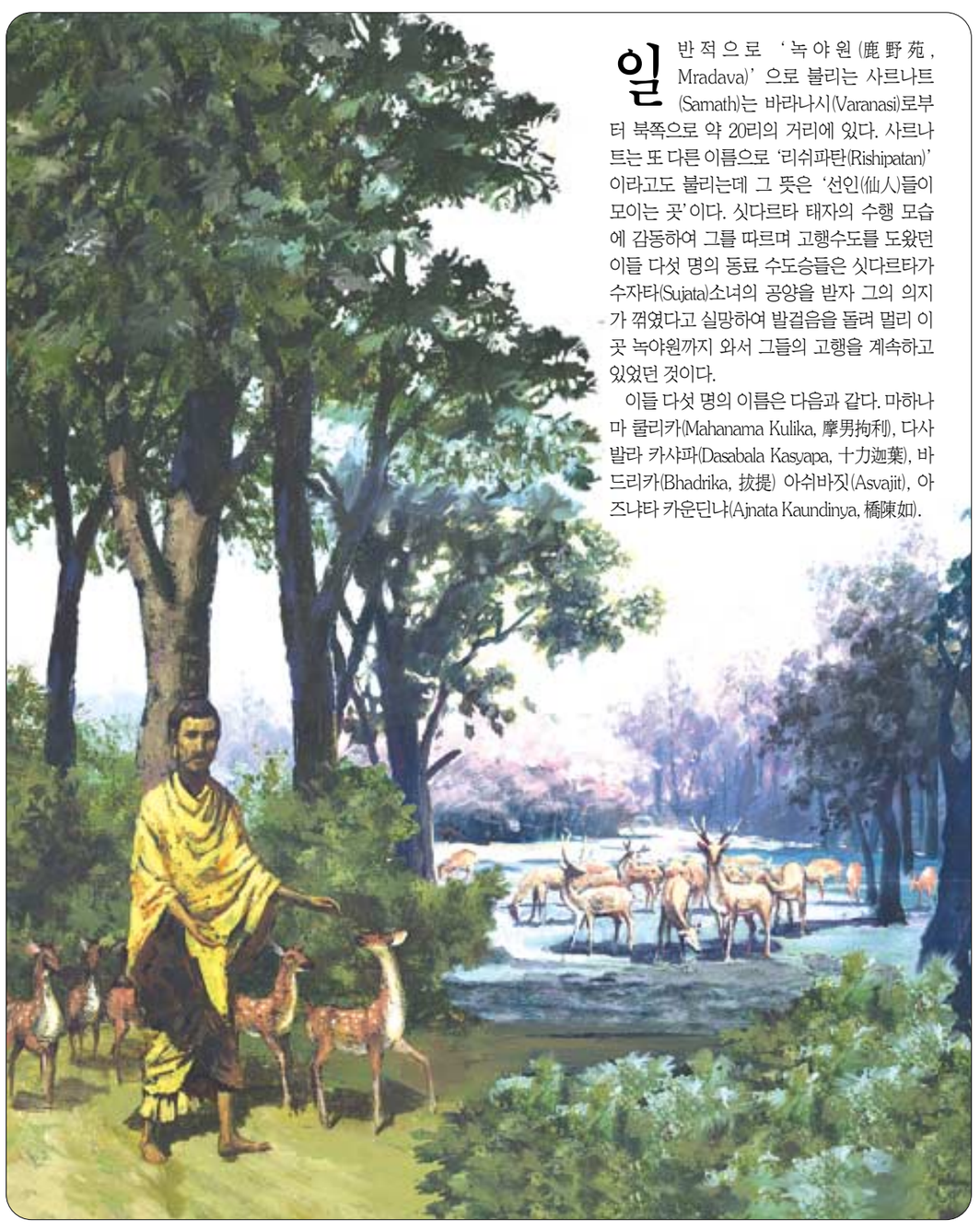
이제 성불의 꿈을 이룬 샤카무니 붓다는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멀고먼 길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 샤카무니 붓다는 그의 법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다. 법륜의 미묘하고 깊은 진리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치 밝은 햇빛이 솟아오를 때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먼저 비추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그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는 그래도 그의 스승이었던 '알라라칼라마(Alarakalama)'가 제일이었다. 그러나 붓다가 그를 찾아갔을 때 스승 알라라 선인은 고령으로 이미 세상을 뜬 후였다. 실망한 붓다는 다시 생각을 해보니 역시 또 한명의 스승인 '웃다카 라마풋타(Uddakaramaputta)'가 제일 산봉우리에 근접해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붓다의 도착을 기다리지 못한 채 떠나 버리셨다.

샤카무니 부처님은 크게 실망하였다. 사실 알라라칼라마 선인이나 웃타카 라마풋타란 두 스승은 이미 출가하여 수십 년 이상씩 수행하고 있었기에 붓다의 새로운 깨달음을 받아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또 누구를 찾아 갈 것인가. 아침 햇살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었던 산봉우리가 없다면 이제는 그 다음 높은 언덕을 찾는 길 뿐이다. 그리하여 그 모두의 힘으로 저 깊은 계곡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을 건져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던 중 마침내 부처님의 고행시대에 함께 수행했던 다섯 명의 동료들을 생각해 내었다. 그들은 바라나시의 녹야원(鹿野苑, Mrgadava)에서 여전히 그들 나름대로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보드가야에서 바라나시까지는 걸어서 12~13일이 걸리는 먼 거리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을 찾아가 그가 깨달은 법륜(法輪)을 들려주기 위하여 먼 여행을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녹야원(鹿野苑, Mradava)'으로 불리는 사르나트(Samath)는 바라나시(Varanasi)로부터 북쪽으로 약 20리의 거리에 있다. 사르나트는 또 다른 이름으로 '리쉬파탄(Rishipatan)'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뜻은 '선인(仙人)들이 모이는 곳'이다. 싯다르타 태자의 수행 모습에 감동하여 그를 따르며 고행수도를 도왔던 이들 다섯 명의 동료 수도승들은 싯다르타가 수자타(Sujata)소녀의 공양을 받자 그의 의지가 꺾였다고 실망하여 발걸음을 돌려 멀리 이곳 녹야원까지 와서 그들의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다섯 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마하나마 쿨리카(Mahanama Kulika, 摩男拘利), 다사발라 카샤파(Dasabala Kasyapa, 十力迦葉), 바드리카(Bhadrika, 拔提) 아쉬바짓(Asvajit), 아즈냐타 카운딘냐(Ajnata Kaundinya, 憍陳如).

이 다섯 명의 수행자들은 인도의 토속종교인 시바(Siva)신과 아리얀의 비쉬누신 사이에서 방황하며 요가의 행위를 통하여 선정(禪定)의 희열을 맛보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고행하는 모습을 숭배하였기에 극단의 고행으로 동료들의 존경심을 모으고 또 그 자신도 육체의 괴롭힘을 통하여 최고의 이상에 도달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행법은 부처님도 한때 시도해 보았던 것이 아니던가.

이들 다섯 명의 옛 동료 고행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난 붓다는 가야로부터 라즈기르, 나란다, 파트나, 바라나시를 거쳐 이곳 사르나트의 녹야원까지 도착하고 있었다. 무려 20여일의 긴 여정으로 몸이 피로하게 된 붓다는 우선 바라나시 성으로 들어가 공양을 마친 다음 다시 동쪽 문으로 나와 사르나트에 도착하니 어디선가 아름답고 순진한 사슴들이 뛰어나와 붓다의 녹야원 도착을 환영하며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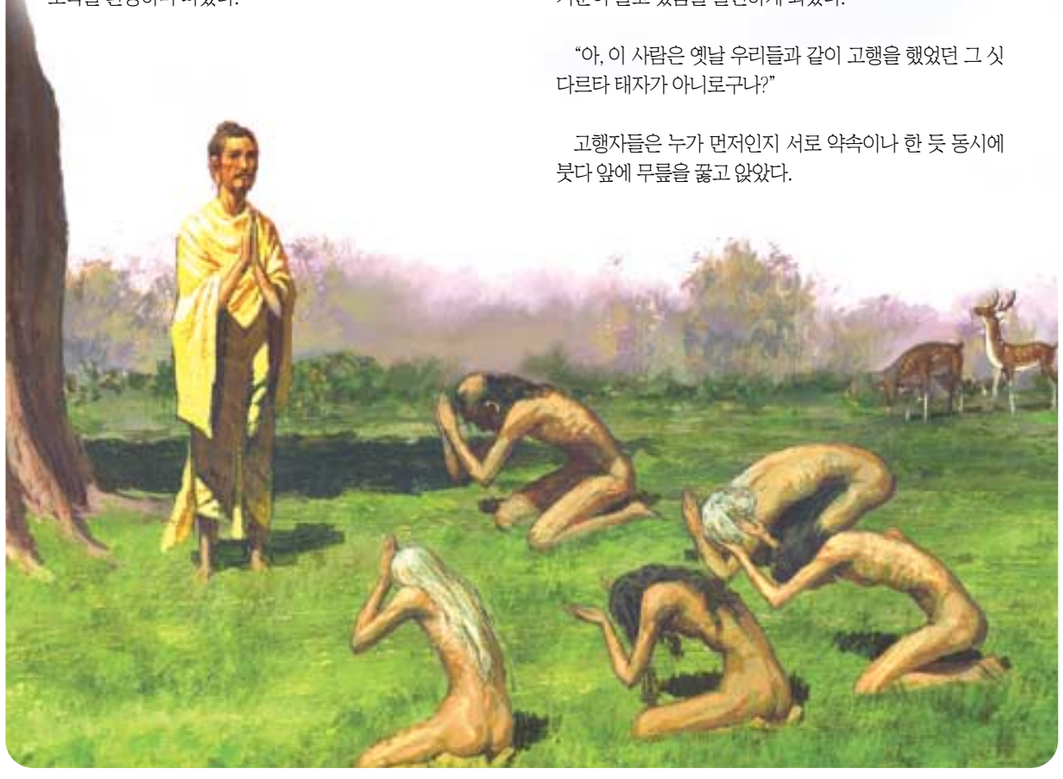
이때 5명의 고행자들은 붓다가 멀리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고행에 실패하고 다시금 자기들과 합류하고 싶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한 끝에, 붓다를 냉대하여 그를 반성 시키자고 모두가 합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붓다는 이들 다섯 명의 속마음을 훤히 읽고 있었다. 비록 그들과의 고행 대열에서 이탈하여 결국은 홀로 부처님이 되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모른 체 고행의 의지를 잃고 중도 탈락한 동료에게 섭섭함을 표시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하게 느껴졌다.

한편 5명의 고행자들도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으로 옛 동료를 냉대하여 교훈을 주자고 하였지만 붓다가 슬기로운 미소를 입가에 띠고 가까이 접근해 오자 그만 자기들끼리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반가운 마음이 생겼다. 이때 이들 다섯 명의 고행자들은 붓다의 두 눈에서 뿜어 나오는 광채를 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스러운 기운이 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 이 사람은 옛날 우리들과 같이 고행을 했었던 그 싯다르타 태자가 아니로구나?"

고행자들은 누가 먼저인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붓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32화)

"불변의 나(我)라는 것은 없다"

〈출전 : 남전 상응부경전 22.15.我〉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 회장님의 '자살'

어리석은 탈출구

선재는 요즘 뉴스 보는 일이 겁이 난다. 하루에 한 번 꼴로 자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수가 1만3천55명이란다. 하루에 평균 36명 꼴이다. 사업 실패, 성적 비관 등에서부터 카드 빚에 이르기까지 사연도 다양하다. 급기야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총수마저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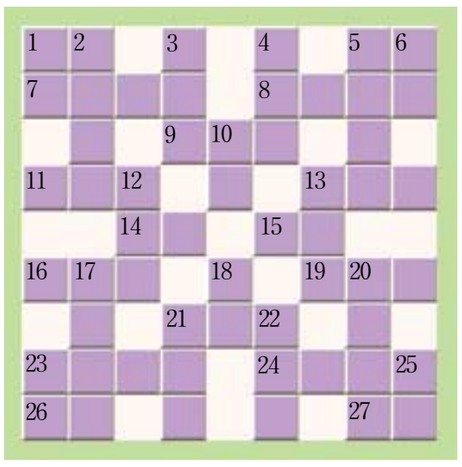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 일부가 열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있었다. <율장>에 따르면 '미가란디까'라는 승려가 발우와 가사를 받는 조건으로 60명이나 되는 승려의 목숨을 끊어주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처님의 엄중한 경계의 말씀은 이러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그 승려들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법에 알맞은 것이 아니고 사문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으로도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행해서는 안된다. 비구들이여, 이 계율을 공포한다. 승려가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거나 자살을 도와 줄 사람을 구하거나 하면 함께 살 수 없다."

자살 역시 살생계에 속하는 '바라이죄'라는 말씀이다. 불교에서는 갈애(渴愛)가 모든 형태의 괴로움과 존재의 윤회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갈애란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격렬한 탐욕을 일컫는 말이다. 갈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욕애(欲愛), 유애(有愛), 비유애(非有愛)가 그것이다. 이 중 세 번째인 비유애가 바로 죽고 싶은 욕망을 가리킨다. 죽음의 욕망 역시 격렬하다는 가르침이다.

아무리 훌륭한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어쩔 수 없는 딱한 처지가 있다고 해도 자살은 그저 번뇌일 뿐이고 계율을 어기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욕망을 영원히 끊어버려야만 비로소 궁극의 목표인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금생의 고통을 잠시나마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자살을 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가로

1. '크다'의 반대말 5. 진리를 깨달음 7. 인도의 불교성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곳 8. 연꽃 모양으로 두 손의 손가락을 세워 합장하는 것 9. 말로써 찬탄함 11. 선정을 수행함 13. 석탑 기단의 중간부분을 이루는 돌 14. 모든 사물의 도리를 분명히 뚫어 보는 깊은 지혜 15. 암컷과 수컷 16. 부처님을 뜻하는 말, 모든 환자를 병에 따라 약을 주어 치료하듯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펴서 해탈케 한다는 데서 비롯된 말 19. 전투에서 세운 공을 기리어 세우는 탑 21.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함 23. 열 숟가락의 밥으로 한 사람의 식사를 만든다는 뜻으로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선행이 되는 것 24. 바른 생각으로 관찰함 26.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 27. 두 겹. 겹침

세로

1. 적당함과 부적당함 2.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3. 일정한 줄거리가 있는 긴 말 4. 연기를 내지 않는 석탄 5. 아무런 질서 없이 몰려 있는 무리 6. 무예를 수련하는 곳 10. 말솜씨 12. 카필라국의 슛도다나왕, 부처님의 아버지 13. 본존불을 모신 법당 17. 스승의 의복과 발우를 챙기는 시자란 뜻으로 가까이서 모시는 시자를 뜻함 18. 적은 수 20. 둘 또는 그 이상이 함께 관리 함 21. 차 마시고 밥 먹듯이 흔한 일 22. 결정되어 있는 불성 23. 모두가 갖추어져 있어 결점이 없음 25. 대중의 허물을 자세히 살피는 일을 맡은 사람.

〈433호「교리퍼즐」정답〉

기	염		살		황		목	적
하	화	중	생		하	사	불	성
	미		부	석	사		인	
분	소	의		도		후	견	인
		제	도		도	반		
성	문	법		도		전	자	력
	명		간	화	선		리	
부	국	강	병		발	보	이	심
호	가		인		대		타	인

제5기

선 심리상담 · 명상지도자 양성 및 특수과정 모집

◑ 선 심리상담명상지도자란?

현대물질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하지만 참 나를 잊고 혼돈 속에서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 불감증과 각종 공해로 인한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심리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연대체의학으로 정신심리요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에서는 참선수행과 명상호흡, 불교적 소양, 정신분석, 심리학, 대체의학 등을 연구하여 인간 심층심리에 잔류하고 있는 불안한 음성적인 에너지를 없애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한편 이 심리치유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 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과 프로그램연구를 겸한 최상의 정신심리치유의 장을 열려는 불교적 노력을 '선 심리상담명상교육' 이라 하고, 이 전문가를 '선 심리상담명상지도자' 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주요 교과

▶ 불교학 개론 ▶ 선 심리치료학 개론
▶ 무아선무명상호흡법 ▶ 참나 찾기 특수프로그램
▶ 금강경 능엄경의 선 심리 ▶ 선불교와 요가심리
▶ 동양적 통찰심리치료법 ▶ 청소년 임상심리
▶ 유식과 심리치료 ▶ 사이코 심리치료

◑ 교과 일정(일반과정)

과 정	요 일	시 간	기 간
양 성	목요일	11:00~12:30	9월4일~12월18일(4개월)
특 수	수시모집(15명 이하, 3박 4일, 수련원)		

◑ 주요 강사진

▶ 이법산큰스님 : 동국대 정각원장, 한국선학회 회장
▶ 백상창 박사 : 백상창 신경정신과 원장, 통찰심리치료 전문의
▶ 김철회 박사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참나지도자회 고문
▶ 이명우 교수 : 한국청소년상담원 책임연구원
▶ 고강호 교수 :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학회 교육이사
▶ 주명철 교수 : 동국대학교 교수/ 마음의 전화 전문의원
▶ 김도각 스님 :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마음의 전화 원장

◑ 입학자격 – 제한없음

◑ 특전

❶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가입 자격
❷ 선 심리치료상담 전화인 '마음의 전화' 개설시 자격증 및 자료 제공
❸ 참나 찾기 팔관재 큰 모임 (선 심리명상수련회)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상담명상수련 프로그램 18회 개최)

◑ 수강신청

2003년 8월 11일 ~ 9월 4일(통신교육도 가능함)
(단 특수과정은 개별방문상담 요망)

◑ 문의 및 수강신청

마음의 전화 /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 무아선무명상호흡연구원
TEL : 02)738-1275(심리치료),
02)326-0248 / 9(F)
H.P : 016-301-4080

사단법인 참나찾기지도자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 마음의 전화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려 정책' 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해결방안

[장안낙원 지원사항]
- 납골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제공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안치단 저가 보급
- 각종 제사 유치로 부대수입 기대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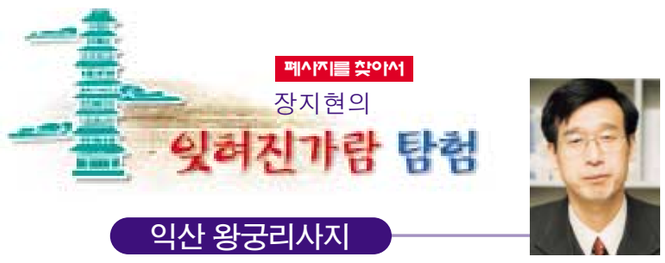
■ 주 최 : 장안사 장안낙원 ■ 협 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

백제 무왕 천도의 꿈 서린곳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무념으로 바라보며 그 자리를 천여년 지켜온 왕궁리 5층석탑.

여름 날 비 오는 들녘에서 듣는 부음(訃音)은 쓸쓸하다. 빗물 머금은 채 글썽이는 풀벌레들의 초혼(招魂)은 더없이 비감(悲感)하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소발자국을 찍으며, 녹슨 철조망을 헤집고 남북을 부지런히 오가던 '민족 기업인' 한 사람이 돌연 우주 속으로 사라졌다. 무엇이 그를 역사의 캄캄한 벼랑으로 뛰어 내리게 했는가. 누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떨어트렸는가. 찢겨도 푸름을 잃지 않는 청청한 소나무. 그 상처에 대고 네 탓 내 탓 입방아를 찧는 세태야말로 해충처럼 무익한 것이다. 소나무는 딱따구리를 기르지만 그 딱따구리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고 했던가. 동해 그 먼 길을 노잣돈 아낌없이 오갔다면 그는 이미 장사꾼이 아닌 '급고독장자' 일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 고 깨달았다면 그는 이미 범부가 아닌 '통일보살' 이었을 것이다.





◇붉은 소나무가 부러지고 썩은 모습으로 초석과 함께하고 있는 제석사지.

사자사지·오금사지등 폐사지 즐비

왕궁리 마을 전체가 제석사지… 소실→중창→폐사

금당지 출토명문 大官寺·官宮寺…왕실원찰 추정

만경창파(萬頃蒼波). 횡으로 종으로 줄맞춘 벼 포기들이 넘실대는 김만평야는 다가설수록 아득하다. 나라 안팎의 어지러움만 아니라면 저 들판 한 켠에 허수아비가 되어 한 세상 허허롭게 머물다 간들 무슨 허물이 될까 싶다. 흰 옷 입은 해오라기들 벼 포기들 사이로 해 종일 미꾸라지를 집어 올리는 이곳이야말로 반도의 문전옥답이 아니었겠는가. 남으로는 만경강. 서북으로는 금강이 굽이치는 익산 땅은 수로교통의 요충지요, 군사적 요새였다. 여기에 풍부한 수량(水量)을 더하여 농업생산력까지 구비하였으므로 익산은 고대 왕조들이 입맛을 당기기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호에서 한나절 넘게 미륵사지와 마룡지를 둘러보고도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하는 것은 용화산 그리메가 아직 미륵사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까닭만은 아니다. 쌍릉의 봉분에 내린 잔디가 그 잔뿌리를 들썩이는 까닭만도 아니다. 촌색시처럼 얼굴을 붉힌 봉선화가 눈길을 주는 궁평 마을 담장 밑을 그냥 지나친다면 찬바람이 들어도 첫사랑처럼 익산의 미련은 떨치지 못할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배롱나무 아롱아롱 붉은 꽃빛 수를 놓는 듬직한 오층탑 발 디딘 왕궁리 언덕은 혼자 가슴에 간직하기 버거운 풍경이다. 여기에 궁궐을 짓고 사원을 건축하지 않으면 못배겼을 백제 무왕(600~641)의 충격이 이와 같았을 것이고, 때 되어 무심한 방초로 솟아나는 갈무리된 제국 건설의 비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일대는 고대 궁궐터 뿐만 아니라, 제석사지(사적 제 405호), 고도리 석불입상(보물 제46호),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289호), 사자사지, 오금사지 등 백제 시대의 크고 작은 폐사지들이 널려 있다. 백제의 30대 왕인 무왕은 이곳을 중심으로 익산 천도를 꿈꾸며 새로운 왕도 건설을 기획했었다. 그리하여 그는 용화산 아래 민족 총화로 미륵사를 창건한데 이어, 제석천의 힘으로 외침을 벗어나기 위해 왕궁 부근에 내불당 성격인 제석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왕궁리사지 탐험은 삼례·전주 방향의 1번 국도를 따라 도로변에 있는 왕궁리 사적들을 살피고, 제석사지와 고도리 석불입상을 차례로 순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나, 제석사지의 매력을 떨치지 못하는 조바심은 곧장 궁평마을 농로를 달려 제석사지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 궁평마을에서 제석사지를 찾기 위해서는 수미산 허리를 헛돌 듯 '제석들'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으면 안 된다. 제석사지는 현재 홍씨 집성촌인 왕궁리 247번지 일대에 걸쳐 있다. 마을 전체가 사지인 셈이다. 어디가 금당지이고 강당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익산시에서는 1998년 5월 이곳 일대를 사지로 지정, 발굴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전체가 사지이기 때문에 겨우 기와 터 정도만 광이질을 했을 뿐이다.

제석사지의 창건에 관해서는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그 기록이 나타나 있다. 창건연대는 밝힐 수 없으나, 벼락으로 소실되었다가 중창되었으며, 어느 시기에 다시 폐사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 입구 여남은 노송들이 허리를 비트는 솔숲이 칠층목탑이 있던 탑지이다. 들녘 한 가운데 자리한 솔숲이라 벼락을 자주 맞는 탓인지 부러진 소나무 가지들이 지금도 빨갛게 말라있다. 탑지에는 전설 같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려는 듯 토루(土壘) 중앙에 직사각형 구멍이 뚫려있는 심초석이 뒹글고 있다. 탑지 아래로는 슬그머니 들어찬 무덤 한기가 터가 센 탓인지 봉분의 잔디가 엉성하여 이끼 앉은 묘비명조차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담장과 담장 사이로 늙은 감나무가 가지를 펴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외지인들의 기웃거림을 경계하는 눈치이다.

제석천은 수미산 꼭대기 희견성(喜見城)에 사는 도리천의 왕이다. 그 이름이 Sakka이므로 석(釋)이라 음역하였고, 신들의 임금이므로 제(帝)라 하였으며, 그 본체가 신(神)이므로, 천(天)이라 하였다. 제석천은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며, 불법과 불법에 귀의한 사람을 보호하고, 아수라의 군대와 싸운다. 백제의 무왕은 제석천의 힘으로 왕실을 보호하고, 국가의 번영과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제석사를 세웠으나, 하늘은 뇌우를 내려 제국의 꿈조차 제행무상임을 일깨우려 하였다.

왕궁리역사유적전시관 공사가 한창인 오층석탑 주변엔 원형이 훼손된 토성이 길게 호를 두르고 있다. 이른바 이것이 전라북도기념물 제1호인 왕궁리토성이며, 이 토성 외에도 왕궁리를 중심축으로 반경 4~5 ㎞ 안에는 미륵산성, 익산토성 등 백제시대의 여러 성곽이 밀집되어 있다. 1989년부터 시행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학술조사에 의해 왕궁리오층석탑을 중심으로 그 북편에 금당, 강당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출토된 명문에 의해 대관사(大官寺), 관궁사(官宮寺) 등 왕실의 원찰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왕궁리 사지 답사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고도리 석불입상이다. 고도리석불 입상은 1번 국도 왼쪽 논 가운데 서 있는데, 높이 4.2m의 똑 같은 석불입상 2기가 옥룡천을 사이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 둘은 각각 남자와 여자인데 평소에는 만나지 못하다가 섣달 해일(亥日) 자시(子時)에 옥룡천이 얼어붙으면 서로 만나 회포를 풀다가 닭이 울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마치 칠석날 견우와 직녀를 상징하는듯한 소박하기만한 백제인의 인심을 엿볼 수 있다. 삼계를 초월한 부처조차 인간의 마음에 불러 들여, 왕궁의 이정표이거나 수호신으로 삼은 '익산문화' 의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시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남원 만복사지

사진=고영배 기자



옥룡천 경계로 석불입상 2기

'견우와 직녀' 상징 설화담겨

하천 얼어붙으면 서로 만나 회포

새벽에 닭 울면 각자의 자리로



왕궁리사지터 가는길

익산 왕궁리 사지는 금마네거리에서 전주·삼례 방향의 1번국도를 따라 1.5㎞ 정도 가면 된다. 오층석탑이 있는 기양리 일대는 현재도 궁궐터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석사지는 오층석탑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2㎞ 정도 떨어진 궁평마을에 있으며, 홍씨 집성촌인 이 마을 전체가 폐사지이다.

불교문화상품전문 쇼핑몰 -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02) 732-1520

한가위 大 기획 상품전

신한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
5만원이상 구매자 2-3개월 무이자 할부

마하몰 추천상품

도자기연꽃 재료 재질 : 도자기 사이즈 : 14cm x 13cm 상품가 : 33,000원

가정용 반야심경 항로 상품가 : 30,000원

천연향구례소리-모닝 상품가 : 20,000원

가정용 촛대 (모델명:6004) 재질 : 놋쇠 사이즈 : 8cm(넓이)x 7cm(높이)x7cm(밑넓이) 1 SET = 촛대2개 상품가 : 30,000원

풍경향방 향세트 연꽃향 20,000원 솔국화향 20,000원 풍경 12,000원 청솔향세트 35,000원 향병 40,000원

마하몰 기획상품

원적외선 건강양말세트 상품구성 : 1세트 6결레 (검정색 3, 회색1, 진회색 1 줄리브색 1) 상품가 : 59,800원

회당석 방석 상품가 : 65,000원

매화청쌀독 상품가 : 65,000원

스님용 회당석 보료 상품가 : 2,800,000원

건강지압봉 상품가 : 16,000원

목구이판 상품가 : 25,000원

연꽃보드(걸이형) 상품가 : 18,000원

흑단목 목탁 상품가 : 89,000원

모기기피 방향제세트 상품구성 : 방향제 6ocs + 향초 2pcs + 스프레이(100ml) 1pcs 상품가 : 39,800원

실버건강팔찌 상품가 : 99,000원

원기등양초 - 24 개입 - 상품가 : 67,000원

등초(小) - 700개입 - 56,000원

무공해식물성양초 1. 중대 - 50개입 - 56,000원 2. 중대 - 30개입 - 60,000원 3. 한기둥 - 12개입 - 48,000원

녹차, 다구

백련차-우전 상품가 : 100,000원(100g) 90,000원(50g)

백련차-세작 상품가 : 60,000원(100g) 30,000원(50g)

백련차-중작 상품가 : 40,000원(100g) 20,000원(50g)

백련잎차 상품가 : 10,000원(100g)

3인다기세트 상품가 : 39,800원

5인다기세트 상품가 : 45,000원

자연에 광고된 상품보다 더 많은 상품을 인터넷 마하몰(http://www.mahamall.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9월 3일 까지 구입하시는분 중 3개이상 구입시 10% 할인해 드립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0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구인구직

사찰 아파트 룸
평생입주자 모십니다(남 · 여)
나이제한: 55세~75세 미만
▷부전스님, 행자님 모십니다
055)382-8348
055)383-6479
양산통도사 취운선원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부도 환영함
031)377-7283
011)9254-7283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가족처럼 함께사실분
▷50대 경북
019)554-2402

조용한 암자에서 가족처럼 평생같이 지낼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충북 진천)
043)532-2072

천년 관음기도도량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자장암
011)584-0888

천도재,각종 불공 해 드립니다
스님이 필요한 곳에서는 연락바랍니다(비구니)
019)357-50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40대~50대
용 덕 사
011-595-1522
051)759-9058

공양주 구함
▷55세 이하
▷서울 금호동
017)260-3310

책보시 받습니다
귀 사찰은 도심기도 및 포교도량으로써 불서 및 많은 포교용 책이 필요하므로 불자님들께 다보신 불서등이 있으면 단 한권이라도 좋으니 보시공덕 바랍니다.
경기 안산시 부곡동 550-10
031)407-0298 마연사

공양주 보살님과 법당보살님 모십니다
▷거제도 이진암
055)682-1261

50세(남) 불자입니다
사주, 풍수, 수맥에 정통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위 역술을 활용할 수 있는사람을 찾습니다
비구니스님이나 보살님이 운영하는곳도 괜찮습니다
016)323-3278

육신의 영생법 저자
뇌출혈이나 심장마비,기타 사고사 등으로 갑자기 죽은 영혼들, 여러차례천도를 했으나 아직도 천도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49일 만에 속시원히 천도해 드리며, 잘되고 않됨을 거의 확인 시켜 드립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눌림이 있는 분도 해결해 드립니다.
▷포천군 관인면 냉정1리
031)532-6661/011-9243-0993

위장약을 불자님들께 원가에드립니다
소화,복만,위장, 설사, 하복통, 구역질, 소화 계통 일절, 오래된 위장병 자신있음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011-392-4984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천수, 바라, 오공양, 작법등 각종행사에 임시로 염불 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항아리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특 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사 람 을 찾 음



· 속명 : 최선자 · 나이 : 52~53세
· 법명 : 만행월 · 신장 : 155~157cm
· 특징 : 이마는 넓은편. 눈이 크고 입술이 두터움
머리는 갈색(변할 수 있음)
전라도 말씨 사용.
사찰에서 공양주로 상주할 가능성이 높음
016-371-0054 / 052)225-1577

회주님이나 투자가 모심!
내용 : 소승은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와 마음법의 도리를 통달한바 없이 통달한 자로서 기본 불사후 포교에 어려움이 있는 사찰이나 모든 중생들을 구재할 불국정토 실현에 동참할 투자가를 찾고 있습니다.
도안 광명.

불사포교:여력:마음법통달, 한의학전공, 외공내공무술전공, 역학달통등모든 정법으로서 또는 방편으로서 불국토 건설 준비가 끝난 스님입니다
신심이 돈독한 회주님이나 투자가 분들의 인연을 기다립니다
도안 광명.
016-726-0830

명당
탐지기 관룡자
월 간 역 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주지 직인 개인 공고
· 사찰명 : 한국불교 태고종 보덕사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25-1
위 주지 직인은 2003년 8월 13일자로 개인하였기에 이후 사용된 전 주지직인은 무효임을 공고 함
불기 2547년 8월 13일
한국불교태고종 보덕사 주지 광덕

志晛易理學研究院
檀園門下生 韓恩炅
◆자연오행과사상체질&수지침시술법강의
-오장육부의 기맥혈과 장기 복진법. 맥진법의 자의관리
◆단원역리학 강의(초급~연구반)
-이석영 선생 수제자 단원 이병열 선생의 정통 학문
◆생활상담 · 작명 · 택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 오피스텔 1004호 (강남역 3번출구)
www.지현역리학연구원.wo.to
(이달의 건강메모)
02)2243-9598. 018-470-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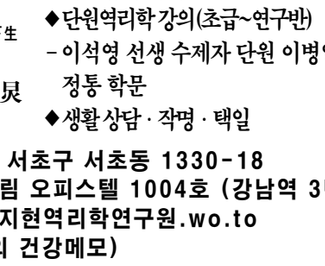
- 난 치 병 치 료 -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다
디스크,관절염,당뇨,간질환, 두통,우울증,화병, 불면증,신(神)병, 원인모를병 기타 불치병
사업실패, 가정불화등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 상담합니다
천지사포교원 02)2051-5549

수인작법 사주팔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조계사 가까운 곳 [책방 여시아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모집
♥ 강의내용
1. 기초반(3개월) : 사물(목탁,요령,태징,광쇠,쇠,북)다루는법 도량석, 셋송, 상단예불, 불공, 제사 시식 등
2.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범패)
3.고급과정(6개월) : 천수바라, 요잡바라, 작법(나비춤), 49재, 예수재, 수륙대재 (전문직 범음범패), 각어산, 화청
♥ 강사 : 도진스님, 일각스님
♥ 1년 수료후 수료증 드림
한국불교 범음회
051)554-1518. 011-846-1518
017-563-3062 원 광 사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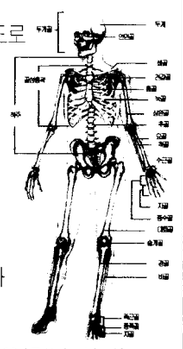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불교의식(범음 · 범패)
제 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종파를 막론하고 불교의식 염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교임 또는 법사님께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아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 정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 (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새벽 도량석, 종성염불, 상단새벽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제불통청), 신중퇴공, 행선축원, 불공축원, 관음시식, 배송, 사미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 시련절차, 천도, 49제 재공편, 전점안법, 설교의식, 시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편, 방생의식, 불상 및 탱화 점안법, 예수제의문, 구병시식 등
※ 재장엄번설치법, 령가축원문작성법, 위패, 지의, 전, 작성법
▶ 작법반 :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속성(2개월) 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 시간 :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 천수바라, 도량계(나비춤), 사다나니(가지게) 화의재진연바라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 오후1시~3시(2시간) ※ 특별강사초빙
▶ 사물특강반 내용 : 태징, 광쇠, 북치는법(천수북, 정근북, 장엄염불북, 요잡쇠)
● 기 간 :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속성반 :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법음 · 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3동 167-14(2층)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 053)955-7725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Gollin 骨仁製藥(株)

자연산
백두상황
상황버섯
한반도내의 북한 함경도 연사지구, 산수지구, 갑산, 혜산, 양강도, 자강도 등 해발 1,000여 미터이상에서 자생한 自然産



● 가격 : 278,000원 250g(1box)
金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
상이(桑耳), 상황(桑黃), 상신(桑臣) 등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甘平有毒, 寒, 無毒, 溫, 治毒 등의 문헌으로 독을 다스렸거나 독성이 없다는 것이 해석하고 있으며, 여성의 하혈, 腹痛 金塘, 女子帶下, 陰通, 男子 癪, 오장에 유리하고 양기에 좋다고 전합니다.
백두대간 상황버섯은 암 저지율과 암 퇴치율이 가장 높은 "목질진흙버섯(Phellinus Linteus)"으로 해발 1,000~1,500m 고지 고산지대의 수십 년 이상 자란 고사목에서 주로 자생한 것을 채취한 것이다.
상황버섯은 암 치료제 뿐만 아니라 인체의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건강식품입니다
■ 복용방법
1. 기상 후,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하루 5회)
2. 따뜻하게 데워서 1회에 130cc(커피잔 한잔)씩 마신다. 달인물은 담황색을 띠며 맛과 향이 거의 없어 마시기 편하다. 복용할 때 특별히 가려할 음식물은 없다.
■ 복용량
성인1인 기준으로 1개월에 약200g 어린이는약100g 암환자의 경우 대개 2개월이상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6개월~1년정도 복용해야 암치유에 큰성과를 거둘수 있다.
■ 달이는법
슬라이스된 상황버섯 50g를 물 2000cc를 부어 끓인 다음 보리차 대용으로 마신다.
● 수입원 : JUS CORPORATION ● 판매원 : 백두상황 (백두상황.net / www.backdoo.net)
구입 TEL 02)489-2240
전국 총판 모집 중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찰 안내

●위치: 충남	●위치 : 부산	●위치 :전남 순천
●법당:33평(목조)	●법당 : 36평	●법당 : 20평
●요사 : 90평	●요사 : 130평	●요사 : 45평
●부지 : 2100평	●부지 : 755평	●부지 : 1000평
●가액 : 10억	●가액 : 25억	●가액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동두천시
● 조건 : 종중땅(400여평 사용. 인법당 겸 요사채 45평, 산신각 35평, 건물등기 평수는 12평임. 삼존불, 심야전기, 심야온수, 약수및수도 설치)
● 가액 : 9,500만원
011)9770-6598

토굴 별장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6억원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토굴수련원터 안내

● 위치 : 함양 백운산 자락
● 부지 : 대지 200평 포함 합 10,500평
● 가옥 있음
● 가액 : 평당 2만원
● 특징 : 토굴과 수련원 터로서 적합한 650고지의 전망 좋은 곳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1리 390번지
● 절터 250평, 밭 700평, 임야 5000평
● 가액 : 6천만원
055)366-1619
안내 054)833-478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영주
● 대 지 : 3000평	● 부 지 : 220평
● 법 당 : 4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100평	● 요 사 : 12평
● 가 액 : 20억	● 가 액 : 6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절터 안내

● 위치 : 안동시청서 5분거리 2차선 도로접. 버스정류소 앞
● 평수 : 임야 약 3천평
● 시가3억, 급해서 2억2천만원.
● 현재토목공사 완료
011)9677-2411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황등면
● 법당 : 25평(주지실)
● 요사 : 50평
● 약사여래입불(조선시대 조성)
● 등기 필 300여평, 시유지 1천평
● 시내 인접
● 양도 : 1억3천만원, 전세 8천만원
019)673-8525
011)677-852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산 국립공원문화재보호구역내 소재 웅장한 미륵바위와 빼어난 산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매
● 평수 : 총면적 3천평(허가필,등기필), 종교용지 1600평, 임야 1400평, 법당 30여평, 요사채 40평, 기타 10여평
● 교구본사,사찰,연수원,수련원,기도터,기타종교시설.
● 주차장완비. 시내와 5분거리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613-1775 / 016)838-9394

사찰 양도 안내

● 위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소재 5분거리
● 대지 : 약 530평
● 건평 : 113평, 법당 (27평)
● 법전 요사(거실1, 방3), 식당, 주방, 요사 고시원(방 18개)운영
● 교통 · 전망있는 지정시가지의 산세좋은곳
● 가액 : 답사후 결정
031)643-9051
019)375-905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시내	● 위치 : 서울 근교(강남 40분)
● 대지 : 130평	● 대지 : 700평
● 법당 : 1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200평	● 요사 : 100평
● 양도가 : 15억	● 양도가 : 10억
● 역사가 깊은 도심사찰임	● 산세 및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 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감전동 대로변 시장 입구, 교통편리
● 3층 건물 3층 50평
● 가액 :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011)848-3647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 시청터미널에서 5분거리, IC에서 10분거리
● 2층 건물중 2층 60평 방3개, 법당, 화장실, 거실
● 삼존불, 약사여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지장탱화,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시설비 2천700만원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55)385-0868
011)9354-4950

사찰 안내

● 위치 : 진주에서 15분거리 현대식 2층 새건물
● 대지 : 약 170평, 법당 17평, 요사채 50평
● 삼존불, 아미타불 400불 모셔져 있음
● 방5개, 주지실, 욕실, 현대식 주방
● 교통편리, 주차시설 약 10대 보유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7)548-598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에서 가까운 5분거리 (시내버스 2개노선 인접)
● 대지 : 138평
● 시설 : 인법당 20평 요사채, 주지실 약 40평
● 개금3존불 부처님 봉안
● 가액 : 융자 6500부담하고 1억6천만원
※꼭 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11)825-1662

포교당 안내

● 부산 금정구 장전2동 588-19(식물원 앞)
● 평수 : 40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화장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2700만원
051)516-3374/011)598-8673

사 찰 (토 굴) 안 내

●위치 : 경북 고령	● 대구 근교
●부지 : 1200평	● 창녕
●법당 : 36평	● 고령
●요사 : 30평	● 기타지역 안내물건
●일반건물 : 150평	※다량 보유
●가액 : 3억 6천	
※대출 가능함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백안동(동화사 갓바위 삼거리 동네 30년된 사찰)
● 대지 : 130평 (추가구입가능한 200평 토지 접해있음)
● 민법당 및 방1칸/산신각/요사채2채, 방3개/외부욕실/외부화장실2/창고2개 기타등등
● 개금불상 및 후불/산신,용왕,지장,칠성,신장탱화/인등단,영가단/예불종/석등2개/호국기원시비 기타등등
● 가액 : 1억9천8백만원(절충 가능)
011)9678-108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
● 대지 : 120평
● 법당 목조 토기와 19평
● 가액 : 9천만원
016)849-5989

사찰부지(급)안내

● 위치 : 서산시 가야산(해미IC 5분)
● 산세 수려. 전망 좋음
● 부지 1500평중 600평 사찰허가 토목공사 완료. 조경, 전기, 자연수, 자연석 큰돌 많음
● 가액 : 2억원
017)341-9967
017)341-6969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내. 2층건물
● 대지 50평, 건평 50평, 법당 50평
● 후불, 칠성, 신중, 천수천안, 산신, 용궁, 문수법불 탱화
● 지장보살 동불, 천수천안관자재 동불, 삼존불 모심
● 보증금 2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3700만원
052)232-5939
011)824-5939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2천5백만원, 월 120만원
보증금 +시설비 : 6천만원
※ 삼존불+약사여래+지장보살, 1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도시가스 시설완비
02)444-3957

사 찰 (토 굴) 안 내

● 위 치 : 경기화성시	● 위 치 : 이천	※ "급" 구함
● 부 지 : 146평	● 부 지 : 2600평	● 위 치 : 서울및근교
● 법 당 : 15평(임)	● 법 당 : 25평	● 가 액 : 4억~10억가량
● 요 사 : 20평	● 요 사 : 90평	의토굴및사찰
● 가 액 : 6천만원	● 가 액 : 9억원	전화상담 환영
	● 특 징 : 산세좋고 주차 100대 가능	

◈전국소재 사찰 · 암자 ·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참 인연됩시다 - 정인불사
서 울 ☎ 02)722-8968
대 구 ☎ 053)782-5504
휴대폰 011-707-8204
-(조계사앞 도장전각전문점 02)735-0750 정인사)-

암자 별장 안내

● 위치 : 마산 근교. 방각산 청계사
● 부지 : 1000평. 건평 80평
● 특징 : 교통편리. 계곡 명당 자리
● 가액 : 1억 7천만원
011)9328-8633

포교원(급)안내

● 면적 : 35평(공양간 별도)
● 전세 3천5백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장엄 화려함, 즉시 법회 가능
● 주지스님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51)504-199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완산동 명상수련원 적지
● 시내 10분, 금호강앞,농사가능
● 대지 : 1400평
● 가격: 보신후 절충,전세도가능
● 법당 : 30평, 방3칸, 공양간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절충 가능)
011)430-0655
011)718-3524

사찰 안내

● 위치 : 관악구 신림6동
● 대지 : 6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2평
● 가액 : 평당(대지) 700만원
● 시설비 : 집기포함(답사후 절충)
011)9637-2632

사 찰 (급) 안 내

● 위 치 : 경 북
● 대 지 : 600평
● 가 액 : 6억원
011)9851-7263

사 찰 안 내

● 위 치 : 포항칠포	● 위 치 : 부산	● 위 치 : 사천 곤명
● 부 지 : 80평	● 부 지 : 400평	● 부 지 : 7,300평
● 법 당 : 32평	● 법 당 : 25평 (인법당)	● 법 당 : 28평
● 요사채 : 37평		● 요사채 : 57평
● 가 액 : 2억	● 가 액 : 3억	● 가 액 : 4억
※바닷가 별장형 암자	※ 산복도로위 산속암자	※ 여법한 교외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0평
● 임야 : 2000평
● 가액 : 9억원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9338-299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남 압구정동
● 평수 : 약 30평
● 법당(삼존불,산신각)탱화, 방 , 거실, 살림집기
● 대상인 : 유발스님, 법사, 철학인, 보살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2)3444-9335
019)9138-4879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포천군
● 대지 : 약 205평 자터
● 법당 28평
● 산신각 4평
● 요사채 28평
● 조립식 건물
● 창고 6평
● 가액 : 매매 6천만원(절충 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700만원→2000만원(꼭 하실분만)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자세한 문의사항 만나서 상담. 전화요망
031)531-5328

임야 안내

●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산수가 수려함
● 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하고 국도 1호선 4차선 도로에서 500m지점 호남고속도로 옆
● 면적 : 25,195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종중납골당, 가족묘지, 사회복지법인, 실버타운, 정신요양병원, 연수원으로 적합
● 특징 : ① 계곡이 흐름 ② 전설에 나오는 갈애바위 하단에 위치 ③ 전면에 저수지가 있음 ④ 정남향
● 가액 : 평당 11,000원
011)647-3500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여수시 돌산읍내105번종점(바닷가 옆)
● 대지 : 507평, 법당 (2층), 28평(1층) , 방 2개
● 요사채 36평, 공양간 및 방
● 가액 : 2억 3천만원(조정가능)
● 전, 월세 가능
011)609-1106
011)9611-2717
야간 : 062)529-2717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동 內
● 대지 200여평, 건평 53평
● 법당 24평, 방 4, 주방 식당 13평, 화장실
● 가액 : 12억(전세 2억)

* 최근 신축한 단아한 목조건물 임.
성북동의 조용한 명당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02)745-6939 / 011-244-208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명륜동 전철역 롯데백화점 5분거리
● 평수 50평, 5층건물에 4층 현대식 건물. 주차장 완비. A급시설.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절충 가능)
051)556-3312
016)549-8357

암자 안내

● 위치 : 칠곡군, 왜관,구미시 중간지점
● 임법당 20평, 연꽃연못 100평 정원밭 200평. 합 320평
● 옆산 사용 가능 2천평
● 가액 : 9천 5백만원
017)813-9126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943. 준 유원지
● 대지 200평, 전 500평. 산장(돌과 나무집 30평)방3개, 거실,다락,모두 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54)262-6673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임법당 1, 주방1, 방 2개
● 가액 : 5천3백만원 (집기일체 포함)
011)462-5275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상가 4층건물 3층
● 법당 35평(방2, 화장실,공양간)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절충 가능)
● 특징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1)9534-28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 계산동
● 신축빌라 24평
● 내집마련 겸 포교당 적합
● 가액 : 융자안고 2300만원
● 권리금 200만원(집기일체 포함) 몸만 오시면 됨
032)541-9428
011)9642-120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대로변
● 사정상 급매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권리금 1천만원
053)566-8203
0502)104-300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해수욕장 도보 5분거리 해운대, 울산 20분거리
● 2층 단독건물 (2층법당,1층 요사채)
● 평수 : 총 44평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가액 : 1천만원, 월 35만원
※ 스님 급한 사정상 양도함
051)723-1182
017)802-3290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최고의 위치)
● 3층건물중 3층 전체 (65평)
● 법당, 종무소, 화장실, 방, 상담실, 사우나실(최고의 시설)
● 보증금 : 3천만원, 월세 100만원
● 시설비 : 3천만원(시설완벽)
016)9744-131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칠곡3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 소재 조계종포교원
● 4층 신축 건물의 4층(100평)
● 법당1 : 40평. ● 승방2 : 총 12평
● 후원채 수각장 : 총 12평. ● 해우소 기타..
● 보증금 6천만원(월세50만원),시설비 2천만원
053)326-43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 전철역 부근
● 평수 : 40평
● 법당, 방2개, 주방 1개
● 전세 6천 2백만원(시설비 포함)
● 즉시 법회 가능
016)9590-9095
02)3216-1118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파계사에서 차로 3분거리이며, 대구은행 연수원 맞은편 산속 800m에 위치한 순환도로 위쪽에 있음
● 산세는 '금계포란형국'임
● 가액 : 평당 120만원, 평수 662평
야간 054)975-5934
주간 011-546-5934

사찰(급)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 부지 : 260평
● 대웅전 24평, 지장전 5평, 산신각 2평, 용왕전 0.5평
● 주지방2, 종무실1, 공양실 大 1, 小 1, 기도방 1
● 가액 : 4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1)9124-8489

가족묘지터안내

● 위치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 면적 : 3,300평(국도변 인접)
● 지목 : 임야(산소용지로 최적)
● 특징 : 팔당호반의 최고의 명당, 정남향
● 가액 : 평당 30만원(가격 협의 가능)
016)235-7373

포교당 안내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4층건물중 3층 30평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 방1, 주방,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지금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 집기포함 2천5백만원
011)9852-8386 / 051)782-9386

백종과 공양미 삼백 석

문 며칠 전에 절에 가서 하얀 영가등을 도량에 설치하는 운력을 스님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곱고 하얀 등을 하나하나 달 때마다 부족한 저를 있게 한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던 심청이의 눈물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던 심청이처럼 저희 불자들도 해마다 다가오는 백종을 어떠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지내야 조상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요?

성심으로 지극하게 불을 밝혀야 묵은 빚 갚고 햇빛을 줄 수 있어

답 공양미 삼백 석이라 그러는 건요, 과거심과 현재심과 미래심이 한데 합친 일심으로써 공덕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올 것이나 지금 현재 모든 마음이 한데 합쳐서 현재의 내 마음으로써 물질과 더불어 같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공덕이 되게 하지 못한다면 삼백 석 아니라 삼천 석이라도 그것은 공덕이 아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공생하고 있고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하고 있다는 말을 가끔 하죠. 그러니깐 그것이 그렇게 우주와 더불어 나와 더불어 일심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져야 그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스님께서 너는 삼백 석을 시주를 해야만이 그것이 공덕이 돼서 너의 아버지 눈을 뜨게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것이 진짜로 공덕이 돼서 우주간 법계에서 서로가 마음이 돌아서 한마음으로서 책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 모든 하늘의 이치나 일체 신들, 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더불어 무수한 능력이 시주하는 사람에게 일심으로 한꺼번에 한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들렸다는 얘깁니다. 우주가 들리는 공덕을 지었으니 그 어찌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취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몸이 죽으리만큼 마음이 지극했을 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에 빠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서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눈을 뜨게 한 거지, 그 몸이 죽어서 눈을 뜨게 한 건 아닙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마음의 시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갸륵하고 아름답고 정성이 지극한, 부모를 위한 정성이, 지극한 마음이 자기를 바로 쥐었기 때문에 살린 것입니다.

자식을 기를 때,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길러지고 또 길러보시고 또 지금 현재 나서 기르고 이러는 분들도 숱하게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뱃속에 넣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부모를 생각할 때에 낳아준 것만이 공이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길러주는 은혜, 첫째 뱃속에 넣고 만 9개월을 지내는 그 은혜도 수월치 않습니다. 또 낳았을 때에도 낳아서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하고 걱정을 하면서 자기의 성치 않은 몸을 이끌면서도 어린애를 들여다보고, 또 이것이 금방 나서 잘못되지나 않나 또는 병이나 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몸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하면서 만지는 그 은혜는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해 보신다면 참으로 은혜라는 것이 생각할수록 한이 없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젖은 기저귀를 빼고 마른 기저귀를 끼워주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는 길러주지만 아버지는 보수(保守)를 항상 태양과 같이 그렇게 내려다보시니 양면이 다 길러주십니다. 그뿐인가요? 오줌을 싸서 젖으면 그것을 빼서 자기가 뭘 깔고라도 눕고 어린애를 또 자기 마른자리에 있는 요에다가 도로 옮겨 눕힙니다. 그럭하면서 기저귈 빼고 끼고 빼고 끼는 하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지마는 또 기르면서 나가 놀 때에 다치지나 않나, 또는 어디 구덩이에 빠지지나 않나, 애들하고 싸우지나 않나, 음식을 먹고 체하지나 않나 등등… 맛있는 거는 또 먹이고 맛없는 거는 자기가 걷어먹고 이렇게 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랑은 말도 못하죠. 어떤 부모든지, 나쁜 부모든 좋은 부모든 자기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한계가 없을 겁니다.

계다가 자식이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공부를 하는 데도 공부를 어쩌면 잘해서 우리 아들이 잘될까? 어디를 나가면 혹시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나 않나, 누구한테 매나 맞지 않나, 또는 나쁘게 돌아가지나 않나, 공부나 잘하고 있나,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나, 또 딴 데로 가고 있나, 병이 나면 어쩌나…, 항상 먹는 거든지 입는 거든지 모든 게 어머니의 정성이고 아버지의 정성이라.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장해 가지고 사회에 나갔던들 출장을 가면 출장을 가는 대로 잘못되지나 않나, 또 나가서 피곤하지나 않나, 홀홀 털고 돌아올 때는 얼굴을 쳐다보고 어머니가 눈치를 보면서 피곤해서 병이나 나지 않나, 또 회사에서 어떻게 뭐가 좀 잘못되지나 않았나, 장사를 하는 자식이라면 또 오늘 뭐나 좀 어떻게 팔았나, 그게 안돼서 상심이나 하지 않나 하고 걱정하면서,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리는 대로 몸이 너무 쇠약해서 그러지나 않나 하는 생각에 눈치를 항상 보면서 한시도 놀 사이가 없이 걱정을 해주시는 부모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나이가 먹어서 그 자식을 낳아도 어린애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사랑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칠석의 만남이 있어서, 만날 수 없었던 걸 만나서 사랑하면서 또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렇게 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목련존자는 어머니가 마구니 소굴에 있는데 그걸 건지려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문이 안 열리니까 부처님께 가서 말씀드리니 "네 힘이 부족하다. 그러니 더 길러서 문을 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마음의 힘을 길러 지옥문을 열어서 어머니를 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건질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성심으로 지극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랐는데 어떻게 갚아야 묵은 빚을 갚느냐는 얘깁니다. 그럼 자기가 묵은 빚을 갚을 때는 벌써 햇빛을 주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묵은 빚을 갚을 때는 벌써 햇빛을 자기가 주는 땝니다, 거푸 말하지만. 자기가 묵은 빚을 갚지 못하면 햇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기 한 것만큼이니까.

여러분이 한생각에 착한 마음을 쓰고, 착하다고 해서 무능하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눈을 새파랗게 뜨되 겸손하게 뜨고, 항상 겸손하게 뜨되 착한 마음으로 한생각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요, 바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이고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햇빛도 잘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햇빛을 주는 마당에서 이자의 이자가 불어서 거기서 바로 묵은 빚을 또 갚게끔 만들어주는 자식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백종이라고 하는 날을 역력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부모의 눈치를 봐서 속이 상해 한다면 듣기 싫은 말씀을, 좋은 말이라도 자꾸 하면은 신경이 쓰이니깐 말을 하지 말고, 또 말을 해서 남이 좋은 말이라면, 거짓말도 좋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부부지간에도 언제나 좋은 말을 해주면서 나쁜 것은 안으로 굴려라, 업보나 인과응보나 죄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내가 만약에 놓을 수 있다면, 만약에 응달지고 꾸물꾸물하고 날이 궂은 거를 업보라고 한다면 그 업보는 금방 없어지고 볕이 납니다.

그런데 왜 업보가 있다고 해서 죄업을 사해 달라고 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그 습을 항상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업보를 지어놓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 없고 바로 그 업보를 그럼 내놔 봐라, 죄업을 사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놔 봐라 한다면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해서 한발 뛰어넘는 것을 잘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앞도 끊어졌고 뒤도 끊어졌고 오늘의 '나'라는 존재도 공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여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 · 유심 세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듯 정신과 물질 몸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으니 항상 하얀 백종이죠. 그러니 해마다 하는 거라고 백종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불을 밝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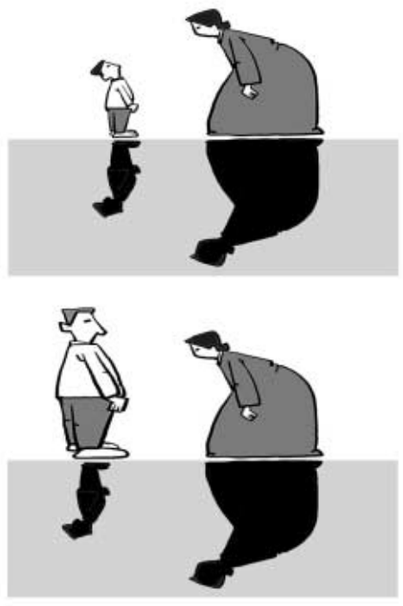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천차만별로 마음을 낼 수 있기에 인과도 업보도 붙을 자리가 없어

고가 붙을 사이가 없는 이유

문 병고나 업보에 의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여쭈면 스님께서는 고가 붙을 사이가 없기에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통이 있고 병고가 있는데 고가 붙을 사이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 '고(苦) · 집(集) · 멸(滅) · 도(道)' 사제법을 말하는데, 우리가 고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고라고 하니까 고인 것이지, 고가 있다면 어떤 것이 고인지 내놔 보십시오. 집착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집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남을 한 번 때렸으면 너도 한 번 맞는다.' 이것을 바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때렸으면 한 번 맞는다' 할 때, '아하! 때린 것도 나고, 내가 때렸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맞은 것이다.' 이럴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번 때려 보고 한 번 맞아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업보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사생의 문제가, 천차만별로 들어 있는 문제가 인연 따라서 모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깡통의 마음을 썼다면 깡통의 마음 차원을 가진 것끼리 인연이 됐을 거고, 내가 금의 차원이라면 금끼리 모여서 이 몸이 됐을 거고, 천차만별로 돼 있는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인연을 지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여러분! 무쇠 쪼가리를 주워다가 금방에 갖다 놓지는 않으시겠죠? 금을 무쇠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실 테고 말입니다. 보석을 넝마전에 갖다 놓지 않고 넝마를 보석전에 갖다 놓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각자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끼리끼리들 인연 따라 모여서 우리 이 몸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서, 수십억 마리가 들끓다가 하나의 지도자만 남기고서는 다 없어지고 바로 대장으로 뽑힌 그 물질 하나에 동일하게 같이해 줍니다. 그러면 임신이 되는데, 그 어린애가 자라는 대로 피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그 사람의 차원대로 같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는 대로 사생은 또 들어가는데 인연 따라서 차원대로 가서 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인과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업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 그걸 구태여 업보다, 인과다, 고다, 이런 이름을 붙이지 말라 이런 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인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내가 금이라면 바로 금의 인연으로 모일 것이고, 또 무쇠라면 무쇠의 인연을 가지고 자식이 태어나거든요. 본인이 무쇠기 때문에 무쇠의 인연이 오는 거죠. 금이라면 금이 올 테구요. 그래서 무쇠나 깡통이 서로 부딪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듯이, 한집안 가족이 서로 괴로움을 주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렇고 벌레들도 그렇고, 화생이든지 습생이든지 태생이든지, 모든 게 다들 쫓고 쫓으며 잡아먹고 잡아먹히면서 피를 흘리며 서로가 부딪치고 우는 이러한 것이 아마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벌레의 세계는 벌레의 세계대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요.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각박하고 조금도 여유가 없는 인생살이 같습니다. 또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번 대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넝마라고 해서 넝마대로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다 업보다 그런 말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넝마라고 해서 계속 넝마로 그냥 있지 않고 재생하는 대로 딴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오고, 역시 무쇠도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아궁이 뚜껑이 됐다면 아궁이 뚜껑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딴 걸로 모습을 해 가지고 또다시 나옵니다, 재생이 돼서 말입니다. 인간도 역시 요 모습으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갑니다. 이 이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업보가 없다는 생각과 있다는 생각 중에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업보가 없다' 해도 틀리고 '있다' 해도 틀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 내는 거는 천차만별입니다. 만약에 천차만별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고가 있고 고정됨이 있겠지마는, 우리가 천차만별로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도 인과도 업보도 거기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거, 만나는 거, 오고 가는 거, 먹는 거 모두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공(空)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거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세울 게 없는 것이 바로 진리며, 부처요 법신(法身) 화신(化身)이며, 이런 것이 종합돼서 삼위일체로 회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림살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카세트에 과거에 수억겁을 거치는 동안 모습을 바꿔 가면서 화해서 살던 얽히고설킨 그 습이 모두 감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짊어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각본대로 카세트에서 솔솔 풀려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팔자 운명이라고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팔자 운명이 아니라 자기가 한 대로 나오는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고 알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나의 근본 주처인 참나가 현재 나를 다지고 다져서 가르치고 이끌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는 업보도 붙지 않고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공해서 건덕지가 없는데, 모두가 공해서 건덕지가 없는데 그 공한 자리에 붙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붙을 건덕지가 어딨으며 기댈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의심나걸랑 마음을 내놔 보십시오. 마음이 있다면 내놔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마음자리에는 붙고 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카세트에서 각본대로 나오는 그 자체에다 다시 새로운 것을 녹음시킨다면, 수억겁 동안 감겨 있던 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바꾸어 넣는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채우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는 그런 빈 그릇이 될 것입니다. 채워졌다 해도 틀리고 또 비웠다 해도 틀리니, 채워지면서 비워지고 비워지면서 채워지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여여하게 지금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본대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카세트에다 되놓는다면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쌓아 온 습을 다 놓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든 소 잡는 백정 노릇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 어떠한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놓고 돌아간다면 그 업보는 지옥고라도 다 무너집니다.

어떤 죄가 있더라도 놓고 돌아간다면 그 업보는 다 무너져

☞20면으로 계속

☞19면에서 계속

마음 아닌 마음과 길 아닌 길

문 『한마음요전』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마음 아닌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으면 우리는 한마음일 것이며 그 한마음 속에서 결국 모든 존재는 위대한 불도에 들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마음 아닌 마음과 길 아닌 길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 도리를 깨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답 사람들이 '마음, 마음' 하는데 마음이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 아닌 마음을 진짜로 써야 된다, 마음 아닌 마음을 항상 둘 아니게 써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우주 바깥을 벗어나든지 안에 있든지 지구 바깥을 벗어나든지, 세상 천지만물 자체가 생긴 것이 내가 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입니다. 천지의 근본이나 또는 태양의 근본이나, 인간의 근본이나 인간의 삶의 근본이 바로 내 한마음, 체도 없고 보일래야 보일 수도 없고 내놓으면 쥘 수도 없는, 빛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영묘한 내 영원한 불심 자체를 표현해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자체의 근본 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근본에 모든 게 들어 있고 그 근본에서 모든 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 내는 거는 천차만별로 마음을 낼 수 있죠. 24시간을 통해서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좋다는 생각, 밉다는 생각, 증오하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 온통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카락 수효만큼도 더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수효를 셀 수가 없듯이, 모래알을 셀 수가 없듯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생각을 했어도 없고 그러련만, 여러분은 생각을 해 놓고 그걸 착을 두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끄달리죠. 생각 한번 잘하면 그게 바로 생산을 해내는 건데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래서 내가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잘되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안되는 거는 주인공밖에 해결 못한다 하고 믿고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다면 양변이 다 거름이 돼서 그냥 넣기만 하면 없어지고 넣기만 하면 없어지고 그러죠. 수가 없이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이 여여하게 이 세상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몸 태어나기 이전 영원한, 그 콩 씨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잘 쓰면 한마음이 되어서, 체가 없는 마음이 오고 감이 없이 한마음이 돼 줘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잘못 쓰면 잘못 쓴 대로 배척을 당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한마음이 되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전부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움죽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들이 한마음이 됨으로써 육신은 거기에 호응을 해 주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육체도 호응을 안 해 줘요. 그러니 무의 세계에서,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지 않으면, 보아 주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법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지금 현상세계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 하나지만' 하는 건 축과 같다 이겁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든 연자가 돌아가든 뭐가 돌아가든 축은 움죽거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안의 여러분 축을 믿으세요. 축을 믿는다면 그 축에 의해서, 그걸 '심봉'이라고도 합니다만,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세상법이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주전체가 돌아가듯이 몸도 내 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은 마음을 만 가지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심으로 놓고 간다면 무명이라는 이름도 붙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은 보이는 거, 색상으로만 물질로만 치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걸 보면 금방 좋다고 웃고 즐기는데, 그게 없어졌을 때는 금방 울 것을 무얼 그리 좋다고 웃느냐는 겁니다. 금방 또 울 것을 뭘 그리 좋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아도 좋다고 할 게 없고 언짢아도 언짢다고 할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 반면에 모든 것이 내 잠재의식 속에 하나의 테이프 속에서 모든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가 내가 지금 현상계에서 살아나가는 그 자체를,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고 돌아간다면 과거의 인과응보나 유전성이나 모든 악보(惡報) 같은 문제들이 얽히고설킨 게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어저께 한 일을 생각을 계속하고, 어저께 한 것을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고 그런다면, 분간을 못하고 분수를 지키지 못한 채 건너뛰게 되니깐 물에 풍덩 빠지면 올고불고 야단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이자 불교요, 불교이자 생활입니다. 그 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느라고 49년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직껏 그 이치를, 길 없는 길을 우리가 발 없는 발로 광대무변하게 우주 천하 어디에고 아니 닿는 데가 없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참 자유인이 되라고 가르치셨는데, 오늘날까지 기복으로 헤매고 돈다면 이건 안 될 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능력을 길러서 내가 없는 허공길을 마음 아닌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우주천하 어디에고 닿을 수 있는
그런 참 자유인이 되세요

부처님과 나의 주인공

문 부처님의 주인공이나 저의 주인공이 마찬가지라 그러시는데, 부처님의 주인공은 무명을 일으키지 않는데 저의 주인공은 왜 무명을 일으킵니까?

답 무명이 달리 무명인가요? 그 도리를 모르니까 무명이지요. 무명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명이 붙지 않는 것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잠재의식 깊은 속에 만약에 녹음테이프가 하나 있다면, '일심(一心)이라면' 하는 소립니다. 공한 일심이라면, 자기 주인공 자체가 테이프라면 말입니다. 녹음이 된 데다가 다시 녹음을 하고 또 녹음이 된 데다 다시 녹음을 하고 자꾸자꾸 가면은 앞서의 녹음한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다면 그것은 무명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놓고 가는 건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이라는 것도 이름을 붙여서 무명이지, 무명이 없으면 부처를 이루지 못해요. 망상이 없으면 부처도 이루지 못합니다.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를 이루겠습니까? 그럼 목석이고 송장이지! 또 생명 근원, 뿌리만 있다면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예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면 위로는 부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라는 걸로만 듣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넓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몸 하나를 놓고 축소해서 작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위로는 참자기 자체, 참자기를 존중하면서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를 올바르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아야 남도 올바르게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행동이 발라야 남들도 스스로 "저 사람 정말 배울만 해! 말과 뜻과 행이 올바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될 때, 하나라도 어긋날 때 그것은 업보가 되고 유전이 되고 바로 무명이라고 이름 해서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명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부처라고 붙일 것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고 돌아가려니까, 돈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고 또는 우리가 물건에 이름을 붙여 놓고, 이름을 불러야 되겠으니까 그런 거죠. 어린애를 낳아도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라 해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름을 붙여놓은 것뿐이지 이름이 사실은 그 사람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그 이름을 대동소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했다는 얘깁니다. 그거고 저거고 다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나쁜 마음이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 좋은 마음이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이 나오면 좋은 행위를 할 것이고 나쁜 마음이 나오면 나쁘게 행을 할 것이니까 모든 것은 자기 참 주인공에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믿고 물러서지 않고 거기다 관하면서 그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놓고 알면 아는 대로 거기다가 관해서 놓았을 때, 비로소 참 생명수의 맛을 흠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 풍파가 이렇게 많고 병이 많아서 죽겠는데, 급해서 죽겠는데 무슨 그렇게 주인공을 찾고 주인공에 전부 맡겨 버리라고 그러나? 아니, 난 지금 당장 급한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싱싱하면 가지도 싱싱할 것이고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파리도 싱싱할 것입니다. 이파리 썩고 가지가 썩고 그런다고 해서 애를 쓰지 마시고 뿌리만 싱싱하다면 가지나 이파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싱싱하게 아주 푸르를 것입니다.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문 얼마 전부터 내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는 입시발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 정성을 들이고 지극하게 마음을 내는 것을 스님들로부터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정작 입시에 사달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예민해진 심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합격으로 이끌 수 있는지요?

어떤 일이든 자기 주인공을 믿고 자기 주인공에 맡기라고 가르쳐야

답 그러고 보니 얼마 안 있으면 학생들 시험 볼 때가 되었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내 한생각이라고 할 때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할 때도 '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주인공을 믿고 자기 주인공에다 맡기라고 하십시오. '네 심부름을 하려면 네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거기 맡기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의 영원한 뿌리는, 마음의 씨는 보이지도 않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마는 저런 나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는 것을 일러 주십시오.

알고 이해가 가야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친구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나무와 그 뿌리가, 뿌리를 뗄래야 뗄 수 없고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근본 뿌리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니까요.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바로 주인공이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러니 때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러고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오. 주인공! 합격되게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고 겉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 누가 끌고 다니는데요? 자기 운전수가 없으면 차는 그만입니다.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파워를 일으켜도 자기 육신은 쓰러져요. 그런데 자기라고 그렇게 내세울 게 뭐 있어요? 아니, 간장 공장만 파업을 일으켜도 그냥 쓰러지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그럴 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간장 공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 피 공장에서도 고장이 나면 백혈병이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모든 병 자체가 바로 업식 속에서 파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기 뿌리에서 흡수해서 가지로 올려 보내는 거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영원한 자기의 뿌리인 주인공에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병고도 그렇고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재료니까, 시험 합격 하는 것도 반드시 거기에 놓고 '너만이 합격하게 할 수가 있다. 합격하게 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네 심부름 하게 하려면 합격되게 해!' 하고 진실히 그렇게 믿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사람' 이러는 거는 '부처님' 이러는 거와 같아서, 전체 한데 합쳐진 것이 '사람'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가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한데 모여서 형성된 형체를 바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침체해서 돌아가는 거라든가,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먼저 잡아야지 육체가 잡아지는 법입니다. 자식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부모자식지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달이 돼서 같이 의합해서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화목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몸을 잡는 법이니까요. 자기한테 가설이 돼 있으니 자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해 나가면서 도를 구합시다.

도를 구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을 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켠다고 해서, 거기다 놓는다고 하면서 말을 막 하고 악을 쓰고 신경질을 막 부리고 속을 북북 긁어 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나가서 자고 들어온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거나 딴 짓을 마구 한다거나 이런다고 "너 이놈의 새끼, 뭐 어쩌고 어쩌고…" 하고 도로 뛰쳐나가게 하는 말을 그렇게 합부로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공에다 맡겨 놓는다는 건, '이거는 모든 게 내 탓이로다.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내가 낳고, 내가 인연을 맺었고, 또 부모로부터 내가 나와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하고 부딪침이 있고 나하고 인연이 된 거지 내가 없는데 어찌 인연이 됐겠나. 그러니 모든 게 내 탓이로다.' 그러고선 '모두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올라오는 어떤 생각도 돌려서 다시 자기한테 다 내려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 주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그쪽까지도 불이 들어옴으로써 나한테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화합심이 생기고, 자식들도 그 마음이 바뀌어서 아주 출중한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기쁘든 언덕을 넘든, 그 달콤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지혜 · 깨우침의 동반자… '현대불교'와 인연을…

현대불교를 권하는 이유

조 인 숙 (40, 직장인,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불교는 열려있는 신문이라서 좋다. 종교지가 갇혀있기 쉬운데, 현대불교는 다양한 문화현상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불교적으로 해석해 세상에 대한 바른 안목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인연있는 불자들에게는 주저없이 구독을 권하곤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 삶, 사람'과 '시방세계'인데 평범한 불자들의 잔잔한 삶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읽을 거리가

큰스님 법문 등 불심 절로 생겨

되고 있다. 다양한 문화 소식과 파격적인 컬러 만화들, 불교 내외를 넘나드는 출판 정보, 차문화와 레저면 등은 불자가 아닌 분들도 관심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큰스님들의 법문과 수행 정보도 돋보이는 지면으로 보인다. 특히 재가자들의 수행현장이나 보살행 등을 취재해서 보여주는 것은 불자들의 발심을 유도한다. 일상생활을 하는 재가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진솔하게 다가온다. 진지한 재가자들의 공부 모습은 늘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유 월 옥 (49, 주부, 경기도 김포시 고척면)

2001년 나는 현대불교에 연재되는 '감성으로 보는 절'을 기다리는 재미로 살았다. 신문이 도착하면 손꼽아 기다렸다가 펼쳐 보는 지면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마 많은 현대불교의 독자들이 알고 있으리라. 물론 그 연재가 끝나고 난 뒤에도 늘 읽고 싶은 코너들이 이어졌다. 큰스님의 법어를 비롯한 대형 기획물들을 챙겨 읽는 재미는 현대불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일 게다.

구독 권유하면 '고맙다' 인사 받아

일간 신문이 주는 맛과 현대불교가 주는 맛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자신 있게 현대불교를 권한다. 그 맛이란 다름이 아니라 깨우쳐 가는 삶의 즐거움이다. 나는 내가 구독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구독을 권유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좋은 인연을 지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그 인사를 받는 순간의 기쁨 또한 현대불교가 내게 주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불교와 인연을 맺길 기원드린다.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 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2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387부의 신문이 군장병 · 교도소 수형자 · 군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만 여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참여방법: 자동이체는 관리부로 전화 신청하시고,
온라인 입금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입금 후 전화주세요)

■법보시 동참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하나은행 111-21647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한빛은행 082-090001-13-70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관리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팩스(02)737-0697

"법보시 큰 힘입니다"…현장의 목소리

지난날 아픔딛고 재생의 길에 큰 도움
출소하면 저보다 못한 사람위해 봉사

■청송교도소
○… 뒤늦게나마 불교에 귀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더욱더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훗날 사회와 사랑하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면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절에 다니고 수행정진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여주교도소
○… 보내주신 신문은 여러 동료들과 돌려 가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은덕에 누가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 잘해서 이다음 출소하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어렵게 지내고 소외한 모든 분들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여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신문은 여러 불자님들과 돌아가며 감명 있고 보람 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에 항상 감사하며 또한 이곳 수용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불자로서 모르는 것을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저보다 못한 여러 불자님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주치료감호소
○… 변함없이 잊지 않고 보내주신 신문을 느끼듯 진정 감사하고 고맙고 기쁘게 받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보은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보내주시는 정성을 가슴에 담고 귀한 내용들을 되새기고 주위에 불자들과 돌려보며 크신 뜻과 은혜로움에 감사해하며, 흐트러지고 방황하는 제자신의 진아를 위한 노력을 다 하면서 그 행의 지료로 보내주고 계시는 현대불교에서 참된 도를 갈구하고 있으며 조금씩이나 해갈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구 분		발 송 처	보시 부수	보시 부수 누계
군부대	군법당	369	414	90,642
	국군병원	9	11	9,897
교화기관	교도소, 교정청	28	207	57,751
	구치소, 감호소	12	45	19,621
	소년원, 감별소	16	48	9,600
복지단체	양로원	24	24	7,340
	아동복지시설	25	25	10,921
	장애인복지시설	11	11	4,737
	청소년복지시설	16	16	6,658
	사회복지기관	130	130	57,228
	불교병원	9	61	19,358
경찰	경승실	177	177	68,435
	경찰병원	2	6	1,782
기타	개인	52	52	41,899
	단체	132	160	27,230
총계		1,012	1,387	433,099

현대불교 법보시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감영자,강갑순,강경중,강대덕행,강덕순,강말숙,강명자,강미숙,강미영,강민정,강병현,강북복지,,강성욱,강수대,강수천,강숙희,강순영,강순희,강신옥,강신택,강영신,강옥구,강용희,강유미,강윤,,강은영,강인성,강인숙,강장옥,강정기,강정숙,강정인,강정화,강정훈,강정희,강종남,강지숙,강춘계,강태근,강태복,강태화,강현숙,강황진,경남지원,경순자,계미영,고경옥,고계환,고광진,고,현,고순진,고영배,고영이,고옥영,고용순,고은주,고재선,고재흥,고필선,고헌사,공덕화,공정심,공,근,곽동희,곽만열,곽명순,곽성순,곽영호,곽우진,곽중경,곽춘자,구길자,구명보,구본준,구수연,구영란,구은지,구진모,구진화,구진희,구필회,권갑납,권경숙,권계순,권구현,권동희,권두상,권,수,권명아,권명희,권미경,권복연,권복자,권복현,권상원,권성행,권순,권순령,권순혁,권연지,권영분,권영상,권영숙,권영현,권오석,권오웅,권오응,권오진,권옥순,권윤중,권은경,권정숙,권진,,권차순,권초지,권춘순,기현정,김가영,김갑순,김강산,김강웅,김건옥,김경,김경선,김경수,김,숙,김경순,김경애,김경열,김경옥,김경해,김경훈,김경희,김광숙,김광순,김광태,김교안,김국중,김,남,김규경,김규성,김규순,김규정,김근삼,김근영,김금순,김기성,김기준,김길육,김길운,김나령,김남경,김남석,김남숙,김남영,김달순,김대현,김덕애,김덕임,김동숙,김동자,김동찬,김두영,김,남,김득자,김록인,김말선,김명덕,김명란,김명옥,김명자,김명화,김명훈,김명희,김무재,김문자,김문종,김문주,김미란,김미래,김미명,김미선,김미순,김미연,김미옥,김미정,김미진,김민수,김,옥,김범수,김병서,김병일,김병주,김병철,김병훈,김복남,김봉란,김봉애,김봉윤,김봉해,김비연,김상규,김상덕,김상림,김상병,김상분,김상순,김상호,김서분,김석교,김석순,김석용,김석자,김,남,김선아,김선영,김선화,김성경,김성민,김성순,김성자,김성진,김성혜,김성희,김송자,김수영,김수옥,김수정,김수희,김숙량,김숙자,김순경,김순금,김순남,김순녀,김순덕,김순련,김순령,김,분,김순식,김순옥,김순자,김순현,김순희,김승수,김승재,김승지,김시열,김식자,김신엽,김애란,김애리자,김애자,김양순,김여경,김연득,김연봉,김연수,김연옥,김연자,김연희,김염순,김영란,김영례,김영만,김영배,김영범,김영삼,김영석,김영숙,김영순,김영식,김영아,김영애,김영예,김영,,김영자,김영희,김예임,김옥,김옥경,김옥남,김옥선,김옥순,김옥정,김완순,김외선,김용구,김,법,김용순,김용재,김용준,김용철,김용호,김원배,김원순,김원용,김원우,김월용,김유학,김윤관,김,남,김윤성,김윤자,김윤중,김윤환,김윤희,김은세,김은식,김은영,김의식,김의종,김익중,김인성,김인숙,김인태,김인희,김일동,김자경,김장복,김재방,김재철,김정덕,김정란,김정렬,김정선,김,숙,김정애,김정옥,김정원 ,김정은,김정이,김정자,김정주,김정희,김제철,김종,김종미,김종보,김종애,김종옥,김종일,김종필,김종훈,김주곤,김주식,김주원,김주현,김준만,김준모,김준엽,김준,,김준희,김지숙,김지영,김지은,김지헌,김지혜,김지환,김진근,김진선,김진영,김창수,김철수,김춘자,김춘호,김춘화,김춘희,김치훈,김태현,김태훈,김택곤,김학수,김한나,김헌,김현수,김현숙,김현우,김현진,김현화,김형운,김형창,김형철,김형태,김혜경,김혜기,김혜숙,김혜옥,김호,김호영,김호종,김홍조,김화남,김화수,김환수,김환영,김효래,김효례,김효상,김효성,김효숙,김희남,김희,,김희수,김희순,김희주,나관숙,나귀례,나무꾼,나민자,나숙희,나순옥,남광스님,남국석,남국현,남선자,남성수,남성진,남수경,남수미,남수진,남여원,남유선,남일우,남정애,남종진,남철수,남,자,남현우,노만호,노선헌,노성일,노성재,노순남,노실호,노영애,노유택,노윤택,노진희,노향순,노혜숙,단영숙,덕성암 ,덕운화,뎡형관,도옥희,도재권,도태순,동사섭,류경훈,류동연,류봉수,류영란,류재규,류정님,류정로,류정숙,류정오,류조형,마정혜,마진호,맹진현,맹한승,명세정,명재,,모영희,목포지원,무명,문경숙,문명순,문병기,문상철,문선희,문숙자,문숙희,문순조,문재근,문점숙,문정강,문정희,문필금,문필수,문형주,문화자,민경애,민경주,민병용,민복순,민성곤,민소,,민승자,민응식,민정원,민진옥,민하식,민혜원,바로보인,박갑덕,박강숙,박경남,박경래,박경선,박경수,박경숙,박경애,박경옥,박경자,박경진,박경화,박경환,박경희,박공임,박광수,박광용,박,호,박구숙,박귀남,박금숙,박기규,박기숙,박기순,박기정,박길순,박남순,박남옥,박내순,박달화,박대섭,박득수,박만규,박말수,박말이야,박명의,박무순,박무주행,박문선,박미경,박미정,박배,,박병욱,박병주,박보성,박복자,박봉기,박봉순,박봉주,박분름,박상규,박상기,박상섭,박상호,박석열,박선애,박선영,박성례,박성수,박성준,박성진,박세광,박수영,박수진,박숙경,박숙자,박숙,,박순덕,박순득,박순애,박승희,박신근,박신영,박양임,박양자,박연숙,박연신,박영미,박영석,박영숙,박영신,박영애,박영우,박영준,박영진,박영철,박영춘,박옥경,박옥남,박옥이,박용무,박용,,박용숙,박용욱,박용자,박원규,박원희,박윤기,박윤식,박은미,박은숙,박은주,박익형,박인서,박인선,박장미,박재련,박재윤,박재진,박정산,박정상,박정숙,박정순,박정옥,박정자,박정하,박정,,박제원,박종두,박종래,박종실,박종원,박주연,박주원,박주찬,박주호,박준영,박준형,박준호,박지연,박진우,박진현,박진환,박징자,박찬,박찬연,박천혜,박철수,박철홍,박청길,박청자,박춘미,박춘봉,박춘자,박태규,박태수,박필원,박향옥,박현동,박현순,박현주,박형채,박혜경,박혜리,박혜,등,박혜숙,박혜정,박혜진,박화자,박화재,박희순,발형채,방금순,방명섭,방순자,방순학,방재순,배,숙,배광훈,배동금,배명호,배민화,배병진,배복희,배성호,배순자,배연수,배춘자,배현옥,배현주,백길수,백상준,백성옥,백양심,백옥남,백유선,백준기,백현기,백혜민,백혜원,법현스님,변미자,변영희,변인택,본원보시합,본원봉사모임,본원신도,본원영등포,본원익명,봉철웅,봉현주,부산신,회,부산지사,부산지원,분경희,사당5동법회,사랑방,상미옥,상현스님,서경자,서귀연,서귀희,서덕,,서말자,서말희,서명선,서미옥,서병학,서봉순,서부웅,서삼조,서성학,서순덕,서영주,서예숙,서옥경,서울월곡,서원석,서윤이,서의숙,서인교,서재영,서정숙,서준,서진,서춘건,서충우,서태승,서형관,석영수,석해월,선덕스님,선유진,선장재,선정호,선현자,설갑문,설정수,설지석,성경순,성,환,성명숙,성묘경,성민자,성영분,성재영,성필제,성호승,소진입,손광자,손금화,손명숙,손문엽,손,철,손미숙,손민호,손법천,손봉희,손상률,손순옥,손영실,손을선,손인아,손인화,손정숙,손정자,손진입,손혜숙,손화자,송경자,송광옥,송규환,송근정,송동호,송미숙,송미애,송방준,송복희,송,원,송성빈,송성의,송승현,송양숙,송연숙,송연희,송영근,송영애,송유정,송은경,송인영,송재업,송정구,송필재,신경희,신남선,신동호,신미향,신미환,신복순,신상균,신상섭,신성희,신수영,신,호,신순애,신순희,신시균,신영준,신영찬,신원민,신윤진,신장재,신재락,신재철,신정규,신조현,신진임,신진희,신창순,신택건,신현순,신혜경,신호용,신홍재,신희순,심경우,심공희,심광엽,심,회,심능희,심단희,심만희,심묘희,심법희,심보희,심성학,심숙희,심안희,심영애,심원식,심원회,심일희,심춘자,심향희,심현보,심현숙,심희주,안광기,안병노,안병윤,안성모,안순옥,안연미,안,근,안영선,안은희,안재연,안재웅,안진후,암영애,양기철,양병덕,양석호,양세욱,양연희,양영모,양영애,양은숙,양의군,양재호,양점순,양준원,양태환,양흥용,어종선,엄남주,엄정임,여상배,여,순,염흥수,영등포법회,영재한,오강호,오광자,오동규,오두환,오막순,오명자,오미덕,오미환,오,덕,오병현,오보광명,오분례,오상숙,오선희,오성종,오세철,오송준,오순자,오승종,오승훈,오신,,오영자,오영희,오정애,오종근,오주중,오주희,오지은,오진희,오창원,오창일,오창희,오학규,오헌승,오현규,오현자,오현희,오형만,오형희,오희숙,옥영식,옥천사,용무회,용산구법회,용환웅,우경애,우금식,우동렬,우상용,우지예,울산한마음,원영자,원정옥,위영란,유경자,유광수,유금열,유금자,유미양,유보향,유선재,유양상,유영미,유은경,유인묵,유자야,유재춘,유정연,유정용,유종,,유지호,유진옥,유춘수,유춘자,유호성,육성회,육성희,윤경애,윤경희,윤기석,윤기수,윤기원,윤기홍,윤미형,윤미희,윤병찰,윤병창,윤병혜,윤상문,윤석범,윤석완,윤성 ,윤순이,윤여형,윤영수,윤영숙,윤영자,윤옥현,윤옥희,윤인자,윤재경,윤정연,윤제학,윤종숙,윤준상,윤지웅,윤지은,윤,남,윤창섭,윤춘매,윤춘희,윤태원,윤향숙,윤현숙,윤희원,은경애,이강원,이강희,이건우,이건주,이경남,이경민,이경봉,이경숙,이경아,이경애,이경원,이경인,이경자,이경주,이계선,이관형,이,희,이교재,이구자,이군자,이귀숙,이귀순,이규대,이규만,이규환,이근기,이금순,이금주,이기수,이기오,이기철,이기향,이길복,이길순,이남심,이노마,이단식,이대섭,이덕의,이덕재,이동기,이,주,이동준,이동희,이두영,이명규,이명수,이명숙,이명순,이명자,이명준,이명훈,이명희,이묘연,이미경,이미나,이미애,이미자,이미정,이번택,이범규,이병진,이병태,이보경,이보편,이복동,이,성,이복순,이복임,이복희,이봉순,이봉우,이봉호,이부양,이분순,이산궁,이삼경,이상란,이상옥,이상윤,이석원,이석준,이선임,이성수,이성재,이송자,이수영,이수자,이숙희,이순교,이순덕,이,량,이순복,이순옥,이순임,이순자,이순천,이순호,이순화,이순희,이숭숙,이승윤,이승은,이승훈,이신궁,이신정,이신호,이아리,이애자,이양자,이양희,이억수,이연규,이연보,이연애,이연옥,이,경,이영란,이영민,이영숙,이영순,이영자,이영조,이영진,이영희,이오석,이옥색,이옥순,이옥영,이옥형,이옥희,이왕구,이왕진,이용법,이용진,이우순,이우승,이우진,이우환,이운자,이운화,이,상,이유순,이윤옥,이은구,이은숙,이은주,이은진,이은화,이은희,이의남,이익수,이인상,이인숙,이임순,이장연,이장혁,이재국,이재숙,이재윤,이재화,이점자,이정녀,이정례,이정리,이정수,이,숙,이정순,이정안,이정임,이정자,이정학,이정헌,이정혜,이정희,이종돈,이종락,이종석,이종섭,이종성,이종숙,이종진,이종철,이준만,이준석,이준섭,이준재,이준희,이중근,이지선,이지영,이,웅,이지은,이지형,이진경,이진선,이진수,이진영,이진우,이진철,이찬수,이창연,이창운,이창하,이창호,이창훈,이천희,이철규,이철주,이청,이춘근,이춘정,이태우,이태인,이태호,이태희,이판,,이필순,이필희,이한득,이한숙,이한희,이해섭,이해인,이향미,이혜옥,이현경,이현규,이현숙,이현실,이현안,이현양,이현주,이현호,이형신,이형호,이혜란,이혜숙,이혜옥,이호진,이화숙,이화,,이화주,이효순,이훈로,이희숙,인천신행회,임경희,임광기,임금지,임기남,임명옥,임명진,임문,,임선원,임선희,임소연,임영애,임영이,임옥빈,임옥재,임완숙,임용식,임용호,임우식,임인석,임재순,임정숙,임종구,임종미,임창건,임채임,임춘심,임춘희,임해순,임형대,임형준,임호신,임홍,,임효정,임흥빈,임희자,자)서울월곡,작재진,장금강심,장미,장미숙,장미순,장미옥,장성윤,장,승,장영남,장영순,장영찬,장왕자,장재원,장정,장정가족,장정숙,장정자,장정희,장축자,장태복,장,순,장해기,장현만,장현식,장혜선,장희숙,전갑일,전계연,전규백,전류정,전병임,전병제,전복순,전삼우,전수남,전수지,전순자,전순조,전승현,전연석,전연택,전영자,전위자,전유신,전유정,전,희,전인성,전인영,전인호,전정숙,전정순,전정애,전정희,전진희,전현수,전현진,정건재,정경남,정계영,정고비,정구순,정규열,정금관,정금란,정금자,정대자,정동순,정동한,정모아,정무영,정,식,정미경,정미련,정미향,정미형,정민아,정복순,정분선,정삼준,정상만,정상열,정성남,정성환,정수자,정숙남,정숙점,정숙정,정순자,정심화,정연경,정연봉,정연석,정연태,정연희,정영기,정,신,정옥녀,정옥찬,정옥화,정운경,정윤욱,정윤채,정은경,정의진,정인순,정인실,정인자,정점오,정정국,정정숙,정정순,정정자,정정희,정준호,정진욱,정차효,정창남,정창래,정픽준,정필수,정,순,정필준,정하석,정학선,정해정,정해택,정현동,정혜윤,정훈채,제숙희,제주보훈회,조경숙,조,자,조계희,조공옥,조귀자,조남섭,조남주,조동만,조명래,조명숙,조명식,조미,조미란,조미숙,조미순,조민우,조봉호,조분옥,조상호,조성국,조승근,조승우,조약식,조양자,조영석,조영숙,조옥,,조옥희,조원희,조유복,조윤숙,조윤호,조은미,조인규,조인자,조정현,조정훈,조진한,조칠제,조해연,조현애,조혜숙,조혜연,주경숙,주영란,주우순,주인공,주정숙,주정옥,주현순,주희숙,지경,,지로봉사모임,지순임,지연옥,지영화,지유미,지인회,지청인,지혜선,진갑일,진경상,진경수,진,현,진말련,진병웅,진수남,진수명,진영숙,진영화,진옥례,진욱상,진원중,진재영,진정임,차동호,차민영,차상환,차수항,차용옥,차정순,차현주,차희자,채희순,천미희,천병길,천복연,천상봉,천,해보살,천양우,천재경,천현숙,천화조,청무스님,청주교도소,최경근,최경락,최경자,최경진,최,례,최금철,최동예,최만례,최명희,최미숙,최미현,최범순,최병도,최병언,최병조,최병준,최복내,최,섭,최복순,최상철,최서윤,최석원,최선기,최선영,최성근,최성대,최성휴,최수현,최순옥,최심형,최영도,최영명,최영봉,최영숙,최영희,최우수,최원주,최윤정,최은희,최인숙,최인자,최재두,최,철,최정근,최정기,최정림,최정문,최정민,최정희,최종열,최종원,최주현,최준성,최준영,최진봉,최춘섭,최하규,최학우,최행규,최행선,최현민,최현주,최형선,최혜라,최호자,최효자,최희원,추,희,취업과(고재선),탁순례,태국지원,태순덕,표혜명,하근수,하금자,하명자,하미경,하미희,하,남,하선희,하성호,하숙진,하순애,하순임,하은영,하재웅,하재한,하정숙,하정희,하혜경,하흥용,한,규,한경호,한국여성불교,한기늠,한기선,한기영,한기준,한동원,한마음사랑방,한마음선원,한,숙,한미순,한방근,한병소,한상현,한세진,한수화,한숙희,한순예,한순옥,한순자,한승찬,한아름,한,지,한영욱,한영찬,한윤경,한은섭,한인식,한임련,한정석,한정선,한철희,한춘영,한태희,한화윤,한효심,함광점,함광접,함기석,함명익,함삼수,함영숙,함지윤,허명희,허미옥,허상임,허석남,허,숙,허성국,허수자,허승자,허의숙,허재승,허재영,허점자,허정남,허정식,허정훈,허종환,허찬웅,허찬응,허태환,허학연,허희숙,현남순,현미숙,현불회,현수천,현월스님,현추월,혜월당,호소희,홍경욱,홍경화,홍명숙,홍민자,홍병숙,홍소순,홍순아,홍순일,홍영순,홍영호,홍인자,홍일표,황경,,황금철,황기용,황논철,황문희,황순수,황순심,황영분,황옥란,황옥석,황옥순,황옥자,황용숙,황의식,황인순,황인욱,황인형,황점숙,황정옥,황창영,황태숙,회복내,MS.NANA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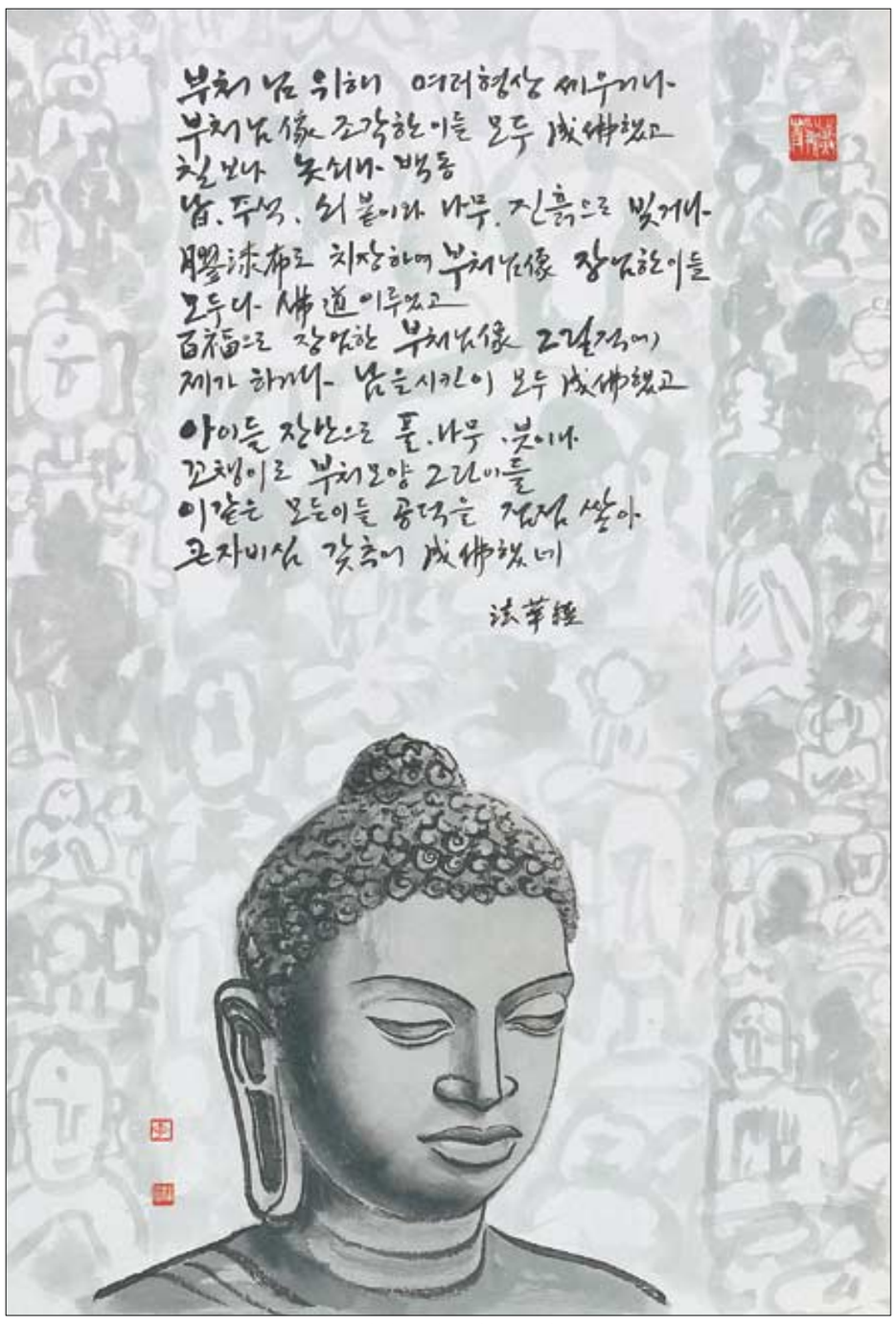
인도그림기행 13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처상 아닐까?

나를 닮은 붓다를 찾아서

(마투라 불상 소묘)

그림·글 이호신



◇마투라의 불상(64×94cm).

도판속 그리움으로 자생불 친견 대신

가장 인도적인 '마투라 불상' 명성은 여전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연암 박지원)

오후 1시경 국립박물관을 나서 쉬지 않고 야무나강을 끼고 달려 온 마투라. 145km를 달려 고고학박물관에 당도한 시간이 오후 5시 40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물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5시 폐관을 조금 연장해달라고 현지 가이드 라젠싱이 휴대폰으로 수없이 사정했건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인도인끼리 얼굴을 붉히고 일행 모두 허탈했다.

잠시 전 국립박물관에서 본 마투라 불상의 생생한 조우는 그리스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불상의 세련미와는 달리 자생불상(自生佛像)으로 인도인의 골격이 뚜렷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으로 남았었다.

따라서 이 자생불상의 연원을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마투라박물관의 불상친견을 두고 인도에 오기 전 자료를 뒤적이며 설레었던 꿈이 사그러질 판이다.

내부 행사 주간이라 내일도 문을 열지 알 수 없다는 절망속에서 다음 여정인 아그라로 향하는 어둠은 결국 회한의 길이 되고 말았다. 확인하지 못한 도판속의 불상(마투라 박물관 소장)이 불현듯 그리워지고 다음 기대로 지나쳤던 국립박물관의 마투라 불상이 내게 도로 눈을 감게 하며 지팡이에 의지하듯 기억을 더듬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힌두교 성지요, '크리슈나'의 탄생지로 비쉬누신(神)을 찾는 곳이 되고 있지만 초기 불상의 발생지로서 마투라는 여전히 그 명성을 잃지 않고 있다. 즉 숭가, 쿠샤나, 굽타왕조에 걸쳐 가장 인도적인 분위기의 불상이 조성된 자연조건이 있었다. 이 마투라 지역은 갠지스강의 지류인 야무나강 유역으로 간다라에서 편잡을 거쳐 내려와 갠지스강 중·하류의 마가다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했다. 또 인도 서남부로 가는 길도 이곳에서 갈렸고, 지금도 인도에서 4개의 철도 노선이 만나는 유일한 곳이다.

따라서 외부의 자극속에 자긍문화의 고취로 드러난 불상이 마투라의 특징인 것이다. 간다라 불상이 그리스 조형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마투라 불상은 순 인도적인 조형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최완수)

그 구체적인 도판(이주형, <간다라 미술> p145)을 살펴보면 꼭 어디선가 만나본 인도 청년 모습의 불두이다. 큰 눈망울에 곧고 넓은 코, 두툼한 입술에 둥근 얼굴이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으로 나발(머리모양)만 없다면 평범한 소년 얼굴 모습이다.

불상은 스투파와 법륜등의 무불상 시대에서 기원 후 1세기경에서 나타나는데 두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난 곳이 마투라와 간다라 지역이다. 마투라의 불교미술이 고대 인도미술의 기초위에서 등장한 반면 간다라 미술은 거의 전적으로 외래미술, 특히 서양고대 후기 미술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이주형, <불교미술> p38)

살펴보는 도판으로도 그 느낌은 현저한데 예컨대 마투라박물관 소장의 '보살명불삼존비상(菩薩銘佛三尊碑像)'은 육감적인 청년의 씩씩한 모습에서 자신감 넘치는 인도인의 얼굴이 느껴진다. 부처를 닮은 친근미를 표현함으로써 이웃 모두 하나가 되고 싶어한 까닭이 명문으로 새겨져 있다.

붓다라키타의 어머니 아모하이시는 자신의 절에 보살상을 만들어 모신다.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또한 불상의 형식을 살피면 마침내 협시인물(脇侍人物)이 등장함으로써, 삼존불상의 시원 양식이 되고 있다. 한편 '보살'이라는 칭호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개 마투라의 불상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유로서 살펴지는 것이다.

즉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붓다가 아니라 보살의 자비로써 누구에게나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노래를 지어 부처의 형상을 찬미하고 수도 없이 '자신을 닮은 부처'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부처님 위해 여러 형상 세우거나
부처님 상 조각한 이들 모두 성불했고,
칠보나 놋쇠나 백동
납, 주석, 쇳덩이나 나무, 진흙으로 만들거나
교칠포(膠漆布)로 치장하여 부처님상
장엄한 이들 모두 다 불도(佛道)를 이루었고
백복(百福)으로 장엄한 부처님 상 그릴적에
제가 하거나 남 시킨 이들 모두 다 성불했고,
아이들 장난으로 풀, 나무, 붓이나
꼬챙이로 부처 모양 그린이들.
이 같은 모든이들 공덕을 점점쌓아
큰 자비심 갖추어 성불했네.
〈법화경〉 (이운허 역(李耘虛 譯))

이 마투라 불상은 점차 초기불상에서 보이던 발랄한 소년의 천진성이 감소되고 웃음기 머금어 약간 감긴 눈과 과장된 입술 둘레선이 유도하는 신비로운 미소에 의해서 고요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변한다. 이 요소들이 마침내 세계조각 사상 가장 신비로운 인체표현을 구비한 굽타 불상양식을 이루어 냈던 것이다. 이 불상의 연원은 비단길을 따라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일본에 전해지는 대해의 물결속에서 서로의 표정을 달리하고 상징과 교리의 해석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간 것이다.

나그네는 불현듯 마투라의 불상속에서 인도인을 보았듯이 한국의 불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불상을 떠올리며 한국인을 닮은 부처상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진다.

올 해가 가기 전에 걸망을 지고 산사를 찾아 꼭 나를 닮은 부처를 만나고 싶다. 그리하여 마투라의 회한을 씻어 보고 싶다. 그래서일까. 지금은 도로 눈을 감은 채 마투라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있는 중이다.

lhs1957@lycos.co.kr



◇보살명불삼존비상(64×46cm).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파동명상수행으로 영통靈通을 하신 스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싣고 있습니다.

◎ 강원도의 각인사(033-661-6117)에 계시는 법민스님(011-379-6117)은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40대 중반의 여성 신도와 상담을 하게되었는데 그 신도는 남편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다가 얼마 전에 부도가 나면서 망해버렸고, 대학생인 아들도 가출을 해버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침부터 절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스님이 **파동명상요법**으로 그 신도를 깊은 명상상태로 인도한 순간, 그 신도는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댁의 작은할아버지영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댁 작은할아버지 영가는 두 눈을 부릅뜨고 나타나 호통을 치기 시작했는데 내용인 즉, 몇 년 전에 묘지를 이장할 때 자신의 다리 하나를 떨궜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을 했으며, 자신의 제사를 지내주지 않는다고 마구 노여워 했다(신도의 시어머니는 종교상의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손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우환이 깃들게 했으며, 신도의 시어머니를 동짓달이 되면 저승길로 데려가겠다고 예언했다. 그러나, 그 신도는 명상상태에서 본 사실을 강하게 부정을 하였고, 아무 조치 없이 시일이 지났다. 그런데, 동짓달이 되자 신도의 시어머니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난 4월 17일에는 병상에 가만히 누운 채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한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일시 :** 8월 3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可)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범어사 내원암, 농아불자 40명 수련회

"귀대신 눈으로 법문 듣지요"

조석예불·법문·찬불가등 수화로 진행

"첫 참가…발우공양, 참선 등 유익했어요"

소리가 없다. 여느 수련회와는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 수련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삼법인, 팔정도, 육바라밀 교리공부 시간, 스님은 수화로 설명했다. 스님이 팔정도를 질문하자, 몇몇 참가자들이 수화로 대답했다.

부산 범어사 내원암(주지 경운)에서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전국 농아 불자 수련회. 소리가 들리지 않고, 언어를 소리로 표현할 수도 없는 농아 불자들이 그들의 언어인 수화로 교리와 찬불가를 배우며 불법에 푹 빠져 지냈다.

부산 농아인불자회, 서울 조계사 원심회 등 서울, 대구, 부산, 김해 등 전국의 농아 불자 40여명과 수화 봉사모임인 심여회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20여명이 함께 한 수련회는 지도법사 도원스님과 내원암 신도들의 정성과 보시로 마련됐다. 도원스님은 출가 전부터 수화 봉사모임인 심여회에서 활동해 온 인연이 있어, 농아인들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불법을 이끌어 주는 스승이다.

수화로 법회 내용을 통역해 주는 사찰이 없다 보니 농아인 불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수화 통역이 있는 수련회는 반갑기만 하다. 조석예불, 법문, 찬불가, 부관스님의 종이 만들기 등 모든 프로그램이 수화통역으로 진행되고 2자 1배로 진행된 반야심경 사경에서는 땀을 흘리면서도 농아 불자들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김태운(김해 배화고 2) 학생은 수화로 수련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어디서 이런 법회가 열리는 줄 몰라서 처음 참석했는데, 발우공양, 반야심경 사경, 참선 등이 너무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농아인 법회를 열고 있는 곳이 단 3곳뿐일 정도로 농아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무한 상태여서 6년째 열고 있는 수련회가 쉽지만은 않다.

도원스님은 "청소년들을 위한 농아법회와 농아인 2세들을 위한 언어교육, 심성교육 등을 열어 부처님법에 따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범어사 내원암에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전국농아불자수련회에 참석한 농아인 불자들이 수화로 찬불가를 배우고 있다.

대구U대회 불교관 운영회의 열려

한국불교 홍보·민간외교 다짐

대구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성)는 6일 대구 동변중학교 5층에 마련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불교관에서 '운영요원 회의'를 가졌다.

조계종, 천태종, 대구경북포교사단,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등 지역불교계 대표 및 불교관 운영요원,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에서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불교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구불교종단협 회장 지성스님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전세계의 청년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한국불교 홍보뿐만 아니라 민간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 불자들이 바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교관 운영에 임해지역 불교계의 단합과 화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불교관은 14일 오후2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21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원하고 한국불교 홍보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박원구 기자

왜 간화선인가?

실상사, 제8회 선우논강

한국사회에서 여러 수행법이 유행하는 가운데 이 시대 간화선이 왜 중요한가를 밝히는 논강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제 8회 선우논강이 22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지리산 실상사에서 '왜 간화선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논강에는 첩오 스님(사천 구룡사,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이 기조강연하며, 원경스님(송광사 강원 학감)이 발제한다. 또 논평에는 도법 스님(실상사), 월암 스님(경주 칠불암)이 참여한다.

참가대상은 조계종 비구, 비구니이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문의: 02)3676-4060, 063)636-3031. 김원우기자

'충청불교' 9월중순 창간

충청지역 불교계 소식을 전할 '충청불교'가 9월 28일(예정) 창간된다.

사찰의 법회안내와 구인 구직 등 불교생활정보를 전하게 될 '충청불교'는 타블로이드판형 16면 월간으로 무료 배포된다.

이에앞서 충청불교는 6월말 4면, 7월말 8면으로 창간준비호를 발행했으며, 8월말 3호가 나올 예정이다.

발행인 장인수씨(전 청주불교방송 PD)는 "내년부터 격주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43)225-6123.

김원우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우리 절 우리 신도

불사·포교에 2대째 헌신

천룡사 신도회 고문 김부기 거사

어머니 이어 설법전·미륵대불 불사 주도

"내가 먼저 실천하면 주변사람도 따라와"

구미 천생산 천룡사에 2대째 사찰의 불사와 포교에 헌신하고 있는 불자. 신도회 고문 김부기 거사(64, 불명 자은)가 그 주인공이다. 김거사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모친 이석임보살(불명 무량심)의 뒤를 이어 절 일에 '인생회향'을 발원하고 있다.

천룡사는 고려시대부터 존속된 대규모 사찰이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의 모습으론 과거의 사찰 규모를 짐작키 어렵다. 천룡사 중창불사가 시작되었던 1950년 무렵 주변에서 발견된 기와와 탑신 조각 등이 사찰터였음을 말해줄 뿐이었다. 한국전쟁 후 오직 불법으로 전쟁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발원한 이석임 보살을 비롯한 불자들이 대웅전 법당과 요사채 불사를 시작하면서 천룡사의 옛 모습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원력을 이어받은 김부기 거사는 90년 초부터 97년까지 신도회장을 역임하면서 천룡사 설법전, 미륵대불 불사 등 큼직한 대형불사를 주도했다. 천룡사의 오랜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내는 동안, 김거사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또, 김거사는 포교에서도 남다른 실천을 보이고 있다. 현재 1,500여명의 천룡사 신도 중 김거사의 포교로 불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김거사는 "포교를 위해 별다르게 노력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다만 "부처님 법의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히 주변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말보다 앞선 실천이 김 거사만의 포교 비법인 셈이다.

현재 김거사는 신도회 고문으로 현역에서는 은퇴(?)해 한 걸음 물러나 있으면서도 또 다른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김 거사는 "천룡사라는 사명(걸맞게 부처님의 법과 사찰을 수호하는 용불사를 마지막으로 불사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 박원구 기자



◇구미 천룡사 신도회 고문 김부기거사(사진 오른쪽 첫번째)가 주지 진오스님과 불사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추천의 말

진오스님 천룡사 주지

초발심~지금까지 한결같아

보통 신도회장을 역임하고 나면 절일에 신경을 덜 쓰지만 김부기 거사는 초발심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김 거사는 매일 절에 나와 기도도 하고, 혹 큰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아침 일찍 찾아올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룡사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성장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김거사와 같이 큰 원력을 지닌 불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5-7555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